금주의 법구-〈법구경〉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이뤄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괴로움은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0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4월 30일)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군승 파송 반세기 맞아 군포교 혁신 시작된다

조계종 군종교구, 7일 군불교 미래비전 제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승 파송 50주년을 맞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포교 일대 혁신에 나섰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6월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승파송 50주년 특별 사업계획 및 1주년 성과 등을 공개했다.

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올해는 군승 파송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새로운 포교 방향을 정립하고 군불교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기"라며 "젊은 군장병에 맞는 전법활동 및 포교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군불자 자긍심 고취와 신심 증장에 최선을 다하는 군불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군종특별교구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군승파송 50주년 특별사업은 크게 △군전법 현대화 △군신행 활성화 △포교시스템 체계화로 분류된다.

콘텐츠 개발로 '눈높이 전법'

먼저 군전법 현대화를 주제로는 젊은 세대에 맞는 포교문서, 콘텐츠 편찬이 추진된다. 개정된 조계종 의식과 계층포교 방향에 맞춘 의식집, 경전선집, 포교교육 교재가 발간되며 미래세대 전법방향이 제시된다. 군종특별교구와 국방부가 구성한 군승파송50주년 특별사업단은 지난해 11월 컬러 법요집을 발간한데 이어 전시법요집, 재적본사 의식 담은 기도의식집 편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없었던 전시복제 또한 제작된다. 전시복제가 있는 가톨릭과 개신교와 달리 불교는 일선 군법사들이 군복 위에 가사장삼을 입는 등 전법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복제 초안이 마련된 상태로 11월 30일 50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에서 공개된다.

이와 함께 일선 군법사들의 설법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려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먼저 육해공군 군승 설법대회가 6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설법대회에는 각 군별 예선을 거친 육해공군 군승 11명이 경연을 벌일 예정이며,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 스님들과 육해공군 군승 130여 명 등이 참여해 군승법사의 위상 강화와 군설법 현대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행정국장 법상 스님은 "현역 군승법사들 중심의 다양한 TF팀이 구성된 상태로 올해 연말에는 군포교 현장에 맞는 교재 등이 발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법 현대화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중심' 軍신행 조직 정비

현재 군장병 감소와 종교인구 감소 속에 불교만이 군불자 소폭 증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종특별교구는 이런 상황에서 군신행 활성화를 위한 군불자 증가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각군 법당에서 개별적으로 수계를 받은 군불자들을 위한 군불자 통합 수계산림도 추진된다. 올해 9월 경 예정인 군불자 통합 수계산림은 계룡대 호국사에서 전체 군불자들이 참여하는 대형 행사로 마련된다.

또 관음회 수련회, 준부사관 템플스테이, 장병인성수련회 등이 확대 운영된다. 군불자들의 대표 단체인 국군불교총신도회 예하 각급 신도회 체계가 마련된다. 또 예비역불자들을 위한 호국포럼이 연 6회 열리며, 성보회 위문법회 등 신도단체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또 군종병들의 신심을 북돋기 위한 동사섭 수행 기회 제공 및 군장병 출가 홍보 등도 진행된다. 교리경시대회와 화쟁위원회 독후감 공모 등 동참부대 확대 운영도 진행된다.

행정국장 법상 스님은 "먼저 올해 초 대불련, 대불청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역 군종병

전법 현대 · 체계화 기반 마련
교재 개선 · 설법 전문화 박차
'전역 장병 네트워크' 추진도

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군장병들의 신심 증대와 함께 이들이 전역 후에도 불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통해 '행정 전문화'

군승파송 50주년을 맞아 군포교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과 각종 제도 개선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자책으로도 병행 제작되는 〈군승 50년사〉가 11월 30일 50주년 기념법회에서 봉정된다.

아울러 교구조직 및 제도 또한 현역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책임종무원 제도 및 각종 규정 개정을 통해 현대화된 환경에 맞춰 개혁한다.

현재 급감한 후원조직도 재정비 된다. 불교계 언론을 통한 홍보를 통해 만인동참자 확대에 나서 현 700명 수준의 후원인원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어떻게 해야 군불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 다시 시작하는 50년,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말보다 실행하는 군종교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애국선열을 기리며 군포교 원력 다지다 순국선열을 추모하며 군포교의 새로운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6월 5일 제63회 현충일을 앞두고 현충원을 찾아 순직 군승의 넋을 기렸다. 서울 현충원 참배에는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사진 왼쪽 네 번째)을 비롯해 법장 김대현 군승법사(사진 오른쪽 두 번째) 등 군승 1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군복무 중 순직한 故 김수남 군승과 故 이동신 군승, 故 김인수 군승의 묘역을 참배했다. 박재완 기자

'백제 미소' 금동관음상 100년 만에 日서 공개

문화유산회복재단, 소재 확인
"지자체 등과 함께 환수 추진"

1922년 이치다 구입 이후 반출
7세기 조성 추정… 美感 완벽해
"백제 미술 대표할 국보급 성보"

일제강점기 당시 충남 부여 규암면에서 발견된 이후 일본으로 반출돼 소재를 찾을 수 없었던 금동관음보살입상이 100년만에 확인됐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이사장 이상근)은 "부여 규암면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의 소재를 최근 일본에서 확인했다"고 6월 4일 밝혔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규암면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은 26.5cm로 인자한 미소를 띤 표정, 어깨 · 허리 등을 살짝 비튼 자세, 천의를 두르고 구슬장식(영락)을 걸친 모습 등이 완벽한 조화와 미감을 보여준다.

보살상을 실견한 학자들은 7세기 백제를 대표할 만한 중요한 문화재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보살상을 친견했던 최응천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교수는 "이번에 일본에서 공개된 금동관음보살입상은 출토지가 확인되는 완전한 형태의 백제 보살상이다. 또한 크기도 대형이며, 조형미도 매우 뛰어나다"며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보존상태도 매우 좋다"고 밝혔다.



정은우 동아대 석당박물관장은 "이전까지는 보살상 관련해 흑백사진 한 장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미술 개설서 등 전문서적에서는 백제기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언급하고 있다"면서 "자연스러운 자세와 부드러운 천의, 완벽한 제작 기법 등에서 백제 시대 불교 미술의 우수한 조형성과 우아함을 대변하는 보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일본에서 공개된 금동관음보살입상은 1907년 부여 규암면에서 출토됐다. 당시 땅을 파가다 쇠솥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보살상 2구가 나왔고, 이는 일제 헌병들에게 압수됐다. 이후 21.1cm 크기의 금동보살상은 1939년경 한 일본인의 손에 들어갔고, 1950년 서울국립박물관에 귀속돼 현재는 국보 제293호로 지정됐다.

다른 26.5cm 크기의 한 구는 경매에 의해 일본인 니와세 히로아키에게 입찰됐으며, 니와세는 1922년 대구에서 의사로 활동하며 한국 문화재들은 수집하던 이치다 지로에게 팔았다. 해방 이후 이치다는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도일(渡日)하며 보살상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이치다는 생전 자손들에게 "자신이 모은 모든 유물은 출품과 매매가 가능하지만 규암면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만은 절대 안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치다의 유언은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간 공개를 꺼렸던 관음상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인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환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은우 교수는 "현재 세월과 보관 환경에 의한 부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되도록 빠르게 환수해 보존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응천 교수는 "소유자가 고민 끝에 보살상을 공개했다. 지금이 환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불교계도 보살상의 환지본처 불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현재는 개인소장품인 만큼 환수를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출토지인 충남도와 부여군과도 협력해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블랙아웃'

중앙종회 특위 동력 잃어… 회의 소집도 無

3월 14일 6차 회의 끝으로
특위 공식회의 열리지 않아
5월엔 성원미달로 간담회만
공청회 · 여론수렴도 미지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현행 선거법으로 인해 불거지는 폐단을 막고자 수년간 이어져온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노력이 사실상 '블랙아웃(대정전)' 상태다. 제16대 중앙종회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데다 관련 특위 또한 동력을 잃어 회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는 지난 5월 1일 회의 성원 미달에 따른 간담회 이후 한 달이 넘도록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이전 간담회에는 15명의 위원 중 4명만 참석해 이렇다 할 논의조차 할 수 없었으며, 결국 3월 14일 제6차 회의를 끝으로 현재까지 공식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특위 간사인 일감 스님이 최근 총무원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특위 활동은 한층 더 움츠러들었다. 일감 스님은 제6차 회의서 여론조사를 거친 '추선제'를 제안하고, 외부 전문위원들을 섭외하는 등 특위 전반에 걸쳐 활동해왔다.

특위 위원장 초격 스님은 본지 전화통화에서 "(위원들과) 서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데 잘 안 맞는다. 첫 회의 때부터 6월 임시회를 원포인트 종회로 생각하고 선출제도 개선을 논의해왔지만 17대 중앙종회 선거를 앞두고 관심도가 많이 옮겨간 것 같다"며 "하는 데까지는 맡은 바 계속 노력해보려 한다.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기에 이번 종회서 안 된다면 다음 종회서라도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논의는 활발했으나…

2014년 11월 제16대 중앙종회 구성 이후 총무원장 선출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제법 활발하게 이어졌다. 종책모임 삼화도량은 주요 종책과제로 총무원장 직선제를 내세웠으며,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 연대회의'는 2015년 3월 기자회견과 함께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해 8월 법등 스님이 추첨제를 골자로 한 '염화미소법'을 제안하면서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가 9월 개원한 203회 임시회서 염화미소법을 다룰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 특위'를 구성했고, 이후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직선제를 희망하는 종도들의 여론이 확인되자 2016년 6월 206회 임시회서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위'까지 구성했다. 하지만 두 특위에서 상정한 각각의 종헌개정안은 거듭 이월됐다. 결국 중앙종회는 2017년 3월 208회 임시회서 두 특위를 해체하고, '총무원장 선출제도개선 특위'를 꾸려 통합적인 관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신규 특위는 회의를 통해 타종단 및 외국불교계 수장 선출방법 등을 검토하고, 추대와 선출이 혼합된 방식인 '추선제'도 논의했으나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위원들과 뜻을 모았던 공청회 개최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총무원장 선출제도 논의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앞으로도 꾸준히 풀어 나가야할 화두이기도 하다"며 "무엇보다도 종회의원들의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지지부진한 특위 활동에 실망감을 드러낸 위원도 있었다. 한 특위 위원스님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과 분열이 생겨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현재는 진행되는 게 없다. 그저 안타깝다"면서 "과연 이 문제가 17대 종회서 해결될 수 있을지도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스님은 "현재로써는 특별히 회의와 관련해 연락 받은 게 없다"며 "선거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그간 겪어온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불자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부처님, 그리고 승가 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12處 '세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

눈 · 귀 · 코 · 혀 · 몸 · 마음(眼耳鼻舌身意)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섯 개의 인식기관(六根)의 작용이 '세상의 생겨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세상과 육근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어느 날 생문 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일체(一切)란 무엇입니까?"

당시 인도에서 '일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였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 또는 세간과 같은 개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바라문의 질문에



제목 · 심청정국토청정 그림 · 조향숙

6근이 6경 인식하는
연기적 관계가 '세상'
인간중심 존재론적 세계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일체란 12처(處)에 포섭되는 것이다. 눈과 색(色),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마음과 법을 일체라고 한다. 만약 이 12처를 떠나 다른 일체를 시설하겠다면 그것은 말일뿐 물어봐도 모르고 의혹만 더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잡아함 권 13〉

부처님은 우주의 삼라만상은 12처에 거뜬히 포섭된다면서 12가지 이외의 것, 즉 인간에 의해 인식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12처설은 그 12가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온다'는 뜻을 취하여 처(處)라고 부르고, 이 교설을 12처설이라고 했습니다. 처는 마음과 마음작용을 생장(生長)시키는 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12처는 인식기관인 6근(六根)과 인식대상인 6경(六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 · 귀 · 코 · 혀 · 몸의 5근과 이를 통솔하는 마음(意根)을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근이 인식하는 대상이 육경입니다. 즉 눈으로 보는 색 · 형태(色境), 귀로 듣는 소리(聲境), 코로 맡는 냄새(香境), 혀로 느끼는 맛(味境), 몸으로 느끼는 촉감(觸境), 마음으로 아는 생각(法境)입니다. 6근(六內處)과 6경(六外處)은 상응하는 대상을 만나 서로 의존적일 때 존재의 근거가 생기는 연기적 관계입니다.

*12처설에서 우리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불교의 존재론적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인식주체가 되고 있는 6근은 그대로 인간존재를 나타내고, 인식객체가 되고 있는 6경은 인간의 자연환경에 해당됩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12처에서 비롯됩니다. 12처설은 불교의 기본교리인 연기설의 기초로서 6식(識)이 일어나 18계(界)를 이루는 기본바탕입니다.

육근 참회 수행이 있습니다. 6근으로 지은 죄업을 참회하면서 아상을 녹이면 육근이 청정해지는 닦음입니다. 안이비설신의가 깨끗할 때 그 대상인 6경을 있는 그대로 인식합니다.(如實知見)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12처에 있습니다. 12처가 세상입니다. 12처가 밝으면 세상이 밝습니다. 이러한 연기법을 보고 일체의 존재에서 무상과 무아를 보면 집착에서 벗어나 이고득락의 길이 보입니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 그리고 마음을 잘 챙깁시다. 6근 청정은 세상 청정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불법에서 가장 으뜸인 연기(緣起)의 가르침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조계종 직할교구 탈북대학생 장학금

5명에게 각 100만원씩

조계종 직할교구가 처음으로 탈북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6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직할교구 청년장학금 전달식에서 탈북 대학생들을 격려했다.

설정 스님은 "언젠가는 남북한이 하나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학생들은 그 시간을 더욱 많이 누리게 될 것"이라며 "통일이 되면 남한에서 배운 지식으로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해 주역으로 활동하게 된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꿈을 갖고 정진하면 이뤄지니 학업에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직할교구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대학 불교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 대학생 중 '통일바라밀숲' 추천을 통해 동국대와 홍익대 재학생 5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전달됐다.

한편, 직할교구의 이번 탈북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최초로 직할교구는 향후 청년불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성추행 의혹 시기, 법장 스님 장례 맡아"

현응 스님, MBC PD수첩 성추행 의혹 전면 반박

MBC PD수첩이 5월 1일 방영한 '큰스님께 묻습니다'를 통해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사진〉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응 스님이 방송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현응 스님은 6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응 스님에 따르면 의혹 제기자는 올 초 인터넷 익명사이트에서 '2005년 9월 중순' '그날이 수요일' '저녁공양 후 7시에 오라'는 등 구체적인 상황묘사를 글로 남겼다. 이에 스님은 2005년 9월 중순인 14일이 前총무원장 법장 스님 장례기간이었음을 밝혔다. 현응 스님은 "법장 스님 장례 집행위원장을 맡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 있었다"며 본인이 참석한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를 자료로 첨부했다.

현응 스님은 이어 "의혹 제기자는 사건 당일 오후 7시 이후 해인사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 대구 반야월 이마트로 갔다고 했다"며 "동대구IC 또는 경산IC 톨게이트 사진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장례위원장 맡아 서울에 체류"
수사기관에 톨게이트 확인 요청

"9월 14일뿐만 아니라 전 주인 7일 또는 다음 주인 21일경에 대해서도 톨게이트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의혹 제기자가 자신의 주장을 바꾼다면 그 다음에 검토해볼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 의혹 제기자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 처음 인지했다. 의혹 제기자는 사실 입증을 위해 어느 해,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인사 카드내역 악의적 편집"

현응 스님은 이외에도 해인사 카드사용 내역과 관련해 "PD수첩이 유흥주점과 숙소이용을 연계된 것처럼 왜곡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방송에서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사용 총 161건, 8200만원이라고 했지만 부풀려 왜곡시킨 것이다. 심지어 호텔 커피숍과 식당까지 숙소사용 횟수에 포함됐다"면서 "3년 3개월치 법인카드 내역에 나타난 모든 숙소사용은 총 56건이다. 다수가 해인사 외빈과 각종 출장에 대한 숙소사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응 스님이 기자에게 공개한 카드내역에 따르면 유흥주점과 숙박시설 카드 결제일은 대다수 달랐다. 스님은 "3년 넘는 기간 동안 유흥주점 이용내역이 몇 건 있지만 직원들 회식과 관련되거나 외부인사 접대가 전부다. 해인사 스님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주점 이용일에 사용한 몇 건의 숙소도 외빈 접대 후 직원 객실이었다. PD수첩이 화면에 각각 다른 날짜의 결제내역을 연결해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응 스님은 PD수첩 방송과 관련해 6월 1일자로 형사고소를 마쳤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 종로구 창신동 안양암 극락왕생도 <서울시 유형문화재 188호>

BTN 불교TV가 만든
불교계 유일의 불교전문 장례!!! 불 국 토 상 조
불국토상조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진심을 다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불국토상조가 불교문화를 이어갑니다. 가입상담 1577-7675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이 설립한 불국토상조

"불국토상조만의 불교전문 장례서비스 특징"
스님의 시다림 봉사
입관 및 성복제를 하는 동안 스님이 여법한 염불 집전을 해드립니다
장엄한 제단장식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나타내는 번(幡)장식을 통해 제단의 불교식 장엄함을 구현합니다
불경수의/ 지장보살상 위패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지장경(금박)이 새겨진 불경수의와 지장보살상 위패를 제공합니다



대리점주 (장례포교사)를 모십니다. 상담문의 02-525-3370
부처님오신날 봉축할인 4.23 – 5. 22(중복할인 불가)

BTN 불교TV 불국토상조
불국토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여 회원의 소중한 상조납입금을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조관련 중요정보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btnlife.co.kr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 대표이사 구본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서울-2011-제 68호

韓·中 승가교육 교류 활성화 초석 다지다

중국불교協 고찰단, 6월 3~8일 한국 찾아

中협회·각지 불학원 대표자 참여
중승대·동국대 등 교육기관 방문
한국 승가교육 시설·체계 확인해
"유학승·학술 등 교류 확대할 것"






'중국불교협회 한국승가교육 고찰단'은 6월 3~8일 중앙승가대·동국대·해인사 승가대학·운문사 승가대학 등을 순회 방문했다. 사진 왼쪽부터 중앙승가대 총장 성문 스님이 고찰단장 종성 스님에게 학교발전사를 설명하는 모습, 중앙승가대 본관서 이뤄진 기념촬영, 동국대박물관 서고에서 〈석보상절〉을 보고 있는 고찰단 일행의 모습.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4월 조계종 교육 관계자가 방중한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불교협회와 불학원 대표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한국과 중국불교가 추진하는 승가교육을 통한 인적 교류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중국불교협회 한국승가교육 고찰단(이하 고찰단)'은 6월 3일부터 8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조계종립 대학인 중앙승가대·동국대와 전통 강원인 해인사 승가대학·운문사 승가대학 등 한국 승가교육기관을 순회 방문했다.

중국불교협회 상임부회장 종성 스님을 단장으로 한 고찰단에는 대승·티베트·남방 불교 관련 불학원 관계자 2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6월 4일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자리에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승가교육 교류 활성화에 한·중 양국불교가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설정 스님은 "우리는 국가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부처님의 일불제자"라며 "소중한 인연을 가슴 속에 담고 한중 교류 강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계에 번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찰단 단장 종성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고찰단은 김포 중앙승가대 방문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으며, 5일에는 동국대, 6일에는 해인사와 운문사 승가대학을 각각 방문했다. 또한 진각종립 위덕대와 원불교가 건립한 원광대도 참관했다.

이들은 각각의 승가교육기관 현황, 연혁, 학사운영, 교육 커리큘럼 등을 설명받았으며,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질문했다. 중앙승가대에서는 포교사회학과와 같은 현대적 승가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며, 동국대에서는 종합대학으로서 중앙승가대와 차이점 등의 질의가 쏟아졌다.

직접 답변에 나선 중앙승가대 청장 성문 스님은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세상을 모르면 포교를 할 수 없다"면서 "기존 전통 승가교육에 현대 교육이론을 접목하고 불교와 세상을 동시에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법하는 수행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중앙승가대와 가장 큰 차이점은 학내 구성원이다. 동국대는 13개 단과대학이 있는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사부대중이 함께 수학한다"며 "이 같은 이점을 살려 다양한 융복합 과목을 만들어 학인 스님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찰단은 도서관 등 각 교육기관의 시설을 둘러봤으며, 한·중 승가교육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고찰단장 종성 스님은 "한국과 중국불교는 많은 교류를 해왔지만 인적교류는 부족했다. 이제 양국 불교 교류는 승가교육을 통한 인적 교류로 확대돼야 한다"면서 "양국 유학생을 교환하고 승가교육 관련 학술세미나 등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찰단 방문은 지난 4월 23일~27일까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비롯한 종단 교육 관계자의 중국 불교 방문에 이은 한·중불교 상호교류의 연장이다.

당시 현응 스님은 위파 중국 국가종교국 부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중불교 교류 21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실질적 교류를 위해 양국 불교가 추천하는 10명의 유학승을 교환해 양국 불교교육기관에 수학토록 하자"고 제안했으며, 중국 측 관계자들도 적극 지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이번 교류를 통해 한중 불교 승가교육과 관련해 우의증진과 상호교류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QS세계대학평가' 동국대 역대 最高 기록

세계 순위 432위로 상승

동국대가 세계 대학 평가에서 432위, 국내 13위에 오르며, 대학 평가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QS(Quacquarelli Symonds)와 조선일보가 실시한 '2018 QS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순위 432위, 국내 13위에 올랐다"고 6월 7일 밝혔다.

이는 동국대가 2013년부터 QS세계대학평가에 참여한 이래 가장 높은 성적이다. 평가 참여 첫 해인 2013년 601~650위를 기록했던 동국대는 지난해 471위까지 지속적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는 432위로 39계단 큰 폭으로 뛰어오르며 세계대학순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동국대는 △교수당 학생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번 평가에서 동국대는 교수당 학생비율과 외국인 학생 비율이 각각 24계단, 51계단 상승했다. 연구경쟁력 높은 교원초빙, 유학생 집중유치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신성민 기자

조불련, 민추본에 18주년 축전보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창립 18주년을 축하했다. 이들은 자비와 화해의 이념서 평화번영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과감한 실천도 당부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 이하 민추본)는 6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가 창립 18주년 축전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한 조불련이 남북불교교류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향후 정세추이를 보며 시기와 장소를 정해 추진하자는 의사도 함께 보냈다고 덧붙였다.

조불련은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의 장엄한 신호탄이며 역사적 이정표다. 이는 우리 겨레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고 있다"며 "우리 불자들은 자비와 평등, 화해와 화합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추본은 이같은 조불련의 축전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남북불교의 교류협력과 단합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진형 기자

미래 100년 다질 정법도량 문 열어

재단법인 선학원,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개관



일제강점기 왜색불교로부터 한국불교 전통을 지키고자 설립된 선학원이 100주년을 앞두고 미래 100년을 준비할 기념관을 개관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6월 2일 서울 안국동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개관식과 만해 용운선사 동상 제막식을 봉행했다.

기념관은 2014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총 대지면적 814㎡(246평)에 지하 4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지어졌다. 전통한옥 양식의 기념관에는 △정화 불교관 △근대 역사관 △민족 불교관(항일과 독립) △대강당 및 소강당 등이 들어섰다. 지난 2014년 11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민족불교의 전통을 수호하고 정화불교의 기치를 내걸며, 지난 세월동안 선학원 조사 스님들은 불가의 전통을 계승하고 포교와 교육, 복지와 신행, 불교문화의 능동적 창달을 지향했다"라며 "재단소속 600여 분원과 스님들은 수행과 포교 현장에서 불법의 홍보와 설립 조사의 이념을 굳건히 해 나가며 한국불교의 복전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세균 前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앞으로 기념관이 사부대중에게는 옛 조사의 수행가풍을 계승 발전하는 도량으로, 시민에게는 역사와 문화의 명소로서 역할과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계유산 정림사지 4차산업기술로 '재탄생'

부여군, 6월 4일 역사체험 활성화사업 용역 보고회

40억원 투입… 'ICT 체험' 개발
빅데이터 이용 관람객 니즈 분석



유네스크 세계문화유산인 부여 정림사지가 4차산업기술로 다시 태어난다.

부여군은 6월 4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정림사지 백제역사체험 활성화사업 전시기획컨설팅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영배 부여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부여군 실과단소장, 사업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부여군이 추진하는 '정림사지 백제역사체험 활성화사업'은 제3기균형발전사업으로 국·도비 30억 원을 포함 총 4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에 앞서 이뤄지는 전시기획 컨설팅용역은 내년 1월까지 실시된다.

부여군에 따르면 이번 전시기획 컨설팅용역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접목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용역과 차별화를 지녔다.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시스템과 관광객의 니즈를 철저히 분석하고 박물관 여건분석 및 전시 콘텐츠 기획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호단 시설운영방안, 관광활성화 정책사업 발굴을 비롯해 전시체험 콘텐츠를 기획, 스토리에 맞는 최적의 ICT 체험서비스들이 개발될 예정이다.

한영배 권한대행은 "4차산업혁명과 문화유산과의 만남은 매장문화재로 존재하는 우리군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정림사지 박물관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첨단 기술을 어떻게 스토리에 녹여낼 것인가에 집중하는 전시프로그램을 구성하려 한다. 첨단 테마형 박물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여군은 전국 최초로 4차산업혁명의 각종 ICT기술을 문화유산에 접목해 체험관 및 전시관, 박물관의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에 집중 추진중이다.

올해 하반기 사비도성을 가상복원한 VR, AR, 홀로그램 인공지능 챗봇 안내시스템을 적용한 '사비도성 가상체험관'과 금동대향로 홀로그램, 인터렉션 미디어를 볼 수 있는 '능산리 ICT아트 뮤지엄'을 개관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한국禪 '돈오돈수' 매몰… 다양한 禪風 필요

김방룡 교수, 3일 반야불교문화硏 학술대회서 주장



돈오돈수, 출발 · 중간점 설명 모호
"구경각 · 임제 법맥 이은 자 있는가
돈오돈수의 현실적 어려움 확인돼"

禪 · 敎 함께해야 간화선 더 발전해
위빠사나 · 티베트불교 장점 포용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선(禪)의 정체성을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에서만 찾지 말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선풍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방룡 충남대 교수〈사진〉는 6월 3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불교의 근본 가르침과 한국불교의 정체성-불교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제4회 반야불교문화연구원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선의 정체성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란 주제 발표에서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 이론은 구경각은 분명하지만 그 출발점과 중간 과정이 모호한 약점이 있다"며 "돈오돈수의 간화선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구경각 지위에 있으면서 대대로 임제종의 법맥을 이은 자여야 하는데 현재 찾아볼 수 없다. 돈오돈수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성철 스님의 〈한국불교의 법맥〉을 언급하며 '임제-태고 법통설'이 역사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김 교수는 "성철 스님은 한암 스님이 주장한 '도의-보조 법통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임제-태고 법통설'을 정론이라 주장했다"면서 "한암과 성철의 법통설 대립은 '보조와 임제', '한국과 중국' 가운데 어디에 정통성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기 보단 인식의 문제로 접근했다"고 해석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사교입선(捨敎入禪)'을 교에 의지하여 선이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선은 교와 함께 있을 때만이 제대로 빛을 본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우리사회에 보편화되고, 불교의 다양한 교학이 첨예하게 발달할 때 간화선은 더 빛을 발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한국불교 한국선의 정체성을 위해 △교학과 수행을 아우르는 수행공동체 △과학, 선 · 교와 함께하는 병진 필요성 △현대인 위한 다양한 선풍 △위빠사나 및 티베트 불교의 수행 장점 포용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학술대회서는 중국불교에 대한 고찰도 이뤄졌다. '중국불교 대승화에 대한 이해의 한 측면'이란 주제로 발표한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중국 불교는 인도불교와는 다른 새로운 붓다관을 출현 시켰고 그 결과 약사여래불 및 비로자나 부처님 등 한국 불교에 영향을 끼친 새로운 붓다를 형상화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 교수는 "구마라집의 역경 및 불교사상 전파 활동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전법의 기준은 당시 서북인도에서 유행하고 있던 부파불교적 성향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특정 대승경전을 중심으로 전체 경전을 종합적으로 해석 전승해 현재 중국 불교의 양상을 대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술대회는 '붓다의 가르침: 초기 경전의 한계와 의의'(정준영 · 서울불교대학원), '부파불교 비불설 논쟁으로 본 불설의 의미'(황정일 · 동국대), '중국불교의 대승화 과정에 대한 이해의 한 측면'(석길암 · 동국대), '한국선의 정체성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김방룡 · 충남대) 순으로 진행됐다.

봉은사 대표기도 33관세음보살 천수다라니 입재

6월 7일부터 천수다라니108독송 기도정진



서울 봉은사서 열린 천수다라니108독송 기도정진 입재식에서 스님들이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

서울 강남 대표사찰 봉은사가 도심 속 수행사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6월 7일 가정의 행복과 중창불사 원만 성취 등을 발원하는 천수다라니 108독송 기도 정진에 입재했다.

이번 기도 정진은 33개월간 진행되며 주중 오후 1시부터 관세음보살 예경과 천수다라니 108독이 진행된다. 또 평일 기도 동참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해 토요일 밤 오후 6시에도 야간기도가 진행된다.

주지 원명 스님은 33관세음보살 대정진기도에 들어가기에 앞서 "33관세음보살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과 마음속에 있는 고충을 살펴주시고 소원성취토록 하는 원력을 가지고 계시다"며 "모든 사부대중이 매월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봉은사 중창불사 원만성취와 나와 내 가족의 행복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3관세음보살 대원성취 천수다라니 정진기도는 상시접수로 가입비 10만원, 둘째 달부터 매월 3만원씩 동참금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동참자에 한하여 기도책, 발원카드, 가족축원, 성지순례 등 6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봉은사 홈페이지(www.bongeuns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3218-4801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보물 지정됐다

문화재청, 4일 공고… "조선 후기 다포식 공포 전형"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의 극락보전〈사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강원도 속초 소재 신흥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81호로 지정했다"고 6월 4일 밝혔다.

신흥사 극락보전은 〈설악산신흥사대법당중창기(1749)〉, 〈신흥사극락전중수기(1770)〉, 〈신흥사극락보전중수상량문(1821)〉 등의 자료를 통해 1749년(영조 25년)부터 1821년(순조 21년)까지 4차례 수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수공사 기록 등 연혁을 확인할 수 있는 풍부한 문헌 기록을 갖고 있어 건물의 역사가 잘 남아 있는 편이다.

극락보전은 18세기 중엽에 중건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多包)식 팔작지붕 건물로서, 18~19세기 영동지방의 중요한 왕실 원당사찰로서 세부의장과 공포형식이 우수하고 기단과 계단, 창호 등 높은 품격의 요소들도 잘 보존돼 있다. 특히, 기단의 모란, 사자 문양과 계단 난간 소맷돌의 삼태극, 귀면(鬼面), 용두 문양 조각들은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사례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붕을 받치는 공포는 화려함과 품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조선 후기 다포식 공포의 전형"이라며 "신흥사 극락보전은 형태 · 구조 · 장식 측면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보존상태 또한 양호해 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어린이 · 청소년 지도자 연수 열린다

불교 각 단체 연수회 개최

불교계 어린이 청소년 단체들이 지도자 양성에 나섰다. 먼저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신공)은 6월 23~24일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64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 동련은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프로그램과 어린이 포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한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의 '내 마음의 행복을 찾아' 주제 강의와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의 '이런 선정바라밀은 처음이지!' 강의, 장초희 심리상담사의 '우리가 만드는 선정바라밀' 강의 등이 이어진다. 24일에는 요가와 함께 만다라 체험, 숲길 명상 등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노휴)도 7월 7일 '붓다 핸썸(Hands UP)! 희망 붓다!'를 주제로 제61회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사찰 어린이법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지도자 강습회는 찬불가 율동의 활용을 모색하는 강의가 이어진다. 펜아트 우드등 만들기 등 프로그램도 소개된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는 6월 22~24일 서울 법련사에서 불교청소년지도자 기본과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불교청소년지도자가 갖춰야 할 청소년의 이해 △국가 청소년정책의 이해와 활용 △청소년 상담 △명상지도법 △문화재지킴이 지도법 △자원의 발굴과 활용 △파라미타의 이해 △우수지도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실습도 진행된다.

노덕현 · 하성미 기자

서울시민이 함께하는 茶축제

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흠)는 6월 16일 BBS불교방송과 함께 서울 수국사에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차문화대축제 '유월의 향기로운 차 이야기'를 개최한다.

서울시가 후원하는 이번 차축제는 수국사 경내에서 다양한 차(茶)문화와 사찰음식 체험을 비롯해 어린이 다례, 가루차 행다례, 108인 헌다 시연 등이 진행된다. 또한 시민들에게 우리의 전통 차를 맛보게 하고, 다식 만들기, 향낭 주머니 만들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한국차인연합회는 1979년 설립된 대표 차인단체로 전국단위 차회를 육성하고 차생활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차축제가 열리는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는 조선시대 왕실 사찰이자 서울 서북부 지역으로 대표하는 수행 포교 도량으로 법당 전체가 순금으로 돼있어 황금법당 사찰로도 잘 알려져 있다. 노덕현 기자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2018

제 3 회

천태예술 공모대전

접 수 2018. 9. 5(수) ~ 6(목)
전 시 2018.10.17(수) ~ 23(화)

대한불교천태종은 다양한 예술분야의 저변 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3회 천태예술공모 대전을 개최합니다. 전통불화, 현대불화, 조각, 공예, 서예·문인화, 민화, 사진 일곱 개 분야에서 참신한 예술가를 발굴합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재량 하에 출품 부문 부적합 판단 시 부문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된 출품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출품 서류(출품원서, 작품설명서) 작성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
- 우편 접수의 경우 작품 훼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작품 접수 후 전시까지 보관 과정에서 작품 자체의 변형은 책임지지 않음.
- 기발표작, 표절작, 사찰 봉안 및 판매된 제품, 타인명의 출품 불가. 확인 시 추후 입상 무효화 및 상금 반환 조치.
- 기타 공모전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상규에 따름.
- 초대작가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작가 점수가 제공되지 않음.
- 인터넷으로 원서 등록한 경우, 원서 없이 접수번호만으로도 접수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 확인 바랍니다.

1 분야 및 분야별 공모 개요

분 야	규 격	출품료	출품제한	유의사항
전통불화	200호 미만	1점당 50,000원	1인 2점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
현대불화				
조 각	높이 250cm 미만	1점당 50,000원	1인 2점	완성품으로 제출
공 예	가로 세로 50cm 이하	1점당 50,000원	1인 3점	완성품으로 제출
서 예 문인화	전지 이하 가로 70×세로 130cm	1점당 30,000원	1인 3점	배접하지 않고 접수
민 화	100호(150cm) 미만 전지 이하	1점당 30,000원	1인 3점	배접, 액자 제작 후 접수 (유리 금지)
사 진	디지털 JPEG파일 최소 3024×2016 픽셀, 최소 600만 화소 이상	1점당 30,000원	1인 3점	작품명·성명·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 기록파일 첨부하여 메일로 접수.

2 출품자격 제한 없음

3 제출서류
-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 작품 사진 미 부착, 작품 제목, 설명 및 규격 미기재, 주소 및 연락처 미기재 등 소정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원서 제출자의 작품은 추후 심사에서 탈락되오니, 원서 및 작품설명서를 충실하게 기재해주세요.

4 원서 배부 및 작품 접수
-공모 요강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5월부터 확인.
-원서 등록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8월 1~31일 한 달간.
-접수 기간 : 9월 5일(수)~6일(목) (우편발송의 경우 6일 도착분까지)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접수 장소 : 관문사 2층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사진 부문은 ct-gongmo@daum.net으로 6일 오후 5시까지 메일 접수.

5 시상 내역

시 상	수상인원	시상내역	비고
대 상	1명	상금 2,000만원 상장 상패	종단 귀속
최우수상	2명	상금 각 500만원 상장 상패	
부문별우수상	7명(부문별 1명)	상금 각 100만원 상장 상패	
가작	7명(부문별 1명)	상금 각 50만원 상장	
장려상	14명(부문별 2명)	상금 각 30만원 상장	
특선	부문별 약간명	상장 및 상품	
입선	부문별 약간명	상장	

6 문의 천태종총무원 서울사무소 / 02-723-1559

7 심사 발표 금강신문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보

8 시상식 및 전시
시상식 일정 추후 공지
전시 - 10월 17~23일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 주관 제3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 후원 금강신문사, 천태불교중앙박물관



부산 홍법사가 6월 6일 개최한 '제28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에서 전몰장병들의 고혼을 달래는 바라춤의식이 펼쳐지고 있다.



홍법바라밀재에서 사부대중이 선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이 평화를 주제로 그린 그림을 한껏 뽐내는 모습.

'전쟁의 상흔' 어루만진 관음보살 손길

부산 홍법사, 호국영령 기리는 행사 펼쳐
호국보훈의 달, 전국서 불교의식 잇달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홍법사 잔디마당 그늘 아래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들었다. 더운 날씨에 땀을 훔치며 도화지에 그린 그림에는 무궁화와 태극기 그리고 군인 등 호국을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홍법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자 마련한 자리에는 3000여 명의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했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6월 6일 홍법사 경내에서 '제28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봉행하고 전국 청소년 호국 문화예술제인 '제8회 호국의 숨결 대회'를 개최했다.

홍법사는 매년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봉행하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유훈을 잇고 있다. 아울러 한국전쟁에 참여해 목숨을 잃은 전 세계 참전용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매년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초대하고 있다. 올해는 세계 2차 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여한 싱글러브 장군의 딸 데브라 씨가 방문했다.

싱글러브 장군은 1977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그 이유로 본국에 소환돼 강제 퇴역 당했으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아울러 6.25전쟁 때 가장 치열했던 김화지구 전투, 강원도 '철의 삼각지대' 일대에서 벌어진 미군과 중공군 간의 전투에서 대대장으로 활약했다.

데브라 씨는 "이번 달에 아버지가 97세를 맞는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 아버지를 대신해 이 자리에 방문하게 됐다"며 "대단한 영광이다. 한국의 자유와 평화에 헌신한 아버지의 뜻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는 육법공양으로 시작해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독송 후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는 묵념으로 진행됐다.

주지 심산 스님은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유지를 깊이 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전쟁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현충일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는 변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나라사랑에 대한 마음을 스스로 토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이들도 함께 새긴 '평화'

바라밀재에 이어 '제8회 호국의 숨결대회'가 시작됐다.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이 주최하는 호국의 숨결대회는 안보사상을 고취해 청소년에게 호국보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열린다. 호국을 주제로 매년 그리기와 글짓기, 서예로 기량을 뽐내는 자리로 유치부, 초·중·고 일반부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매년 늘어 부산지역 호국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주어진 시제는 △평화로운 금수강산 △행복한 우리 미래 △우리는 하나였다. 참가한 아이들은 일제히 그늘을 찾아 자리를 잡고 작품활동에 들어갔다.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 위에 무궁화를 그리고, 태극기 바로 옆에 북한 깃발을 그려 넣으며 '평화'라는 글자를 반듯하게 적었다.

한 아이는 한반도 아래에 무덤과 울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분들은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분들의 가족이라 슬퍼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한 뒤 "슬픔을 위로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고 싶어 그렸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행사를 통해 현충일의 의미와 '평화통일'에 대한 과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최윤지(부흥중1) 학생은 "한반도 남북 사이에 테이프를 그려 놓았다. 무엇이든 테이프로 붙이듯 쉽게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길 바라며 그린 통일기원 그림"이라며 "현충일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민준(구서초4) 학생은 "남과 북이 함께 키우는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며 "우리나라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니 슬프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부모들은 현충일 의미를 되새기면서 가족모임도 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스러워했다.

서경희(구서동 · 38) 씨는 "행사가 있어 오늘 아침에 미리 현충일 기념행사를 가족들과 TV로 봤다. 덕분에 순국선열들의 노력에 대해 아이들과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과 현충일 의미도 기리면서 가족모임도 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호국의 숨결대회 시상식은 오는 6월 30일 오후 2시 부산 용호동에 위치한 해군작전사령부 대강당에서 열린다.

전국 각지서 호국물결 '일렁'

한편 홍법사뿐만 아니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호국영령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행사가 펼쳐진다.

대전불교발전위원회(회장 일륜)와 사단법인 충우회 호국영웅추모사업단(회장 양길모)은 6월 22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서 '대한민국 호국영령 영산대법회'를 거행한다. 충우회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호국영웅들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불교계와도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종정 혜륜)은 24일 오전 11시 총본산 칠곡 법전사에서 '순국선열 호국전몰군경 월남참전용사 합동위령제'를 봉행한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재단이사장 혜수)은 25일 안양본원 5층 대법당에서 6.25사변 합동천도재를 봉행한다. 한마음선원은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참전 장병과 민간인 영가들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6일에는 현충일 합동천도재를 통해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충절을 추모하기도 했다.

광주 최초 비구니도량 신광사(주지 동현)는 7월 3일 대웅전에서 '제17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천도재'를 봉행한다. 신광사 회주 경주 스님은 지난해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상임회장 목종)는 22일 오전 11시 부산 UN기념공원에서 'UN군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봉행한다. 불교를 비롯해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각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해 UN군 전몰용사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호국보훈의 달 불교계 행사

6.22 호국영령 영산대법회(대전 현충원)
6.22 호국영령 합동위령제(부산 UN공원)
6.24 전몰군경 합동위령제(칠곡 법전사)
6.25 6.25사변 합동천도재(안양 한마음선원)
7. 3 호국영령 추모천도재(광주 신광사)

홍법바라밀재 28회째 열려
3천 대중 순국선열 뜻 기려
아이들도 글 · 그림으로 추모
가족단위 참여도 두드러져
"현충일의 의미 되새긴 하루"

'참선수행의 최고 안내서'이자 '수행 고백서'
원오심요 역주



'불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중국 송대의 선의 중장인 원오극근 선사가 법을 묻는 이들에게 보낸, 선의 요체를 담은 가르침!
원오극근 지음/강승욱 역주/신국판 양장/976쪽/값 45,000원

참선하여 도를 깨치는 문으로 이끄는 '깨달음의 노래'
증도가 합주



『육조단경』과 함께 선종의 '이부경전二部經典'으로 불리는
『증도가』의 대표적 주석서 4가지!
남명 법천 외 저/철우 역주/신국판 양장/496쪽/값 25,000원

번뇌를 끊는다니 말이나 되는가!
번뇌를 끊는 이야기



번뇌를 끊으려는 그 생각이 또한 번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번뇌를 끊는다고 말하고 나와야 한다.
조계후학 현웅 저/신국판 양장/520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일미 스님 특별초청 토크콘서트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란 용어가 핫이슈이다. 젊은 청춘을 위한 확실한 행복을 제시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부산 미타선원은 5월 29일 미국 예일대 교수 일미 스님을 특별 초청해 경내 법당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일미 스님은 "청춘의 시기는 가치관이 흔들리고 힘의 논리를 알게 되는 시간이다"며 "'미국 내 유명 학자 및 교수들은 행복을 위해선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그 가치를 높이며 명상을 통해 지혜를 얻어라' 고 충고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인간관계서 참된 행복을 얻는다"

주제 : 청춘들을 위한 희망 만들기

일미 스님 미국 예일대 한국학 교수



일미 스님은… 19세에 출가 후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학교 라이샤워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아리조나대 교수, 듀크대 종교학과 및 동양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예일대학교 한국학 교수이다.

세계인의 주된 관심사는 행복
인간관계의 질로 행복 결정돼
고통을 받아들이고 명상해야

행복은 모든 이의 바람

예일대에 루이 상토스라는 교수님이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예일대 학생 3분의 1인, 1천 300여명이 들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것 인가?' 가 주제였어요. 다들 행복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삶이 너무 힘드니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과 맞지 않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10년 혹은 20년에 비해 300배입니다. 현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니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요. 현실 가운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 이루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목표를 정해 이루고 성공을 해도 그 방법으로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목표를 정하고 노력을 해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지 못해 여전히 버릇처럼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죠.

기본적으로 젊은이들 80%가 행복의 중요한 요건은 돈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50%는 유능해지는 것이 행복의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이 대학생들을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 교수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 비극적인 것은 가치관에 혼돈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에 오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55%를 빼곤 외국인이 입학을 합니다. 거기에 33%는 인도, 중국, 대만, 한국 등 동남아 학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만나 혼란이 오는데 미국인 학생들은 대부분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다른 종교는 따르지 않고 살아갑니다. 절대적 가치와 진리로 삼았던 기독교 세계관이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을 만나면서 서로 부딪혀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 30명은 기독교, 30명은 힌두교, 30명은 가톨릭, 또 무신론자까지 포함해 모두 자신의 종교와 이념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현대 사회를 축소해 놓은 듯 자신의 종교가 최고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만 최고라 생각하면 그 교실에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진리가 다 맞든지 아니면 다 틀리든지 두 가지 뿐입니다. 다 맞을 순 없습니다. 모순투성이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에 의문이 생깁니다.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절대적인 진리' 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나 정치, 종교, 철학 등 많은 부문의 교수들은 힘의 논리로 이뤄진 비합리적이고 잔인한 역사와 마주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동안 미국은 100년 넘게 흑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노예로 삼았죠. 여전히 미국 내 사회에서 흑인은 차별 받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흑인인 오바마가 대통령이던 당시 한 흑인에게 물어봤습니다."흑인 대통령 이후 인종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그 흑인은 "자신의 몸을 향해 죽은 송장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백인들은 흑인을 사람으로 안 보며 짐승이라 여기고, 겉으론 받아들인 척 하지만 몇 백년 인종 편견과 힘 그리고 권력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흑인과 말싸움을 하다가 총을 쏴 죽여 버립니다. 그리곤 여전히 짐승하나를 벌한 것 정도로 취급합니다.

대학생들은 힘의 모순과 편견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다가도 힘의 논리에 맞춰 자신의 정체성을 고정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경제와 힘에 맞춘 논리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보살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거울 앞에 앉아 치장하고 꾸미셨습니까? 예쁘게 자신을 포장해 세상에 내 놓기 위해 고민을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이뤄지는 힘의 논리 앞에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대학생들 자신의 정체성이 압도적인 힘의 논리로 이뤄짐을 알고 절망스러워 합니다. 종교도 힘의 논리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슬람, 개신교, 무신론, 무속 등 여러 학생들을 모아서 수업을 하면 종교의 모순이 그대로 들어납니다. 미국 내 유명한 씨엠 암스트롱 종교 철학과 교수는 "종교에서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데 비판적으로 말해서 절대적 진리와 영원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고 사는 삶과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며 비관 속에서 사는 삶 중에 무엇이 나을까요? 사실 첫 번째가 마음이 편하고 두 번째는 불안합니다. 대학에서는 두 번째 현실, 절대적인 것은 없음을 직시하고 알고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고통 속의 삶 받아들이기

교수님은 두 번째 진실을 받아들이라며 이것이 대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삶이며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 상토스 교수를 비롯해 종교의 모순을 아는 학자들은 종교 밖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행복한 삶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종교를 떠나 모두가 이해 할 수 있는 행복에 이르는 조건을 연구하기 위해 하버드에서는 사람의 성장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립해 지금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1938년에 시작해 80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1938년 당시 2학년 가운데 246명의 학생을 선택해 피를 뽑고 심장박동수를 체크하고 주변 환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마다 그들의 삶을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19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부터 변호사, 알콜 중독으로 패가망신한 사람까지. 연구결과는 돈과 명예가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한 삶의 결과는 인간관계의 질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삶에 가장 치명적인 독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에 빠지면 뇌가 손상되고 치매에 걸리며 기억력이 감퇴됐습니다. 매일 싸우는 부부라 할지라도 함께 있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은 병에 걸려도, 아프다고 할지라도 행복해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불교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런 고민에 동참해야 할까요? 불교는 고(苦)에서 시작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힘과 권력에 의해 내 삶이 좌우됩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고민하며 나를 만들어 가는 삶에서, 우리는 정말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나는 삶이란 것을 받아들이고 알아야 합니다.

루이 상토스 교수도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도 결론적으로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라고 충고합니다. 인간관계를 위해 전화나 인터넷 말고 사람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고로 명상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교수 가운데 죠셉 오셉튼은 "마음이 괴로운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에 "일단 앉아서 5분 만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힘과 논리에 지배 받아온 마음은 버릇이 돼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날뜁니다.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보고 틀린 가치관에서 벗어나 자유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질과 명상, 이 두 가지가 미국의 유명 교수 및 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자비로움으로 주변인을 행복하게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주변 다섯 명을 꼽아 공통분모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다섯 명의 삶의 질은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변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다 떠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종착역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사실을, 죽음이 있는 삶의 고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상할 때, 가까운 사람을 비롯해 만나는 모든 이가 나처럼 어려움을 겪는 존재임을 알고 마음 속 깊이 자비심이 생깁니다. 근원적인 이해는 자비심의 바탕이 됩니다. 자신이 언제든 죽음으로 떠날 수 있음을 알고 상대를 보는 사람은 이 순간의 중요성을 압니다.

지금 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미국 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가 최고라고 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진리를 말하지만 통합해서 크게 보면, 인간의 삶은 고통과 불만족 속에 죽음이 정해진 인생에 불과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자비심은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 시바신, 하나님이란 절대 존재는 인류가 고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유한한 삶을 해결하고자 만들어 낸 도구에 불과합니다.

있는 그대로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간관계의 질을 높여야 행복의 열쇠를 쥐게 됩니다. 주변인들과 행복한 삶을 꾸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길러온 수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는 화를 내거나 다시는 안 본다며 무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방법을 알아차리고 하나씩 제거 하며 좋은 방법을 길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후원계좌 : 국민은행 (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법주사 대회

- **일 시** 불기2562년 6월 25일(월) ~ 6월 28일(목)
-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 **주 제** 『청소년 인격형성에 있어서의 사찰의 역할』
- **주요일정** 6월 25일 18시 환영만찬 - 청주 그랜드플라자 호텔 3층 그랜드볼룸
  6월 26일 10시 세계평화기원법회 - 법주사 대웅보전
  13시 학술세미나 - 법주사 설법전
  6월 27일 부여 백제문화단지 탐방
- **협의회사무국** 02-720-1708, 725-3677

-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

회 장 대한불교조계종 설정
부 회 장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대한불교천태종 문덕
대한불교진각종 회성
대한불교관음종 홍파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이 사 장 대한불교관음종 홍파
부이사장 대한불교보문종 인구
사무총장 (재)대한불교원효종 향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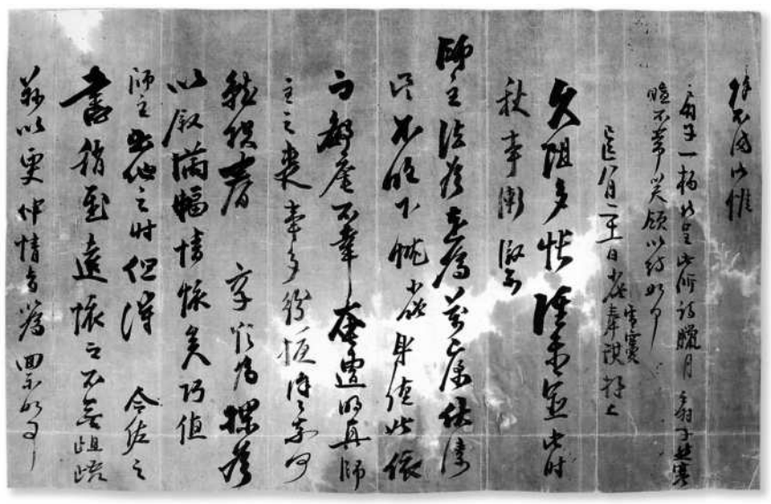
논쟁 라이벌에게 존경 담아 쓰다



박동춘의

초의 스님 前 上書

⑪ 설두 봉기가 보낸 편지





설두 봉기가 1845년 8월 21일 초의 스님에게 보낸 편지〈사진 왼쪽〉와 1869년 2월 16일 준 대사에게 보낸 편지〈사진 오른쪽〉. 설두 봉기는 초의와 선리 논쟁을 벌였던 백파의 제자로 논쟁 당시 백파를 옹호했다. 논쟁 라이벌이었지만, 논쟁 후에는 존경의 마음을 담은 정중한 언사의 편지를 보내 초의의 안부를 물을 정도로 높은 인격을 보여줬다.

조선 후기 승려 설두 봉기(雪竇奉琪, 1824~1889)는 백파 긍선(白坡亘璇, 1767~1852)의 제자이다. 초의와 백파의 선리 논쟁에 참여하여 〈선원소류(禪源遡流)〉를 지었으니 이는 스승 백파의 〈선문수경〉을 비판한 초의와 홍기 등의 주장을 반박하고 백파의 선리를 옹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초의의 선리 입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그가 초의에게 정중한 문안 편지와 부채를 보냈던 정황은 1845년 8월 21일에 쓴 편지에서 드러난다.

그의 편지 규모를 살펴보니 편지의 크기는 25.1×39.5cm로 행서체로 썼고 진한 먹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편지의 피봉은 망실된 채 편지만이 전해진다. 특히 편지의 보관을 위해 편지에 기름을 도포했던 흔적과 제법 두꺼운 재질의 한지를 사용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뿐 아니라 초의에게 부채를 보내면서 부채를 납월선자(臘月扇子)라 칭한 점이 이채롭다. 아마 그의 뜻은 무더운 여름을 지낼 초의를 위해 납월(12월)의 차디찬 바람을 선사할 부채를 보내려는 그의 성의가 담뿍 담긴 선물이리라. 비록 치열한 논쟁을 개진했던 사이일지라도 논쟁은 논쟁으로 끝내고 서로를 아끼는 성의가 다한다는 점이다.

수행의 넉넉함을 보인 설두! 과연 그는 어떤 수행자였던 것일까. 그의 생애를 살펴보자. 우선 설두는 그의 자(字)이다. 초명(初名)은 봉기(奉琪), 유형(有炯)은 그의 호이다. 전라도 옥과현(玉果縣, 현 전남 곡성) 출신으로, 유년기에 서숙(書塾)에서 유가서(儒家書)를 섭렵했고, 19살 되던 해에 백암산 지장암(地藏庵)에서 쾌일(快逸)을 은사로 득도하였다. 도암(道巖)을 계사로 삼았고 조계산 한성 강백(翰醒講伯)에게 〈화엄경〉을 배웠다. 한성에게 구족계를 받은 뒤 여러 대덕을 찾아 교학을 문답하였다. 이후 백파에게 나아가 〈화엄경〉을 배웠다. 28세에 백파의 강석(講席)을 이어받아 화엄강주가 되어 20여 년 동안 학인을 가르쳤다고 한다.

1870년에 그가 퇴락하여 빈터로 남아있던 불갑사(佛岬寺)로 자리를 옮겨, 불갑사를 중창하였다. 그가 양주 천마산에서 〈선문염송(禪門拈頌)〉강회를 베풀었는데 〈선원소류〉와 〈염송회편(拈頌會編)〉은 이곳에서 저술했다. 그 해가 1889년경이다. 이 해 구암사로 돌아와 입적했다.

그의 제자로는 처명(處明, 1858~1903), 호정(鎬政), 만익(萬益) 등이 있으며 서관(瑞寬), 태선(太先)과 함께 화엄의 삼대 강백으로 손꼽힌다. 〈선원소류〉와 〈설두시집〉은 그가 남긴 저술들이다. 따라서 그는 백파의 선리를 이었고 화엄학의 근기를 이어 받았던 조선 후기 대표적인 승려이었던 셈이다.

그런 그가 백파의 선의 입장을 옹호하고 초의를 비판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선리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그와 초의가 지속적인 인연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음은 바로 그의 편지에서 알 수 있는데, 그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져 슬픔이 큽니다. 이 때에 삼가 살피지 못했습니다만 가을 일이 점차 긴박해져갑니다. 사주의 문후는 연일 만강하신지요. 향하는 마음이 구구하여 마음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 소승은 겨우 의지하고 있습니다만 가난한 암자에는 불행하게도 갑자기 명진사주(明眞師主)의 상을 입어 일이 많고 분주합니다. 민망함을 어찌합니까. 봄 제사에 나아가 문후를 살피고자하여 이로서 편지에 가득 정회(情懷)를 늘어놓습니다. 공교롭게 사주께서 다른 곳에 출타하게 되시면 다만 시자의 편지를 얻어도 조금이나마 멀리 있는 사람의 정회에 위안이 될 것이니 기대에 어긋나지는 않겠지요. 여기에 다시 정의(情意)를 말씀드리니 회답하여 주심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1845년 8월 21일 소승 설두 봉기 배상

부채 하나를 삼가 올리니 이는 납월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날씨가 고루지 않습니다. 웃으며 받기를 기다리니 어떨지요.

久阻多 懽未審此時秋事漸緊 師主法候 連爲萬康 伏儻區區 不任下ㄴ刁僧 身僅姑依 而鄙庵不幸奄遭明眞師主之喪 事多紛擾 悶悶 奈何 就控春享欲爲探候 以 Ø滿幅情懷矣 巧値師主出他之時 但得令佐之書 稍慰遠懷 而不無齟齬 玆以更伸情旨 以爲回示 如何 餘不備 伏惟

己巳 八月 二十一日 小僧 雪竇 奉琪 拜上

扇子一柄伏呈 此所謂臘月扇子 然寒暄不常 笑領以待 如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편지는 1845년에 초의에게 보낸 설두의 편지 내용이다. 이 무렵 설두가 지장암에서 쾌일을 은사로 출가한 이듬해 즈음일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므로 1845년 초의에게 보낸 편지는 설두가 지장암 쾌일의 문하에 있을 때 보낸 셈이다. 특히 백파는 편양 언기의 문손이므로 설두 또한 편양 문손이다. 따라서 초의와 백파, 그리고 설두 또한 모두 편양의 문손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내왕은 그리 낯선 일은 아닌 것이다. 특히 설두가 초의를 사주(師主)라고 표현한 점에서도 이런 문파의 인연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아무튼 그가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져 슬픔이 큽니다"라고 한 점이나 "삼가 살피지 못했습니다만 가을 일이 점차 긴박해져갑니다"라고 한 말에서도 이들의 교류 관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한편 그가 "가을일이 점차 긴박해져갑니다"라고 한 내용이 무슨 일인지를 알 수 없다. 다만 "가난한 암자에는 불행하게도 갑자기 명진사주(明眞師主)의 상을 입어 일이 많고 분주합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그가 긴박하다고 말한 전후의 내용을 추정할 뿐이다.

한편, 이 무렵 지장암의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웠음도 드러난다. 조선 후기 사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등촉계(燈燭契), 창호계(窓戶契) 등을 구성하여 보사(補寺)하였다. 경제적으로나 하위의 신분으로 전락했던 승려들이 사찰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적인 성격의 보사 제도는 불심이 충만했던 시대의 소산일지도 모른다.

다시 그의 편지를 살펴보니 초의에게 편지를 보낸 연유를 "봄 제사에 나아가 문후를 살피고자 하여 이로서 편지에 가득 정회(情懷)를 늘어놓습니다"라고 하였다. 그가 언급한 봄 제사는 임진왜란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서산 휴정(西山休靜)과 사명당 유정(泗溟堂惟政), 뇌묵당 처영(雷默堂處英)의 충의를 추모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다.

조선 후기에도 표충사에서 거행되는 제사, 즉 춘향(春享)와 추향(秋享)은 대흥사에서 거행된 중요한 제사의 하나이다. 정조 12년(1788)에 서산과 사명당, 뇌묵당을 기리는 사당이 건립되었다고 하는데 표충사는 임금의 친필이 하사된 사액사당이다. 그런데 그가 봄 제사를 참여하려고 하며 이때 초의를 뵙고자한 것이다. 그의 간절한 바람이 성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정중한 언사로 초의의 안위를 걱정했던 설두의 온화함이 행간마다 묻어난다.

또 다른 설두의 편지를 살펴보자. 이는 1869년에 준 대사에게 보낸 안부 편지이다. 그러나 준 대사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편지는 1869년경 설두의 근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편지의 크기는 23.4×39.5cm이며 피봉도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이다. 그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작년 가을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는데, 소식이 없음을 책망하는 줄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요. 산과 물이 높고 넓어서 소식을 전하기 어렵다는 정황은 사실일 듯합니다. 그러나 환하게 등잔의 심지를 돋우면 중앙이 밝으니 이것을 어찌 산수가 막고 끊을 수 있겠습니까. 소식을 듣지 못한 채 해가 바뀌었고, 달은 또 북두(北斗)의 자루가 인시(寅時)에서 묘시(卯時)로 돌아갔습니다. 묘시에는 모든 맛이 달고 뿌리와 줄기도 다 달게 되는 경지에 이릅니다. 은로(恩老)의 문후는 한결같이 청후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그리운 마음이 지극하고 간절함을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門末) 정신과 힘이 날로 더 떨어져서 마음공부는 초심의 약속을 저버렸으니 스스로 민망해짐을 어찌해야합니까. 다만 제가 맡은 일을 잡고 있을 뿐입니다. 귀 산문의 여러분들이 매우 저를 기다리시니 제가 부덕하여 실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또한 자산을 탕패하고도 남음이 있으니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거늘, 이런 말을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대는 응당 알아야할 것입니다. 향(香) 한 봉지와 두루마리 종이 한 축을 보냅니다. 향은 즉 삼가 은사에게 올리는 것이고 다른 물건은 변변치는 못한 것이지만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머지는 입을 떼지 않겠습니다. 예의를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1869년 2월 16일 문말 봉기 재배하고 올립니다.

昨秋有書無答 非不知責其無信 山水高ㅇㄷ魚 ㅿ難通 勢實然矣 而炓炓一炷 不味于中 此豈山水之所能隔絶哉 未審信後歲改 月又斗柄 自寅旋卯 卯俱做味 啖到根 ㅿ思慮之地 恩老法候 一向淸淳 倂仰傃不任至切 門末 精力日益層落 心工浪負初心 自悶奈何 第控鼈之主管任事 貴山僉尊 待余之深 而余以不德 實ㅿ其位 又資産蕩敗之餘 難堪其事 則此言向誰言之 君應知之矣 香一封 周紙一軠送送似 香則謹呈于恩老座下焉 物惟菲薄 出於情感耳 餘在去口 不宣狀禮

己巳 二月 十六日 門末 奉琪 拜

설두의 편지에 "소식을 듣지 못한 채 해가 바뀌었고, 달은 또 북두의 자루가 인시에서 묘시로 돌아갔습니다. 묘시에는 모든 맛이 달고 뿌리와 줄기도 다 달게 되는 경지에 이릅니다"라 하였다. 인시는 오전 3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이며, 묘시는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새벽에 일어나 참선의 일경에 들었던 그는 모든 맛이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벽 참선의 묘미를 맛본 걸일까. 아무튼 늙어가는 설두를 준 대사 문중에서 부른 듯, 하지만 그는 "제가 부덕하여 실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라고 하였다. 준 대사에게 "향 한 봉지와 두루마리 종이 한 축을 보냅니다. 향은 즉 삼가 은사에게 올리는 것이고 다른 물건은 변변치는 못한 것이지만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수행자들이 봉물(奉物)은 향과 종이가 주류였던 것이다. 마음에서 우러나 보낸 선물, 즉 준 대사에게 보낸 향과 종이는 승가의 요긴한 물품이다. 그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나 준 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느껴지는 정회(情懷)는 겸손과 온화함이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오직 선택받은 스님께만 행운이 돌아갑니다... 지금 바로 예약 하십시오!!

법당의 구형 음향설비를 「300만원대」의 최고급 엠프 설비로 160만원에 보시!!

(제공 : 800W(USB)엠프+450W 스피커2개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사용중인 엠프 스피커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 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법당 엠프설치비 가격표

•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헤드셋 1조)
C형 : 158만원 (B형 + CD 1대)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이스)
•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800W 믹싱포함 일절)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고급헤드셋 포함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초고성능 마이크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계·정·혜 三學 간직한 아라한의 세계



노재학의
한국 산사의 장엄세계

⑪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대광보전 내부 상벽에 봉안한 나한벽화.

불모의 숲, 남방화소 마곡사

그림 그리는 화승(畵僧)들을 전문적으로 기르고 배출하는 사찰을 '화소사찰(畵所寺刹)'이라 부른다. 화소사찰은 불교 조형미술 예술가들인 불모(佛母)를 길러내고 화맥의 전통을 형성하는 저수지로 역할 했다.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화소가 경산화소, 북방화소, 남방화소다. 경산화소는 서울경기지역 화소로 남양주 흥국사가 중심이었고, 북방화소는 금강산 일대로 유점사가 중심에 있었다. 남방화소는 공주 계룡산을 권역으로 해서 '계룡산 화파'로도 불리웠는데, 태화산 마곡사가 중심이었다. 남방화소는 19세기 말 금호당 약효스님으로부터 근대의 보응당 문성, 금용당 일섭을 거쳐 현대의 석정스님에 이르는 불모의 계보로 이어져 조선불화사의 큰 맥을 이어왔다. 약효스님을 비롯해서 근현대 불모 6명의 업적을 기린 '불모비림'이 조성되어 있는 유일한 곳도 남방화소의 본거지인 마곡사다. 조선말 "마곡사에 상주한 스님이 300여명에 이를 무렵 불화를 배우는 스님만도 80여명에 이르렀다"는 호은당 정연스님 불모비의 기록에서 마곡사 남방화소의 위상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 보인다. 조선불화사의 흐름에서 마곡사의 위상을 반영하듯 영산전, 대광보전, 대웅보전, 응진전 등 여러 불전에 고색창연한 불화, 벽화, 단청장엄 등이 전해진다. 한 사찰에 이만큼 다양한 고전의 빛을 간직하고 있는 사찰은 양산 통도사, 순천 선암사, 구례 화엄사 등 몇 몇에 지나지 않는다.

마곡사는 해남 대흥사처럼 북원, 남원 영역으로 나뉜다. 남원은 수행공간이고, 북원은 예경영역으로 배치한다. 대광보전은 마곡사 북원 영역의 중심 금당이다. 법당 내부에 걸려 있는 〈마곡사대광보전중창기〉에 의하면, 1782년 큰 화재로 소실된 후 1785년에 중건을 시작해서 1788년 완공한 건물이다. 남향한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로서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셨다. 대체로 불상은 건물 정면이 향하는 방향으로 봉안한다. 하지만 남향인 대광보전에선 주불인 비로자나불을 서쪽에 모셔서 동쪽을 바라보는 동향으로 봉안했다. 건물 진입동선과 예배동선이 직교하는 구조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영광 불갑사 대웅전 등에서 나타나는 형식이다.

나한과 고사인물, 수묵산수의 벽화

내부공간의 사방벽면은 벽화의 세계다. 가로로 긴 건물에 내부 열주가 세워져 있고, 사방벽면에 벽화와 불화 등이 가득하다. 대광보전 자체가 불화 갤러리이자, 박물관 분위기를 연출한다. 별지화를 비롯한 벽화의 장엄 소재들은 나한과 고사인물, 화조, 용, 금강역사, 백의수월관음 등이다. 벽화장엄에서 특히 나한도와 도교 신선도, 화조도와 산수도의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광보전 내부의 위치별 장엄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내부 내목도리 위 상벽: 나한도 34점(남:13점, 동:5점, 북:12점, 서:4점),
② 창방 아래 내부벽면: 북서벽면-도교 신선도 6점, 동쪽 벽면-2점(한산습득도와 나반존자도),
③ 내부 공포사이 포벽: 수묵 산수화 35점,
④ 내부 남쪽 창방 별지화: 화조도 5점,
⑤ 내부 후불벽 뒷면: 백의수월관음도 1점,
⑥ 대들보와 충량: 용 6점.

위의 분류를 통해 대광명전 내부장엄의 중심소재가 나한과 고사인물, 화조 및 수묵산수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회화 능력을 갖춘 남방화소의 특성을 일정하게 보여준다. 특히 가로, 세로 1m가 넘는 비교적 큰 화면에 34점의 나한도를 사방벽면에 조영한 점이 눈길을 끈다. 한국 전통사찰의 장엄을 살펴보면 대웅전, 극락전, 대광명전 등의 중심 법당에 나한이나 고승대덕의 전법활동을 담은 벽화들이 광범위고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법당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진리 법의 집인데 어째서 나한신앙이 함께 봉안되고 있는 것일까? 나한을 독립 공간으로 모신 나한전이나 응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웅전 등 중심 불전의 상벽이나 포벽 등에 어김없이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나한과 고승대덕들이 석가모니 멸도 이후 현재의 말법시대에 부처님의 진리 법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한은 진리 법을 수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법화경』 등의 대승경전에서는 미래의 부처로 수기 받아 중생구제를 수행하는 대승보살의 역할도 겸한다. 법당의 구조를 보면 불상을 중심으로 제자들과 나한들이 빙 둘러 시립해 있는 구조다. 그 배치구조는 불화의 구도와 똑같다. 법당의 장엄구조를 회화로 담으면 영산회상도와 같은 불화의 장면이 된다. 설법의 장면이면서 정토의 장면이고, 진리 법으로 충만한 법계우주의 장면이다. 법을 간직한 아라한이기 때문에 법계의 법당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다.

나한벽화는 불교의 모든 것인 계율과 선정, 지혜의 삼학(三學) 겸비한 나한을 신앙대상으로 봉안한 불교장엄예술이다


마곡사 대광보전 전경.

나한, 승보신앙의 소의경전, 『법주기』

나한신앙의 소의경전은 『대아라한 난제밀다라 소설 법주기(大阿羅漢難提蜜多羅所說法住記)』이다. 부처님 입멸 후 법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난제밀다라 나한이 쓴 미래의 기록이다. 줄여서 『법주기』라 부른다. 당나라 현장법사가 645년에 역경 했다. 『법주기』에 의하면 십육나한은 부처님으로부터 열반에 들지 말고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불법을 지키며 신통력으로써 중생을 구제하라는 부촉을 받았다. 16나한이 어떤 분들인지 가슴 뭉클한 장면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장면을 알기 쉽게 풀어 쓰면 감동 깊은 한 편의 드라마다.

이와 같이 하여 인간들이 사는 남섬부주(南贍部洲) 사람들의 수명이 6만 세가 될 때에는 위없는 정법이 세간에 유행하고, 7만 세가 되어도 정법이 널리 퍼진다. 그 때에 16나한은 모든 권속들과 함께 남섬부주에 모두 모여 신통력으로 온갖 칠보로 장식한 탑인 '솔도파(率堵婆)'를 허공에 만든다(*솔도파는 탑을 의미하는 범어 '스투파(Stupa)'의 음사일 것이다). 석가모니 · 여래 · 응공의 모든 유골을 다 이 '솔도파' 안에 봉안한다. 그 때 16나한은 모든 권속들과 함께 이 솔도파를 수백 수천 번 돌면서 온갖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예경을 올린다. 그런 후 모두 허공으로 올라가 이 솔도파를 향해 거룩하게 말한다.

"석가모니 · 여래 · 응공께 공경히 예를 올립니다. 저희들은 과거에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정법을 지니고 천상과 인간을 위해 온갖 요익한 일을 다 했습니다. 인연이 있는 중생은 다 구제하여 오늘에 이르니 지금 하직하고 멸도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모두 열반(涅盤)에 든다. 신통력으로 스스로 불이 일어나 다비를 치른다. 솔도파는 곧 땅 속으로 빠져 들어가 불멸의 세계 금강제(金剛際)에 봉안된다. 그리하여 세존 석가모니의 위없는 정법은 이 삼천대천세계에서 영원히 멸해 나타나지 않고, 마침내 미륵불께서 세간에 출현하신다.

한 편의 영화 같은 16나한들의 거룩한 서사다. 석가모니의 부촉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중생 곁을 떠나는 16나한의 멸도 장면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준다. 마치 붉은 꽃을 피우고 송이 째 무심히 지는 동백꽃을 보는 듯이 애틋하고 가슴 찡하다. 열반을 목전에 두고도 석가모니불을 경배할 보탑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장면이 참으로 숙연하고 극적이다.

유가의 신독과 검소함, 나한과 상통

그런데 한국 전통사찰의 법당장엄에서 불교 나한의 장엄은 마곡사 대광보전에서처럼 도교의 선인들과 결합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하다. 불교의 나한과 도교의 팔선들이 경계 없이 뒤섞여 나타난다. 도석인물(道釋人物)의 열전처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유가의 문인화풍 산수화와 결합한다. 유유자적과 소요의 자연산수, 예악의 기물들, 두루마리 경전 등이 나한과 함께 두루 섞여 기묘하게 나타난다. 조선의 유교사회에서 재해석한 불교장엄의 독특한 훈습, 곧 유불선의 통합 형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중국 명나라 말기인 1602년, 1607년에 각기 편찬한 『홍씨선불기종(洪氏仙佛奇踪)』과 『삼재도회(三才圖會)』의 두 화보수록 해설집도 사찰장엄에 나한도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장엄소재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두 책은 불교와 도교의 다양한 선인들을 묘사한 도석인물화를 수록하고 있다.

유학자들의 당대의 선지식인 선승과의 깊은 교류 역시 고승대덕에 대한 폭넓은 수용 및 재발견을 견인하게 된다. 유가의 내면세계인 신독(愼獨)이나 윤리의식 등은 선승의 수행과 무소유, 계율 등과 서로 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검소하고 담담한 생활 태도나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내면 수양의 태도는 서로가 공감하고 일치하는 덕목이었다. 그런 시대 흐름과 공통의 추구는 조선후기 법당장엄에서 나한의 인물상들을 보편적인 장엄소재로 등장시켰고,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마곡사 대광보전의 도석인물화 장엄세계는 그 흐름을 표현한 전형에 가깝다. 분명한 것은 흐름을 수용하되 불교장엄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했다는 점이다. 즉 조선후기 불화 속 제자와 나한들의 배치처럼 주불로 모신 불상의 주변을 시립하듯 에워싸고 있다. 나한은 단순히 도가의 팔선처럼 신비주의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불교의 모든 것인 계율(戒律)과 선정(禪定), 지혜(智慧)의 삼학(三學)을 겸비한 법계의 신앙대상으로 봉안한 장엄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나한은 법의 연속성이자, 지금 현재의 엄연한 법의 담지자이고, 미래의 부처로 수기되신 분들이기 때문이다.

〈사진작가〉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극락왕생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잘 사고 잘 팔려면 여실지견해야 한다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⑪ 욕망과 수익의 상관관계

요즘 저금리로 인해 은행에 정기예금에 가입해도 세금을 제외하면 겨우 1%를 넘는다. 은행 예금이 인기가 없자 여유 자금이 넉넉한 사람은 수익성 부동산에 눈을 돌리지만 건물의 수익률은 3%에서 5%정도라고 한다. 연 10%의 수익률이란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다. 어떤 유능한 펀드매니저가 '제가 모의 주식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40%를 넘거든요. 1등으로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 돈을 가지고 투자하면 수익률이 뚝 떨어져요.'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다. 펀드매니저는 누구보다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전문지식도 돈을 버는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 셈이다.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성으로 접근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이다. 케인즈는 여러 가지로 천재적이며 약간 괴짜적인 측면도 있는 학자였다.

케인즈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아침식사를 했다. 식사를 하며 신문을 보면서 어느 주식이 좋을까 판단했는데 판단의 기준은 뜻밖에도 전문지식이 아니었다. 케인즈는 '주식투자란 미인대회와 같다. 내가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인으로 선출 되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인으로 선출된다.' 고 말했다. 참으로 맞는 말이다. 내가 '이 주식 정말 좋은데…' 라고 선택해봐야 남들이 그 주식을 사지 않으면 그 주식은 오르지 않는다. 내가 생각할 때 별 볼일 없는 주식이어도 대중이 좋다고 생각하면 오른다.

케인즈는 남이 무슨 주식을 더 좋아할까를 신문을 보며 판단했고 그는 이런 일을 '두뇌 체조' 라고 불렀지만 주식에 대한 전문지식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 누가 어떤 주식을 더 좋아할까 알아내기 위해 신문 기사를 읽었던 것이다.

모의 주식 투자를 하면 40% 수익까지 올리는데 왜 자기가 직접 주식에 투자할 때는 성공하지 못할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한다. 모의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치우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던 전문가가 자신의 이익이 관련되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욕심이 발동한다. 이익을 더 내고 싶을 때 장밋빛 꿈을 꾸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순간이다. 장밋빛 꿈을 꿀 때는 장밋빛 자료만 보이고 다른 자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의사결정 오류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오류의 원인은 많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무언가에 유혹되거나 영향 받아 판단을 그르치는 것이다.

나는 불교에 처음 입문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깨달은 사람은 어떤 징표가 있을까였다.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자칭 깨달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도인들이 많다. 그중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어떻게 알까? 도법 스님이 "깨달았다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더 못된 짓을 하니 깨달았다는게 무슨 소용이냐?"고 일갈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더 깨달은 사람을 판별하는 법이라도 있을까 싶었다. 불교 공부를 하며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다보니 드디어 징표에 대해 쓰여 있는 구절을 발견했다.

깨달음의 징표에 관한 글을 읽고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 깨달음의 징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의 징표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여실지견의 능력이다. 예를 들어 〈돈오입도요문론〉에도 깨달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장밋빛 꿈을 꿀 때도 장밋빛 자료만 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 구절에 나는 다시 한 번 감탄했다. 깨닫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케인즈 사람의 심리 강조
부처님 가르침과 일견 통해
투자 성공의 비결은 평정심

구절이다. 우리가 장밋빛 자료를 너무 사랑하면 장밋빛 꿈에 꼴딱 넘어간다. 자기가 처한 빈곤 상황을 너무 미워하다보면 장밋빛 꿈에 또 넘어간다. 남의 돈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요동치지 않는데 자기 돈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면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사이에서 오락가락한다.

불자에게 깨달음이란 궁극의 목표이며 모두의 공통된 서원이다. 우리는 과연 어느 시절에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달음이란 사실 영원히 불가능하며 우리는 깨닫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 아닐까? 깨달음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면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도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러나 깨달음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깨달음의 길에 첫 걸음을 내 딛으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 첫 걸음을 내 딛으면 이미 절반은 간 것이라는 초발심의 위력도 있지 않은가? 물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생긴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모든 의사결정을 완벽하게 오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기의 세계에서는 수많은 인과 연이 화합하여 결과를 이룰 뿐이지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없다. 여실지견의 능력도 하나의 원인일 뿐이다. 그러나 여실지견의 역량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의사결정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다.

어떤 사업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버셨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잘 사고 잘 팔았지요' 라고 말했다. 너무 싱거운 대답이 되고 말았지만 정말 잘 사고 잘 팔기만 해도 큰 돈 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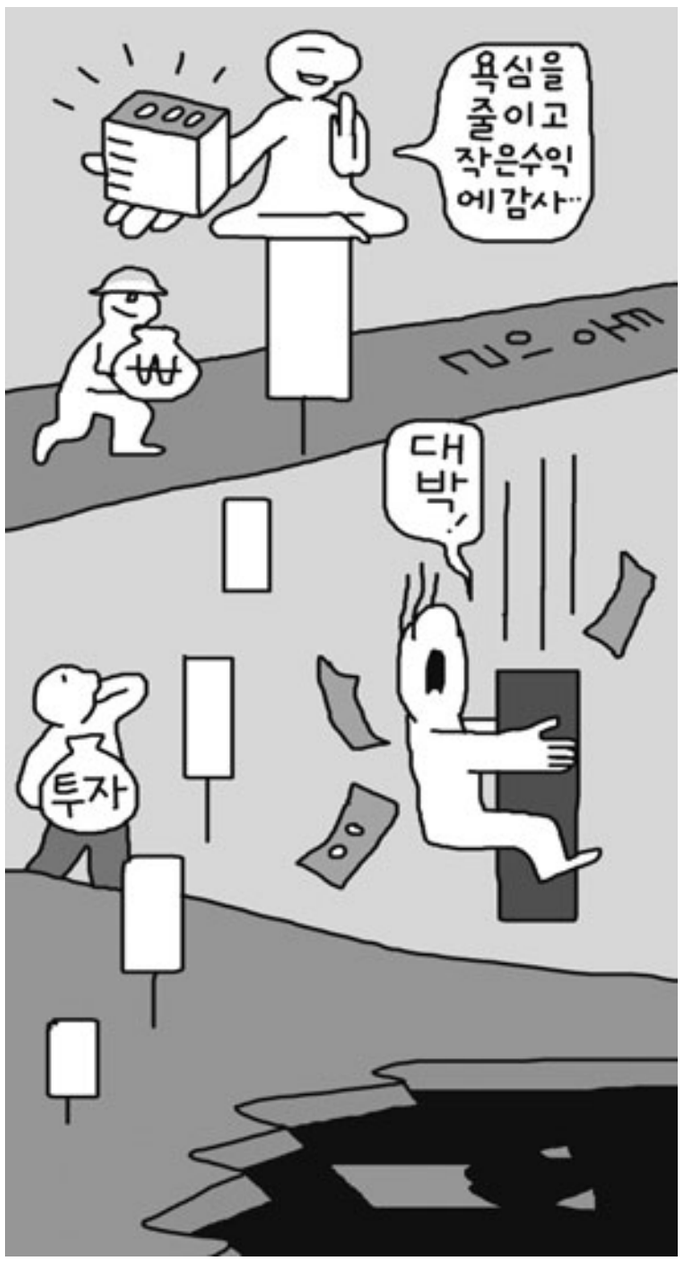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투자하면 우리는 뭘 연상할까?

봉급쟁이가 할 수 있는 투자라곤 부동산과 주식이 가장 대표적이다. 부동산과 주식을 언제 살 것인지 언제 팔 것인지만 알아도 돈을 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사고 잘 팔 수 있을까?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별역잡아함경〉은 "처음에는 먼저 기술을 배워라, 그 다음으로는 재물을 구하고,…" 라고 설한다. 부처님은 기술을 배우고 익힐 것을 수없이 강조했다. 얼핏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2600년 전에 돈을 벌기 위해선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통찰이다.

주식도 마찬가지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은 은행 이자율보다 높지만 조사에 의하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개인 투자자는 많지 않다. 주식 시장은 개미라고 부르는 개인 투자자,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의 세 종류의 세력이 있다. 개인 투자자인 개미의 수익률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에 비해 형편 없다. 그들이 전문지식이 훨씬 높고 그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전에 투자 정보를 얻어 내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여의도 증권가의 어떤 주식 고수는 절대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권했다. 보통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으며 은행의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기는 정말 어렵다고 했다.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아니면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대형주가 아니면 이른바 큰 손이 주가 조작 등으로 장난을 치는데 잘못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거다. 삼성전자는 워낙 주식숫자가 많고 주당 가격이 300만원에 육박하기에 아무리 큰 손이라고 해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는 개별 주식으로 보통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 적극 말리고 싶다고 했다.

그렇다면 펀드매니저에게 맡기면 어떨까? 그들은 전문가이니 보통 사람이 직접 개별 주식을 고르지 않고 펀드매니저에게 위임하면 되지 않을까? 펀드는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주식에만 투자하는 펀드도 있다. 개별주식이 위험하다면 펀드매니저가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가 나을 수 있다. 은행에 가면 고수익 펀드를 보여주고 가입하라고 하는데 언제나 수익률이 높은 펀드는 항상 있다. 지금까지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펀드에 가입하면 앞으로도 계속 좋을까? 지금까지 수익률이 좋은 펀드에 가입해서 항상 높은 수익을 올린다면 누가 돈을 못 벌겠는가? 펀드도 부침이 있기에 수익이 좋던 펀드가 형편 없어지기도 하고 형편 없던 펀드가 날기도 한다. 투자하려고 할 때 보여주는 펀드는 지금까지 잘 해온 펀드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펀드다.

골치가 아플 때 선택하기 아주 편한 펀드가 있다. 인덱스 펀드라는 것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주식을 조금씩 사서 만든 펀드이다. 큰 회사 주식은 많이 사고 작은 회사 주식은 조금 사서 주식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주식을 규모 비율로 사는 펀드이다. 어떤 주식을 살 것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모든 주식을 골고루 사는 말하자면 아주 멍청한 펀드다.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펀드의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만 못하다. 전문성이 있다고 으시대는 펀드매니저들이 가장 멍청한 펀드인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도 올리지 못하다니 문제 아닌가? 오직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은 펀드매니저에게 돈 맡기지 말고 차라리 인덱스 펀드가 더 낫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워런 버핏이 월스트리트의 펀드매니저들이 엉터리라고 공격하자 펀드매니저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급기야 펀드매니저들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돈내기를 하자고 했다. 워런 버핏이 좋다고 응했고 결국 내기를 하게 되었다. 대개 이런 식의 논쟁이 '내기 할까?' 라는 말로 끝나게 되더라도 실제로 내기를 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 경우는 실제 내기로 이어졌다. 10년간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과 월스트리트에 개설된 펀드의 평균수익률을 비교하여 승패를 결정 짓기로 했다. 2017년에 드디어 내기의 10년이 되었는데 워런 버핏이 승리했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우리는 항상 제한된 전문지식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 누구나 집을 사거나 전세로 임대를 한다. 전세금도 없으면 월세를 낸다. 구매, 전세, 월세라는 대안을 놓고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투자행위이다. 우리가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건 없건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힘들게 저축하여 작은 목돈이 생겼다고 하자.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개별주식을 살 수도 있고 인덱스 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다. 정기예금, 개별주식, 인덱스 펀드라는 대안을 놓고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도 투자행위이다. 우리는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건 없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주어진 전문지식의 한도 내에서 가장 의사결정을 잘하려면 여실지견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요동치지 않고 담담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다. 불자라면 부지런히 정진하자.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임 | 원

대 승 정 : 성광당 경보 대종사

원로원장 : 무명당 월곡 종회의장 : 대진당 혜월 승가원장 : 고암당 정인

▶각교구원장◀

서울교구 : 법룡 부산교구 : 무비 대구교구 : 지광 인천교구 : 혜초 대전교구 : 정수
창원교구 : 정우 경기교구 : 연봉 충북교구 : 심공 충남교구 : 능원 전북교구 : 진원
경북1교구 : 서암 경북2교구 : 대현 경남교구 : 혜묵

■ 문의 : 입종문의 안내(입종 구비서류 및 발급 증명서)
☎ 053)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제8회 반야학술상 공모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제 8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 우수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야학술상은
매년 저술상과 논문상 두 분야를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연구자들의 많은 추천과 응모 바랍니다.

저술상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출간된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창의적인 저서 및 역서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저자 1명에게 500만원 지원

논문상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국내외 불교학, 종교학 및 철학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불교학 및 불교문화 우수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저자 1명에게 500만원 지원

■ 추천 및 응모 마감 : 2018년 7월 15일 (우체국 소인 확인된 것까지)
■ 추천 및 응모방법은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banyaresearch.org)를 참조바람.
■ 시상일 및 장소 : 추후 공지
■ 문의처 : (사) 반야불교문화연구원 구자상 (010 · 4731 · 3471)
우명주 (010 · 9027 · 5193)

(사)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수보리에게 들려준 자유로운 길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⑳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金剛經〉은 불교서적 중에서 영원한 베스트셀러다. 삼국시대에 전래되어 고려중기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초심자들이 공부하는 경전으로 독송을 권한 이래로 조계종의 소의경전이 된 지금까지 모든 스님들과 신자들의 사랑을 받는 경전이다.

Vajra-cchedika-prajna-paramita-Sutra(바즈라 체디까 쁘라즈나 파라미타 수트라)는 구마라즙, 보리유지, 진제에 의해 〈금강반야바라밀경〉으로 한글대장경 제 243책 pp113~167에, 현장과 의정에 의해 번역된 〈능단금강반야바라밀경〉은 제 206책 pp450~488에 실려 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 '반야'는 지혜, '바라밀'은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는, '경'은 가르침이니,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하고 날카롭고 빛나는 지혜로써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다.

이 경의 가장 큰 뜻은 파이집 현삼공(破二執 現三空)이다. 나에게 집착하는 아집과 나 외의 모든 것에 집착하는 법집,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집착들을 깡그리 부수어 버리고 나면 그 즉시 나도, 법도, 이 모든 것들도 고정된 실체가 없음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공(空)은 없음이 아니다. 사물(色)이 존재하는 모습, 물질의 최소단위인 쿼크와 힉스가 물질을 이룰 때와 이루지 않을 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조화와 공존을 알게 된다. 분명히 없으면서 에너지가 충만하여 즉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 진여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수고 말고 할 것 없이 이미 청정한 그 자체로 구족해 있다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는 삶이 주는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 바로 〈금강경〉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금강경〉은 수보리라는 부처님의 제자를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 즉 나는 누구이며, 내 삶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며, 타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십대제자로 기원정사를 세운 급고독(수잣타)장자의 조카다. 이 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수보리의 출가를 살펴봐야 한다. 수보리는 자신의 큰 아버지인 급고독장자가 사업으로 코살라국에서 제일가는 재벌이 되었지만 가족과 타인에게 재물에 관한 한 아주 엄격한 잣대를 지니고 있어서 어린 나이이지만 반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분이 마가다국의 여동생 집에 다니러 갔다가 죽림정사에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돌아오더니 안 팔겠다는 기타태자의 동산을 금으로 깔아가며 사더니 기원정사를 만들어 부처님께 기증하여 코살라국의 국민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하기 위함이란 것을 들으며 코웃음을 쳤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성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또 다른 사업수완이 발동한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본래 수보리는 천재였다. 천재가 자신이 처한 환경이 맘에 들지 않아 불타는 분노가 치솟을 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발광한다고 한다. 까칠한 소년으로 변한 수보리는 방황하는 사춘기아이들과 함께 사고뭉치로 전락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수보리를 위해 부처님과 만나게 하려고 여러 각도로 노력해보지만 소용이 없었다. 덧없는 인생이란 것에 또 한 덧없는 부처님을 만나본들 그 또한 덧없기 때문이라면 돌아서는 아이를 바라보는 가족의 마음 또한 고통이었다. 수보리는 사람에게 답을 얻지 못하자 지나가는 동물에게 고함을 빽빽 질러가며 답을 말해달라고 하니 숲속의 동물들도 도저히 감당 못해 산신에게 SOS를 쳤다. 산신은 수보리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갔다. 그곳에서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는 것이지 무엇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서로 자비로 대하고 은혜를 베풀며 서로 이익이 되도록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 너 혼자 잘난 체 하고 나만 잘 살자고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출가했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선지식 그리고 정법의 특징 '지혜'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⑳ 금강경 제7분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또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밝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며 그들 상황에 알맞게 설법하시었다. 그러나 부처님이 가신지 2500여 년 사람이 달라지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당연히 부처님의 설법도 당연히 달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전에 써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이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보편적 가르침 즉 정법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전에 써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 시대 이 사람들에게 항상 알맞게 적용된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참정법이란 이시대의 선각자 즉 선지식이 지도하는 불법이라야 정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선수행법이 모두 정법이 아니요, 선지식이 지도하는 참선법이 참정법이 된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선지식은 어떤 특성을 지니며 선지식이 지도하는 정법은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정법이란 그 가르침을 되풀이 실행하므로 사람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어야 된다.

또 사람을 무지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만드는 특성도 지녀야 한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가르침, 무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은 참부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없으며 물론 정법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장 밝으실 때 설하셨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잘 살펴본다면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소 나마 알게 된다.

금강경 제 7분에 부처님께서는 일체현성(一切賢聖)은 개이무위법(皆以無爲法)에 이유차별(而有差別)이라 말씀하시었다. 즉 선지식은 형상이 없는 가르침을 사람에 따라 달리 설법한다라는 말씀인 것이다.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음미하면 선지식이라면 사람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동일한 설법을 하지 않고 수기설법을 한다는 뜻이다. 수기설법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듣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밝도록 설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토대로 선지식을 생각하면 선지식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일 것이며, 겸허한 사람일 것이며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일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일 것이며, 자신을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성내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는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일 것이며 난제에 대해 매우 슬기로운 대답을 하여주는 사람일 것이다.

선지식은 수기설법을 통하여 사람을 밝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불자들에게 자신의 지식자랑을 하지 않는다. 또 경전을 해석하는 교육지식을 많도록 주입시키는 교육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승덕박(才勝德薄)이라는 말씀처럼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지혜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사람의 마음 속에 부처님과 똑같이 무한한 지혜가 내재 되어 있는 것을 알고 힌트를 주어서 그 지혜를 끄집어 내게 할뿐인 것이다. 또 선지식은 사람들에게 돈이나 정성을 자신에게 요구하지 한다. 선지식은 무엇을 가져와야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데,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난제를 다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갖추어져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보살은 어법(於法) 응무소주(應無所住) 행어보시(行於布施) 소위(所謂) 부주색보시(不住色布施) 부주성향미촉법(不住聲香味觸法) 보시라 하시었는데, 이 말씀은 조건없는 보시, 즉 무주상(無住相)의 보시를 연습함으로써 부처님의 광명을 차단하는 무시겁의 업보업장을 소멸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 결과 무량복덕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오온이 공함을 '이 뭣고'로 비춰라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행심반야바라밀다시(行深般若波羅密多時)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 〈반야심경〉의 일부인 이 말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춰보고 고액(苦厄)을 건넜다"는 의미이다. 부처님께서 반야부를 21년간 설(設)하셨는데, 중생을 생사고(生死苦)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성제(고집멸도) 중 고(苦)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길(道)이며 진리에 이르는 길을 핵심적으로 함축시키 내용이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이다. 반야는 조견(照見)할 수 있는 지혜인데, 오온의 통속서 '이 뭣고'로 비추어 우리의 몸과 온갖 감정의 현상계를 텅 빈 것으로 깨닫는 지혜가 관자재이며, 분별과 집착을 모두 내려놓는 방하착(防下着)이 행심이다.

승조대사 송(頌)에 보면 "사대원무주(四大元無主) 오온본래공(五蘊本來空) 장두임백인(將頭臨白刃) 유사참춘풍(猶似斬春風)"이란 말이 나온다. 이는 "사대로 이루어진 몸뚱이는 원래 주인이 없음이요, 오온은 본래 비어 있음이라, 단두대에 내민 내 머리를 흰 칼로 친다하여도, 그것은 마치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은 것이다"란 말이다.

자성을 깨쳐 대도를 성취한 도인에게는 아무리 높은 벼슬이라도 세속의 오욕락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 그 자체인 것이다. 진나라왕 의희가 승조 대사를 재상(宰相)으로 몇 번을 간청(懇請)했으나, 거절하자 왕명을 거역한 대역죄로 참수형을 당하면서 남기신 본래공(本來空)의 소식이다. 사성제의 고(苦)와 집(集)의 원인인 번뇌, 무명으로 인한 갈애(渴愛)도 오음성고(五陰盛苦)에서 비롯된 것이다. 색온(色蘊)은 우리의 육신을 나의 것, 영원한 것, 늘 아름다워야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아상(我相)의 집착서 오는 고통이니, 무아(無我)를 깨달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사대(四大)로 구성된 색(色)은 무상(無常)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며,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닌 것이다.

> **"'이 뭣고'로 오온을 비춰 봤을 때, 반야지혜가 그 밝음을 드러내며, 인간의 생성과 소멸의 모든 과정 또한 텅 빈 공이며, 무명과 고집멸도 또한 그렇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내 몸을 중심으로 나(我)라는 아상(我相)과 나의 것이라는 허망한 집착 때문에 모든 불행 등 고난이 생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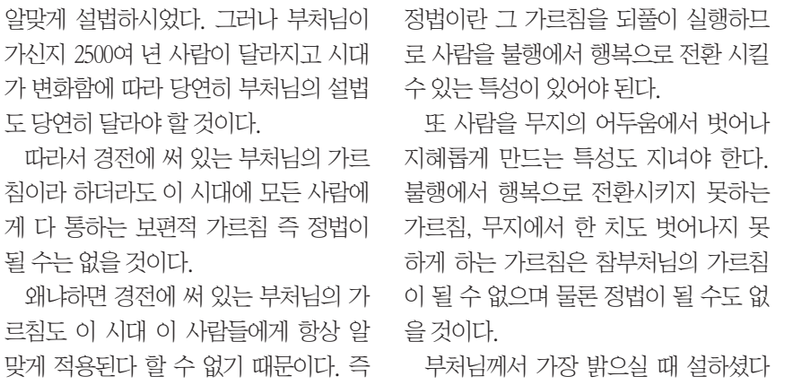
수온(受蘊)은 인간의 정신작용 가운데 괴로움이나 즐거움 같은 느낌이나 감정을 말한다. 좋은 느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기분 나쁜 것은 화(禍)를 내게된다. 그래서 좋은 느낌에 대한 갈망이 지나치면 술, 마약, 도박 같은 중독으로 이어진다. 상온(想蘊)은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떠올리는 생각과 관념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상(想)은 지식, 사상, 이념과 같은 지식이나 이지적(理智的) 심리현상의 밑바탕이 된다.

행온(行蘊)은 심리현상을 포괄하며, 행위를 낳는 의지작용, 행동을 유발하고, 하고 싶어하는 의욕과 충동을 말하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나 욕구가 항상 충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괴로움이 배가(倍加) 된다.

식온(識蘊)은 식별, 인식, 판단하는 작용을 말하며, 수 상 행온에 대한 인식이며, 마음의 작용 전반을 총괄하는 주체적인 마음의 활동을 말하며, 식(識)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수, 상, 행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데, 그 분별의식이 작용에 따라 아(我)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일어나서 본래 오온으로 구성된 나라는 존재는 실체가 없는 무아(無我)이며 텅빈 공(空)일 뿐이지만, 이 식(識)에 의해 잘못 분별인식 됨에 따라 '있음'이 되어 착각을 일으키며 결국 괴로움(故)이 되는 것이니, 그 한 생각 뿌리를 '이 뭣고'로 매 순간 알아차리고 제거하는 것이 참 수행이 되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 경 상 도 010-4187-0062
강 원 도 019-396-1110 | 전 라 도 011-248-6298
충 청 도 010-6545-3350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윗 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기미, 손발톱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조계종 국장단 소폭 인사

홍보 범종 · 문화 각승 · 호법 효신 스님


범종 스님


각승 스님


효신 스님

조계종이 6월 5일 국장단 소폭 인사를 단행했다. 홍보국장엔 문화국장이던 범종 스님이, 문화국장엔 호법국장이던 각승 스님이, 호법국장엔 홍보국장이던 효신 스님이 자리를 옮겼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임명식 이후 "항상 종도들과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자리에 있든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맡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보국장 범종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1997년 수계했다. 현등사 현등선원, 부석사 봉황선원, 고운사 고금당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문화사업단 사업국장, 호법부 상임감찰, 문화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안동 광흥사 주지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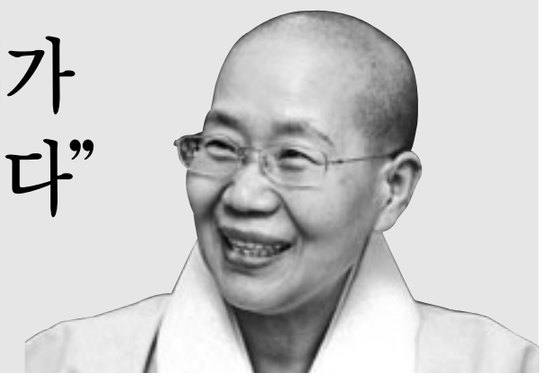
문화국장 각승 스님은 월탄 스님을 은사로 1991년 수계했다. 동국대를 졸업하고 호법국장을 역임했다.

효신 스님은 종수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했다. 동국대(경주)를 졸업하고 호법과장, 상임감찰, 홍보국장 및 문수사 주지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무엇보다 인간관계가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Interview

8월 정년퇴임하는 동국대 교수 계환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만인이 행복할 때 비로소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해 간다면 어떤 인간관계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30여 년간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지도해 온 계환 스님이 오는 8월 강단을 떠난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환 스님은 5월 28일 퇴임식을 겸한 동국대 정각원 법회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희망을 되새긴다. 희망은 인관관계에서 비롯된다"며 주변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말로 소회를 밝혔다.

계환 스님은 법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2년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청도 운문사 비구니불교전문강원 대교과 졸업 후 일본 하나조노(花園)대학 불교학과와 교토(京都)불교대학 대학원에서 석 ·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30여 년간 동국대에서 교수로 근속했다.

동국대에서는 특히 첫 비구니 도서관장을 맡아 전국 최초로 도서관을 지역기관 및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리모델링 불사를 성공리에 마치는 등 변화에 앞장섰다. 제10대 전국비구니회에서는 운영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정각원 법회서 마지막 법문

인간관계의 소중함 당부해

"인연에 감사한 마음 가져야"

정각원에서 열린 법회서 스님은 "인간관계에서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며 쌍방향 도로와 같다"며 "내가 그동안 행한 여러 가지 말들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정년을 앞두고 비로소 반성을 해본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유마경〉의 가르침을 인용해 "'일체중생이 아프면 나 또한 아프다'는 말이 바로 불교를 상징한다. 상대가 불행하면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인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느껴야 한다.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계환 스님은 향후 현재 맡고 있는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스님은 "산에 오를 때는 한걸음 진땀 흘리며 힘겹게 오르지만 내려올 때는 다르다. 하나하나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한걸음 뗄 때마다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듯이 우리 불자님들이 하루하루의 정신 수행을 소중히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털어놓은 스님은 출가와 교단 생활을 병행하며 느낀 바를 전했다. 스님은 "성실함은 모든 것을 이기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진정성이 최고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원하는 부와 명예보다도 '사람'을 얻어야 한다"며 "모든 것이 여러분과의 인연 덕분에 배운 가르침이며 그 인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계환 스님은 동국대 비구니 수행관 혜광사 사감과,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 불교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현수 법장 연구〉 〈중국불교사〉 〈화엄사상사〉 〈홍명집〉 〈일본불교사〉 〈고려대장경연구〉(공저) 〈중국화엄사상사〉 〈경전산책〉 〈상식으로 만나는 불교〉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등 다수가 있다.

"어르신 편안한 노후 발원"

내장사, 5월 31일 어르신 경로잔치



정읍 내장사(주지 도완)는 5월 31일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정읍지역 어르신 500명을 초청해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도완 스님, 대우 스님을 비롯한 내장사 대중스님들과 유성엽 국회의원, 이호준 정읍노인회장,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 등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해 각종 공연과 기념품 전달 등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모교 사랑' 실천한 기업가

임금동 한세상사 대표, 동국대에 8천만원



임금동 ㈜한세상사 대표이사는 6월 5일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을 예방하고 학교 발전기금 8000만원을 기탁했다. 동국대 경영학과 81학번인 임 대표는 2014년에도 2000만원을 기부해 총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로터스관 건립기금으로 학교에 전달했다. 기부에 앞서 임 대표는 "다른 동문들의 기부 의지를 북돋는데 힘을 보태자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사명당 기념사업, 北과 교류"

사명당기념사업회 5대 회장 취임

운붕 스님이 사단법인 사명당기념사업회 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스님은 사명대사를 기념하며 남 · 북한의 교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사명당기념사업회는 6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운붕 스님의 5대 중앙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운붕 스님은 "최근 남북 화합의 바람이 불고 있다. 조선 중기, 국토를 지키신 사명대사는 평양 시민의 영웅이다. 회장으로 취임해 사명대사의 기념사업회로 북한과 교류해 사명대사의 발자취도 재조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서울 도심에 사명대사 기념관을 만들겠다. 사명대사에 대해 와전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대중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운붕 스님은 불국사 말사인 포항 대성사 주지이며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살풀이춤 87호, 97호 전수자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차원에서 2006년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박진형 기자**

"노약자 위해 사찰접근성 조사"

스쿠터로 108산사 순례 나서는 조병래 포교사



"108산사 순례를 하면서 계단과 경사로 등의 정보를 수집해 각 사찰을 찾고자 하는 교통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사찰은 교통이 발달한 도심보다는 고즈넉한 산중에 위치한 곳이 많다. 이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찾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조계종 15기 포교사 조병래(61 · 법명 혜강) 씨는 이 같은 교통약자들을 위해 108개 산사를 순례하면서 사찰접근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그가 108산사 순례에 뜻을 품게 된 것은 자신의 인생 후반기 초점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회향으로 보내는 데 뒀기 때문이다.

"2016년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뒤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많은 인연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행복하게 살았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받은 것을 회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씨의 순례가 독특한 이유는 이동수단이 스쿠터라는 점이다. 그는 최근 대림오토바이에 108산사 순례계획서를 보내 대림스토리메이커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림 측에서 최신모델 스쿠터와 안전장비, 유류비 및 수리비 등을 후원키로 결정하면서 순례에 탄력을 받았다.

"몇 년 전 제주도에서 스쿠터로 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스쿠터를 타면 탈수록 자기를 놓치면 큰일 나는 기계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네 발 달린 교통수단은 잠시 딴 생각을 해도 위험이 덜하지만 스쿠터는 곧바로 사고가 나니까요. 마치 물고기처럼 깨어있어야 하는 좋은 본보기라고 느꼈습니다."

이 씨는 6월 11일 관음성지인 강화 보문사를 시작으로 8월 22일까지 약 70일간의 순례에 나선다. 총 거리만 4,800㎞에 달하는 대장정이다. 그는 순례과정에서 사찰참배뿐만 아니라 〈천수경〉 독송, 108배, 발원문 봉독, 관음정근 등의 수행도 실시할 계획이다. 순례사찰은 선묵 혜자 스님의 108산사순례기도회를 바탕으로 선정했으며, 드론과 액션캠 등으로 사찰 주변을 촬영해 향후 자료를 공유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번 순례가 단순히 저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윤호섭 기자**

"천진불도 사찰음식 매력에"

적조사, 영유아 함께하는 사찰음식체험



서울 전통사찰 돈암동 적조사(주지 탄국)는 6월 2일 영유아와 함께하는 '건강한 사찰음식체험'을 실시했다. 이 자리는 영유아들이 사찰음식 만들기와 맛보기를 통해 사찰음식의 매력을 느끼도록 돕는 불교문화체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500여 명이 참여해 직접 사찰음식을 체험하고 즐겼다. **윤호섭 기자**

탈종공고

- 등록면허 20161006-0025
- 주 소 :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960
- 사찰명 : 은선암
- 창건주 : 남남순

상기인은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본사암과 맞지않고 본인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3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욜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욜
상·중·하 단전 차크라 열려 기운 뻥뻥!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신화종합불사
- 전통한옥 법당 철거, 개축, 신축
- 30년 경력 대목장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불모조각장인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범종 장인이 함께합니다.
- 9평 산신각, 신축, 특A급 가격저렴
- 10평 정자, 18평 법당 증축가증 A급
- 17평 요사채, 21평 증축가능
- 31평 재실, 38평 법당증축가능 A급
- 60평 한옥 2층 증축가능(신축)
- 80평 요사채, 40평씩 분할가능
  석탑 5~7층 다수 있음. (5~3천만원)
  수익형 기도처, 서울매매 21억
  (2억, 월 1천만원 세있음)
- 강원도 6천평 삼성각,대웅전,명부전, 요사채, 한옥펜션 등 다용도 전환가능 양도가 16억
- 강원도 철원.대지 4.800평. 대웅전.삼성각 등 건물 800평 전통 한옥 목조 건물임
- 납골당 수목장 요양시설 등 전환가 양도가 40억원
- 안성. 전통한옥. 특A급. 대지 1,600평 건평 140평. 사찰, 연수원 등 전환가능 양도가 25억 급매
- 서울시내 전통사찰 부지 1,200평 양도가 120억원. 잔고 증명 요함
- 이동식 스틸하우스 30평. 설치까지 3천만원
- 그외 다수의 사찰, 또는 매물 등이 있습니다.

010-6545-2020

“걷고 쉼, 힐링으로 통일 기원”

불교중흥실천협, 마가 스님과 걷기 명상 산책

“한걸음 한걸음에 쉼과 평화를….”

불교중흥실천협의회(의장 안국)는 6월 3일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명상힐링 산책-통일 기원 회동동 수원지 둘레길 걷기’를 회동동 수원지 일대에서 진행했다.〈사진〉



명상힐링 산책에는 의장 안국 스님을 비롯해 마가 스님과 부산 및 경남 불자 300여 명이 참석해 수원지 둘레길 약 5km를 함께 걷고 통일을 기원했다. 이어 걷기 명상 후 시 낭송, 축가 등이 진행됐으며 마가 스님 법문으로 마무리됐다.

마가 스님은 “걷기 명상의 목적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기를 위함”이라며 “프랑스 플럼빌리지에서는 ‘입가엔 미소, 마음엔 평화’란 모토로 힐링 걷기 명상을 진행 중이다. 지금 이 순간 집중하면 행복으로 자연스럽게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에 참 평화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의장 안국 스님은 “창립 1주년을 맞아 명상 지도자인 마가 스님을 초청해 소중한 시간을 열게 됐다”며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명상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불교중흥회는 지난해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참선대법회 및 대학생 포교 후원 등 전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토선 수행으로 중생 제도를”

대한불교정토선종, 관정대사 11주기 다례재

경남 고성군 상리면에 자리한 대한불교정토선종(총무원장 등정)은 6월 3일 관정대사 11주기 다례재 및 제8회 보리수 축제를 서방사에서 봉행했다.〈사진〉



다례재는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관정대사 행장 소개, 격려사, 추모사, 법어, 정토선 염불정근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종정 굉하 정암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등정 스님, 천은사 은선 스님, 옥천사 지성 스님, 고성사암연합회 원각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종정 정암 스님은 “나고 죽고 가고 오는 것 모두가 고통이로구나”라는 원효대사의 법문을 인용한 뒤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수행해야 한다. 하루에 열 번만이라도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한다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했으니 정토선 수행법을 실천 해 일체 중생이 극락왕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등정 스님은 “정토(염불)와 선을 함께 닦는 선정쌍수 수행법으로 모든 사람이 참 빛이 되고, 이 땅의 중생을 제도하는 거룩한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정대사는 중국 근대 3대 고승 중 한 명으로 꼽히며 허운화상으로부터 조동종 48대 전법제자로 부촉됐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생명가치 일깨운 청소년 백일장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 이하 부산생명나눔)는 6월 2일 부산 송상현광장 선큰광장에서 부산 지역 내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1회 생명나눔 시 · 산문 백일장’을 개최했다.

백일장에는 경남여자중학교, 광안중학교, 해동 중 · 고등학교 등 22개 학교에서 청소년 100여 명이 참여했다. 심사기준은 정서적 문학 표현력과 독창성, 내용구성 및 언어구사력이며, 시상식은 8일 오후 5시 부산 동구 수정동 여래사에서 열렸다.

박동범 부산생명나눔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고자 행사를 주최했다”며 “앞으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처님도 외국인, ‘불제자’로 한마음

6월 3일, 영남서 외국인 근로자 위한 행사 열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인도네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묵신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아내와 7년째 살고 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는 그이지만 아내만 보면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등 한국사회 국제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하지만 불교계는 다문화 포교 활동에서 비교적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환경 개선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맞춤식 포교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6월 3일 구미 마하이주민센터에서 이주노동자 부부 5쌍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주최했다.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 10명의 합동결혼식을 축하하며 신혼여행 교통지원 및 가전제품, 결혼 메이크업 후원 등 불자와 여러 신행단체의 나눔도 이어졌다.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은 지난 2000년 노숙인과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을 위한 구미 보현의집을 설립했다. 이후 외국인노동자상담지원센터 개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부처님오신날 행사, 이주민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며 후원 및 보호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이주여성보호시설을 운영하며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을 보호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진오 스님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서로 만나 동거 후 아기가 생겨도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태어난 아기는 결국 보호 받지 못한 채 버려지거나 스리랑카 혹은 미얀마 등 여러 나라로 떠나가는 일이 종종 있다”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아껴주는 삶을 기원하며 결혼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가계 어려운 이들 위한
5쌍 합동결혼식 지원과
한국인 친목 도모 돕는
축구단 창단식까지 열려

이뿐만 아니라 부산서는 외국인 불자 노동자와 한국 불자 및 스님 간의 친목 인연을 이어주는 행사도 열렸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유진상)는 같은 날 부산 금정중학교 운동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축구단 창단식 및 후원금전달식’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이 6월 3일 구미 마하이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이주노동자 합동결혼식.

한국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스리랑카 및 네팔 등 불교국가에서 온 불자이지만 한국에서는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찰을 방문해도 외국인 불자를 위한 법회는 찾아보기 어렵고, 인적 네트워크도 없어 꾸준한 수행은 생각조차 못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축구단 창단식은 한국 불자와 외국인 불자간의 친목을 도모해 앞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돕는 소통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미얀마 외국인 노동자 와이얀표 씨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차별을 당할 때는 마음이 아팠다”며 “축구단 창단을 기회 삼아 좋은 인연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창단식에는 축구사랑 회장 하림 스님, 대한불교청년회 김성권 중앙회장을 비롯해 미얀마 및 네팔 외국인근로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축구단은 매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금정중학교에서 한국인 불자 청년들과 친선경기를 연다.

류상영 외국인근로자 축구단 초대단장은 “가족들과 떨어져 몇 년간 일하다 보면 외롭고 의지해야 할 곳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늦었지만 불교 인연을 통해 서로 의지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유진상 대불청 부산지구 회장은 “이웃종교 활동에 마음 뺏기지 말고 불교국가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을 가족으로 품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갖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정지역에 양돈축사 웬 말”

선운사 · 소요사, 부안면 양돈축사 건립 반대 시위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주지 경우)와 태고종 소요사(주지 문해)가 고창군 부안면 창래마을에 추진되는 양돈축사 건립에 반대의사를 천명하고 나섰다.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강주 재연 스님과 학장 환성 스님, 소요사 주지 문해 스님, 선운사 포교국장 대일 스님과 학인스님 등 지역 스님들은 6월 1일 전주지법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가 답사한 부안면 양돈축사관련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축사건립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날 스님들은 주민들과 함께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양돈축사 건축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시위에 동참한 지역주민들 역시 대형 양돈장 신축에 따른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고창군의 한 축산위탁영농조합에서 건립을 추진 중인 양돈축사는 총 2만 9784㎡의 대지에 10개동 총 1만1740㎡(약 3551평) 건물을 건축하고, 약 1만두의 돼지를 사육할 예정이었으나 고창군의 허가신청 반려로 행정소송 중에 있다.



고창 선운사와 소요사 스님들이 6월 1일 양돈축사관련 현장을 방문해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 양돈축사가 들어설 부지는 소요사와 불과 600m 떨어져 있고, 서정주 시인의 미당문화관과는 1,500m가량 떨어진 질마재 인근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밀물 시에는 악취가 인근 선운사와 고인돌 유적지까지 올라오는 것은 물론 부지 아래 2개의 대형 저수지 수질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시위에 동참한 선운사 스님들은 “양돈축사 건립 반대는 청정지역 환경을 지키는 일로 주민들과 함께 축사 건립 저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법 행정소송 담당 관계자는 현장 방문에 이어 추후 변론기일을 정해 최종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 봉축행사 ‘성공적’ 쓰레기 배출 대폭 감소

부산불교聯, 봉축 평가회 열어

2018년 부산연등문화제가 높은 시민의식과 헌신적인 봉사로 우중(雨中)에서도 빛났고, 불자들의 신심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6월 1일 부산진역 협성웨딩뷔페홀에서 ‘2018년부산연등문화제 평가회’를 개최하고 봉사자 및 참가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평가회에 앞서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정산 스님은 “지난해에는 쓰레기 정리에만 6시간이 걸려 어려움이 있었는데 1년 사이 쓰레기가 10배 이상 줄어들어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고 총평했다.

한편, 이날 제등행렬 출발 시간 및 거리 조정 △장엄등 파손 방지 위한 대책 △참가자 위한 특설 무대 위치 조정 △축제음악회 공연시간 조정 등 건의도 이어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칠순, 돌잔치, 명절 등 각종 행사, 가족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만약 사람이 부처님을 믿지 않으며,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비법(非法)을 행한다면, 이를 일러 죽음이라 한다.

– 수마제장자경 –



관상(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기도와명상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조선소나무 판매

목재용, 건조기간 6년
수량 14000사이(상태A급)
건축면적 : 약 28~30평내
저렴한 가격
010-2294-4747

최고급 모시 속옷 팬티

소,중,대
각 3만 3천원
- 주문: 농협 187-02-274348
(예금자 : 이청하)

010-8561-8253

인생상담하는 보살님 초빙

010-6880-6900

절에서 일 할 청소, 심부름 할 처사 구함

절에서 공부 할 행자 구함
010-3840-43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지역 사찰)
010-9003-4640
032-678-4640

청정한 제주에서 기도하며 함께 살아갈 비구스님 모십니다

010-3516-6375
(문자로 남겨주세요)

도깨비를 내 맘대로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七星 철학 命理 學堂

※실전통변술 해법(命理學神通術)
※실 전 반 모 집(1:1 맞춤 직강)
∵ 칠성사 부설 칠성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뱀내장터로 21(신천역)
☎ 031-315-4684
010-8427-6199

한국 민간 요법 연구소

전립선 도움 | **비염 치료**

내성이나 향체가 강하면 연고 2개를 쓰시고, 약하신 분은 1개를 쓰세요.
25일 사용
70 ~ 80% 치료 효과

한달 분 가격 55만원 **가격 40만원**

010-9523-3338
농협 421019-58-009257 (이광주)
※ 37년간 연구 했음

정법수행에 적합한 토굴을 구합니다

산속이나 한적한 곳이면 되고
물이 가까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임대 또는 싼값으로 양도도 가능합니다.
좋은 인연을 기다리겠습니다
010-7678-5536

대한불교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청동 불상 조성 하실분 안내

(기존 대웅전에서 조성)
- 청동불 : 석가모니불1, 관세음보살 2
- 범종사 제작종 : 60관(225kg) • 후불탱화 : 1
- 기타 관세음보살상 외 1

※ 기존 대웅전에서 모시던 조성청동불을 인연되시는 분에게 저렴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 : 010-7244-6116

사주 잘보는 스님입니다

사주 볼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010-3288-9406

명예박사학위취득 필요한분상담환영

(미국령, 대학교)
1.정치외교학 2.경제학
3.문화예술학 4.철합,문학
5.종교학 6.체육학
7.대체의학
상담 : 070-8844-2030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 도 모 집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宗)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의 샘나 효모 밥죽순 콩단백 족 콩고기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 밥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 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샘나]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3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과거 생에 복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을 모시게 된 것이다. 이는 전생의 복이 크기 때문이다.

- 아난분별경 -



옥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단청법당. 요사채. 토지 300㎡
- 마을 주변 사찰. 위치 좋은 기도도량
- 양도 : 1억 4천만원 (전국사찰 수백건 상담)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 127-15호)

강촌사찰(급)안내
- 산중 기도 사찰
- 목조법당. 요사채. 토지7500㎡
- 계곡 전체 사용. 경관 좋음
- 조용하고 수행하기좋음.
- 양도가액 : 15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구입의사 있으신 스님만 모심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정릉유원지 근처
- 대지 : 734평(국유지)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상실 3개 시설완벽
  주차 :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010-3700-1893
02)911-924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수도권
◎ 대지 : 14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40평
◎ 양도가 : 12억 3천
◎ 위치 : 서울북한산,
◎ 부지 : 100평사용,
◎ 인법당 : 약 60평,
◎ 산속,무허가건물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있는 작은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위치
- 오르막 없는 평지 주차 넉넉함
- 하천부지 약100평(산신각포함)
- 양도 또는 전월세도 가능

010-7121-3030
010-3574-3303

도심 속의 땅 넓은 사찰 (50년생)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4800평
  ※ 일부 주거지(800평)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60평)
- 조망권 : 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 전망
- 양도가 : 평당 20만원

010-3560-852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동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 법당 50평, 방 3개, 공양실, 화장실 2개
- 보증금 1,500만원,월70만원 보증금 3,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3884-0122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동대동 천변
- 신축 건물 2층 40여평 트인 전망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010-5438-01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관이 수려한 고찰로써 수행하기 좋은곳
- 대지 1,80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황토) 창고
- 주차시설 아주 좋음
- 확인 후 절충가능

주지직 010-7918-732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소재
- 부지 : 6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2층,청기와,단청)
- 요사채 : 35평(1층)
- 기타 : 일주문,산신각등
- 가액 : 3억2천만원
- 특징 : 신도구성이 잘되어있는 도심번화가의 포교도량입니다.
- 위치 : 경주시 천북면소재
- 부지 : 약 10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3포7포,단청)
- 요사채 : 60평(목조,황토)
- 산신각 : 10평(목조,닷집,단청)
- 기타 : 석탑,석등
- 가액 : 10억5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의 대가람의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참 좋습니다.

전국소재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010-4942-0455

사찰상가주택(급)안내
- 대지 : 210.5㎡ / 건물 : 500㎡ (실제 조금 더 큼)
- 1층 : 찻집(30평)
- 2 ~ 3층 : 총 6가구 입주
- 4층 : 요사채(40평) /
- 5층 : 법당(30평)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위치
- 총금액 : 6억 8000만원

010-6656-8117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 : 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3억

010-5923-33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 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문의처 010-2607-7114

도심별장같은사찰
- 위치: 김해 선암다리 5분거리
- 토지 : 270여평,주차장 완비
- 법당,산신각,종각,용왕당 주지실,요사채(방3) 30평
- 돗대산, 주변1500세대아파트
- 가액 : 평당 280만원 (은행 2억1천 안고) 6억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3억

010-5421-1536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 시장 옆 4층 건물 2층
- 35평, 방2
- 보증금 1천만원, 월55만원
- 완벽한 시설 즉시법회 가능

010-2049-9865

토 지 안 내
- 위치: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563
- 864평, 평당 170만, 2차선 인접
- 주택 복지사업, 종교시설 가능함
- 연락처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010-3540-7739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1,500평 남짓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모두 2억 9,500만원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010-4628-5699
(부득이한 사정)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 뉴타운지역
- 4층건물의 4층 70평, 옥상사용
- 법당 40평, 욕실 갖춘 방2개 원목 불단, 리프트 설치
- 주차장 및 내부시설 최상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30만원 시설비는 협의 후 결정

010-9805-034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5번출구에서 5분거리
- 평수 : 2층 상가건물 약30평
- 교통 위치 좋음
- 보증금 1000만원,월50만원 시설비일체 1000만원 (가격절충)

010-8887-9894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불화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맛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등기필
- 대지 : 도지료1년 35만원
- 넓은 마당 및 텃밭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5백만원

010-8525-195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하단 오거리(최요지) 뒤에는 산(숲속), 앞에는 빌딩 등산로 입구(하단오거리 도보 5분거리)
- 평수 : 74평(허가득) 30평 사용, 총 104평
- 법당 : 30평(방1), 창고1, 화장실 2개 요사채 : 30평(방2),다용도실1,샤워실1,창고1, 오래된 절(몸만 오시면 즉시법회)성업중
- 가액 : 3억 3천만원(불사관계로)

010-6565-204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남부시장 옆
- 평수 : 40평
- 법당,공양간,요사완비
- 가액:보증금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3500만원
- 최고시설 몸만오시면 됨

※시장주변 상가밀집지역으로 명리 공부하신 비구니스님 수행적합도량※

010-4709-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사찰(포교원) 급안내
- 장소 :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38평 (공시가 6천)
- 건평 : 40평 (2층 구조) (강철H빔 판넬 건축비 : 1억 5천)
- 1층 : 공양간, 친견실, 화장실2개 창고 및 다용도실 (꼭 하실분만!)
- 법당 : 2층 20평 (4자 비로자나동불)
- 총 소요 금액 : 2억 7천 이상
- 급 양도가 1억 5천/전세 : 8천

051)206-3488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만덕동
- 2층 80평 방 5개, 주방
- 삼존불 및 33관음보살 원불
- 보증금 1,000만/월100만원
- 시설비 : 3,200만원,
- 시설 완벽 새 법당 주차장 대형주차장 완비
- 큰절 소임관계로 급양도

010-5638-5959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상가주택 포교원(급) 안내
- 투자가치도 좋음, 급 양도. 포교원 3층 건물 4억 3천~3억9천
- 위치 : 전주시내 앞도로변, 좌로4차선, 앞으로 2차선 주변환경, 전북경찰청, 도청, 아파트, 상가, 주택 밀집지역, 공원, 천변산책로
- 대지 61평, 뒷마당 있음, 건평 90평, 각 30평 3층 건물
- 1층 방3개,해우소/2층.법당.수미단원목조성.소불300불, 연등700,인등,영가인등,해우소/3층.주택,방 3개.화장실2개. 외부, 내부 뼈대 외 올리모델링, CC카메라10대
-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면 최고의 위치
- 가액 : 3억9천만원 (불사관계로)

휴대폰 : 010-5904-860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새절역 3거리
- 평수 : 38평에 법당 30평 3층에 3층 방 2개, 화장실
- 청동삼존불,후불신중탱화
- 보증금 천만원에 월90만원
- 시설비 및 설치비는 답사 후 절충가능

문의전화
010-7107-6160

전원주택안내 (암자가능)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연상리
- 대지 191평, 전176평
- 건물, 주택, 30평, 황토방 5평, 창고 8평
- 태양광,멋진정원,마당주차
- 넓은 텃밭,각종유실수 가득
- 가액 : 3억 7천만원

011-882-2897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입구17년째 운영
- 평수 : 40평, 3층 옥상사용 사무실, 스님방
- 법당,삼존불 시설 원만.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1000만원, 월40만원 에어컨 완비
-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010-7536-25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 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547-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교통 아주 좋음
- 대지 약 500평, 주변산 2천평
- 건물 : 대웅전, 요사채, 기타 아름답게 잘 정돈된 사찰
- 가액 : 8억5천 (방문 후 결정)

010-4537-5386

사찰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 가액 : 2억 2천

010-4953-1728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2,500만원
- 22년 포교중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대지 : 약 360평
- 사용평수 : 약 500평(하천부지포함)
- 법당,삼성각,약사여래,삼층탑,석등
- 요사채2채,창고3개,주차시설완비
- 가액 : 4억 ●창건 1972년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4583-4895

불자가 중개하는 안락동770-2 허가06-2231
공인중개사(중개안내)
- 전국사찰(터) + 암자 + 포교당 + 기도원
- 거래 성실(비밀) 중개로 오랜 경력 신용 쌓았습니다
- 살분 = 팔분 편안히 상담 바랍니다

010-3570-00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태안군 버스터미널에서 차로 10분거리
- 대지 1,500평(일부 전)
- 건물 : 법당 1동, 요사채 1동, 다용도 건물 1동 (황토방)
- 법당 및 요사채 시설 완비 (즉시 입주 가능)
- 가액 : 보증금1000만원,월50만원
- 양도 가능, 양도가 3억

010-5437-850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몽땅 : 1억 1천만원

010-8861-178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 2동 437-5 동구시장 맞은편. 명보약국. 골목
- 4층건물 내 2층 40평 중 내실. 상담실 주방. 세탁실. 화장실. 법당 29평내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신중탱1점 소불 관세보살 지장보살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000만원 월 45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748-4737

포교 사찰 안내
- 위치 : 김천시 구성 소재,시내버스10분거리
- 건평32평독채(법당 약20평,거실,주방,방2,욕실)
- 건물 : 건물 주인 등기부 등재, 근린시설 사찰(법적보장)
- 대지 : 약100평중(두집사용)약50평, 대지주인 도지료 1년 35만원
- 편중심 큰길변 교통좋은 포교지. 주차공간 넓음
- 가액 : 5천8백만원(절충가 인연보시)

전화 010-7295-1259

멋진 2층 상가 주택 토굴
- 위치 :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 대지 : 716㎡ (약 217평)
- 건평 : 1층 158㎡ (약 42평) 2층 105㎡ (약 35평)
- 양도금액 : 3억2,000만에서 5,000만 빼드림
- 대출 : 1억 포함(가격조정가)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 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 경북신도청 7.5km, 예천군청 9km
- 법당 : 실평수 30평, 요사채 30평, 40평
- 사찰도량 1,20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 요양원, 실버타운 적합

010-3526-706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송도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 130평
- 건물 : 한옥 2동 (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월50만원/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262-100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중구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입구
- 포교하기 최상 장소
- 평수 : 약 80평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세50만원
- 시설비: 협의 결정

※ 불사관계로 급

010-4766-3200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 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장엄한 불사, 1400년만에 스크린 오른다

다큐멘터리 '신성함을 새기다'
일본 불상공예장인 '붓시' 다뤄
2년 전 작고한 장인 코린 선생
활동 모습 남아있어 더욱 의미

박영빈 객원기자


불상을 새기는 붓시. 사진출처=트리사이클


불상을 새기는 사이토 코린 선생(우)과 제자 세기코운(좌). 사진출처=트리사이클

1,400년간 불보살을 세상에 나타낸 사람들이 있다. 불교가 전래된 이래 대대로 불상을 만드는 장인들 '붓시' 들이다. 지난 6월 1일 미국의 불교전문지 '트리사이클' 은 붓시의 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 '신성함을 새기다(Carving The Divine)' 의 제작을 상세 보도했다.

붓시란 일본에서 불상을 조성하거나 불화를 그리는 전문장인들에게 붙는 칭호다. 6세기 중반 한반도와 중국에서 건너간 장인들이 처음 붓시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11세기에 들어 사찰이나 귀족들의 전속장인들이 아닌, 전문 불상장인들이 등장하면서 붓시라는 이름이 정착됐다.

붓시들은 일본에서도 엄격한 도제식 교육법으로 유명한데, 이들의 세계를 장기 밀착 취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독인 세키 유지로는 "불단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불교공예와 불상을 만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가업이다 보니 아버지를 따라 붓시들을 만나는 일도 많았다"고 다큐멘터리의 제작배경을 설명했다. 유지로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예술 영화를 만드는 일을 했고, 그제야 내가 자라난 환경이 독특하단 것을 깨달았다. 서양에 일본문화를 알리면서 내 정체성을 찾는 방법으로 현대의 붓시들을 다큐멘터리로 찍기로 마음먹었다"고 제작의의를 덧붙였다.

세키 감독이 선택한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붓시 세키 코운(45)과 그 스승인 사이토 코린(2016년 작고), 그 문하에서 공부한 붓시들이다. 특히 일본에서도 명장(名匠)으로 손꼽히는 사이토 코린 선생이 작고하기 직전의 활동모습을 담아 의의가 크다고 한다.

다큐멘터리에 참여한 코운 붓시는 "불상은 자비가 넘치는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 뒤에 담긴 장인들의 치열함과 엄격한 과정을 알아주길 바란다"며 참여한 의의를 밝혔다. 또 다른 붓시 콘노 코케이는 "불상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지만, 모든 기술 뒤에 형용할 수 없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며 불상을 조성하는 마음가짐을 보였다.

세키 감독은 "코린 선생이 살아 계실 때 '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 코린 선생은 '후대에 부끄러운 작품을 남기지 않는 것이 유일한 꿈' 이라고 답했다"며 이런 장인정신이 불보살을 세상에 나타내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작감수를 맡은 하라다 마빈 스님은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다큐가 아닌 불상을 조성하는 장인들의 정신을 오롯이 보여 준다"며 이번 작품을 통해 불자들이 자주 접하고 예경하는 불상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작팀은 촬영 중에 서양의 관객들이 불교와 불상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에 주목했다. 제작팀은 다큐멘터리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내용을 보충하면서 주제를 홍보하기 위해 짧은 강좌와 트레일러 영상을 제작했다.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 매체에 업로드 되는 영상들은 시리즈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신성함을 새기다' 는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 출품을 목표로 최종 편집에 몰두 중이다. 불교예술의 정수인 불상과 장인정신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에 세계인의 반응이 기대되고 있다.

中, 불교 상업화에 야외 대불조성 규제

중국 통전부 26일 발표


홍콩의 천단대불. 출처=인디아타임즈

중국정부가 중국 각지에 세워지고 있는 대불(大佛)조성을 규제하는 명령을 공식발표해 화제다. 이를 통해 불교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5월 27일 '인디아 타임즈' 는 중국정부가 발표한 규제령에 대해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직속 기관인 '중국공산당 중앙통일전선 공작부(이하 통전부)' 는 보도 전날 야외에 대불 조성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명령을 공표했다.

이번 명령에 대해 중국 종교계는 자정능력을 잃고 지나치게 상업화된 종교가 본연의 모습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한편 최근 티베트 불교계에 대한 규제 강화와, 외국인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면서 상업화의 방지라는 구실로 종교박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통전부는 공산주의 이념으로 중국 내의 종교와 소수민족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5월 23일 통전부는 내부회의를 통해 거대 종교시설물을 통한 상업화가 그 정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세우는 대불을 그 대표적인 예로 집었다. 실제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에서 허베이성(河北省)에 소재한 모 사찰은 대불을 통해 연간 약 1천만 위안(한화 약 16억 7천만원)의 수익은 낸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통전부는 각 지방정부에 대규모 야외 종교시설과 건축물의 건설을 규제하고, 종교의 상업화를 방지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사실상 더 이상의 대불과 대규모 종교시설의 건축을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 인민정치 협상회의의 종교위원회 위원장인 주 웨이쿤(Zhu Weiqun)은 "단속은 단호하게 진행될 것이며, 중도 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문화 대혁명 당시 폐쇄되거나 파괴된 종교시설들이 개혁개방과 함께 복구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각지에 대규모 시설들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거대한 불상들이 조성됐다. 대표적인 예로 장쑤성(江蘇省)의 영산대불(靈山大佛, 88m), 하이난성(海南省)의 남산관음(南山觀音, 108m), 허난성(河南省)의 노산대불(魯山大佛, 128m)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불의 상업적 이용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종교적 목적이 아닌 관광 상품을 위한 대불도 몇 곳에 건설 되었다고 통전부는 발표했다. 특히 관광지로 유명한 일부 도교사원의 경우 종교단체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베이징 민족대학의 교수 시옹 쿤신(Xiong Kunxin)은 "이번 명령은 정부가 종교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종교가 이익창출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덧붙여 "지나친 상용화는 종교가 가진 신성성을 더럽히고, 사회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백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본토에서 신앙을 가진 종교인은 2억 명이다. 약 7천 500개의 종교단체가 있으며 이중 불교사찰은 33,500개소이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티베트인은 개인적 사찰순례 지양하라"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중국의 티베트 불교 규제

티베트력으로 4월, 성스러운 달로 꼽히는 '싸가다와' 에 중국 정부가 법회와 순례자들을 감시하고 나섰다.

지난 6월 1일 'RFA(자유아시아 라디오)' 는 티베트 불교계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됐다고 익명의 티베트 현지 제보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티베트의 수도 라싸 출신의 제보자는 "라싸의 중국 공안당국이 티베트인 공무원,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법회나 개인적인 사찰순례 등을 지양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심지어 은퇴한 공무원들에게도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티베트력으로 4월인 '싸가다와' 는 티베트 불교에선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 열반이 이루어진 달이다. 이 달은 특별히 성스러운 달로 인식되어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순례자들이 라싸로 몰리고, 각종 법회와 불교행사가 봉행된다.


포탈라궁 앞을 순찰하는 공안들. 사진출처=RFA

RFA의 현지 소식통은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조캉사원 주변에는 티베트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라싸 현지의 공무원과 학생들의 참여 수는 예년에 비해 훨씬 적고, 행사들도 줄어들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또 "공안들이 조캉사원과 포탈라 궁전을 도는 길에서 불시에 순례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라싸의 사찰들은 보안유지라는 명목 하에 철저히 감시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최근 라싸에선 티베트인들의 공개적인 신행활동에 대한 감시와 제한이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일례로 은퇴한 한 공무원이 조캉사원과 포탈라 궁전 주변에서 오체투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당에 대한 충성도가 부족하다며 연금지급이 거부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소문의 여파로 포탈라궁 앞에서 오체투지를 하는 등 공개적인 신행활동이 줄어들었다고 최근 티베트를 여행한 몇몇 여행자들은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 인등표 출력 | 위패 출력
문자발송 | 기부금 영수증 |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자비손 형상화에 필수적인 마음가짐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3. 자비수관

3) 자비수관 명상하는 방법

자비손의 접촉은 촉(觸) · 작의(作意) · 수(受) · 상(想) · 사(思)라는 심리현상을 일으킨다. 사물을 만질 때 만져지는 대상과 감각기관이 만나는 것이 접촉이다. 자비손을 몸에 접촉하면 마음의 동요가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하게 일어난다. 이것은 몸[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경각심인데 이것이 작의이다. 경각심인 작의는 〈성유식론成唯識論〉 권3에 의하면 무의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뢰야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갖가지 정보[種子]를 이끌어 일으킨다. 갖가지 정보는 감각[受]과 표상작용[想]을 통해 나타나고 사(思)에 의해 선악으로 채색되고 조작되기도 한다. 그리고 자비손에 의해 접촉되어 나타나는 몸의 구성요소인 흙 · 물 · 불 · 바람 · 허공인 5대의 갖가지 현상이 느낌으로 나타난다. 딱딱함, 흐름, 차갑거나 따뜻함, 형상과 빛깔 등이다.

느낌을 통해 5대 갖가지 현상이 느낌과 동반하여 식물, 동물, 풍광, 과거에 있었던 일 등 갖가지 영상으로 나타나면, 나타난 현상에 선악의 조작 같은 갖가지 의식작용이 일어난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도 종자의 현현이다. 종자는 명언종자라고 한다. 명칭과 언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수행 현상들이 언어문자로 표현되는 모두 아뢰야식의 종자이기 때문에 진실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문자와 결합한 현상은 과거, 현재, 미래로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며, 변화하여 간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변화하는 순간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을 때 언어문자의 외피로 입혀져 있는 것이 거짓임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언어문자는 대상을 고정 독립시키고, 분리되고,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나타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어문자로 표현되는 삼라만상 우주는 모두 마음이 만든 환영과 같은 것이므로 '있다' '실체로서 존재한다' 고 생각하거나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 견해들은 모두 거짓이다. 예를 들어 찻잔은 던지면 깨진다. 그러나 찻잔이라는 명칭은 던져도 부서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물과 언어문자는 별개의 것이다. 현상을 무상으로 관찰하게 되면 언어문자에서 벗어나게 된다.

즉 마음이 만든 종자를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문자에 의해 고정되고 독립된 것으로 실체로써 보이고 들리는 것이 변하게 되면, 말하자면 좋아하는 물건이 바뀌거나 좋아하는 연인이 변심하거나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죽는다는 것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거짓을 진실로 알고 있던 것이 변하면 불만족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불만족과 괴로움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 무아이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흔한 감기도 없어지게 하고, 늙음을 멈추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면 유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것이다. 무상 · 고 · 무아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현실이다. 접촉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리면 접촉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이 감각과 접촉을 무상관찰하면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으며, 현재는 머물지 않음을 아는 이 무상의 앎으로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리(理)로써 번뇌를 제거한다고 한다. 또한 무상을 알 때 그 앎을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접촉 자체가 연기 실상임을 알면 깨달음이고, 모르면 무명으로 감각과 형상이 생기고 조작하는 갖가지 의식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비수관 체험하기

지금부터 자비손을 시각화하여 몸을 관찰해보도록 한다. 먼저 몸과 마음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본 다음, 직접 자비손을 만드는 수행을 해보겠다.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

[커지는 모습 확인]

① 두 손바닥을 맞대고 두 손의 손목 선을 맞춘다.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자비손
실제 손 아니지만 효과 있어
쉽사리 형상화되지 않더라도
대상과 접촉에 집중하면 돼

② 이때 양 손가락의 길이가 어떤지 살펴 기억한다.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원래 길이를 잘 보고 기억해둔다.

③ 한 손을 세운다. 눈을 감고서(눈을 떠도 무방) 들고 있는 손가락이 엿가락처럼 길어져 천장을 뚫고 나가 허공 위로 올라가서 무한히 길어진다고 30초 동안 연상한다.

④ 그 다음, 눈을 뜨고 양손을 손목 선에 맞대고 손가락 길이의 변화를 확인한다.

[작아지는 모습 확인]

앞의 커지는 모습 ①과 ②에서 하듯이 양 손가락의 길이를 확인한다.

⑤ 한 손을 세워 들고 눈을 감고서(눈을 떠도 무방) 들고 있는 손가락이 작아져 아기의 손과 같이 된다고 30초 동안 연상한다.

⑥ 그 다음, 눈을 뜨고 양손을 손목 선에 맞대고 손가락 길이를 확인한다.

손가락 길이의 변화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고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의 차이도 다양하다.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집중된 마음에 따라 몸의 일부나 몸 전체가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몹시 슬프면 눈에서 눈물이 나기 마련이다. 매우 화가 나면 온몸을 떤다든지 위장이 굳어져버려서 배고프다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일곱 달이나 여덟 달만에 태어난 아기도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면 아기는 정신적 안정을 얻고,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기처럼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사례에서 우리는 몸에 영향을 줌으로써 마음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 심리를 반영하는 자비손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몸과 마음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자비로운 마음의 손은 곧 몸의 반응을 일으킨다.

자비손을 만들기 위해 먼저 손을 상상으로 만든다.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할머니나 어머니의 손 또는 성인(관세음보살)의 손을 연상하면 된다. 물론 만든 손이나 빌려 온 손이 선명하지 않아도 된다.

간혹 손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도 손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과 연민심을 일으키면 자비손이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다. 자비손 만들기가 순조롭지 못한 분들은 본인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성격이 과격하거나 화를 잘 내거나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비손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다. 설령 만들더라도 빨리 없어질 수도 있는데, 화를 잘 내고 급하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표면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 증오심이나 원한을 품고 있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자비손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때 자기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떠올리며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대상을 형상화하거나 시각화할 수 있다. 그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연민심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며, 연민의 손을 만들라는 것이다. 또한 수행할 때 수행자의 몸 상태와 심리상태에 따라 잘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비손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관찰 중에 자비손 모양이 사라졌다고 해서 다시 손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손의 형상이 보이지 않을 뿐 움직이는 의식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자비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손의 모양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연민심을 일으켜도 안 되는 경우 또한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우선 마음속으로 자비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된다. 원래 모양이 없어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마음이지만 대상과 접촉이 있으면 반응하는 것도 마음이다.

아직 자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형상화가 잘 안 되더라도 그냥 무형의 손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원을 둥글게 그리면서 몸에 접촉하기를 계속하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손의 모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손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몸은 반응한다. 처음부터 시각화한 손이 뚜렷이 나타나고 쓰다듬는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면 집중이 아주 잘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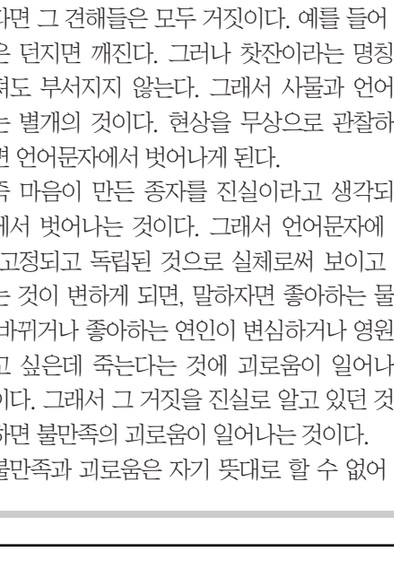
구체적으로는 손 모양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 대상의 모습 그대로 사진을 찍듯이, 3D프린터로 출력하듯이 자기의 손을 보고 그 손의 모양을 복사하여 손 옆으로 옮겨 놓는 연습을 반복하면 손의 이미지가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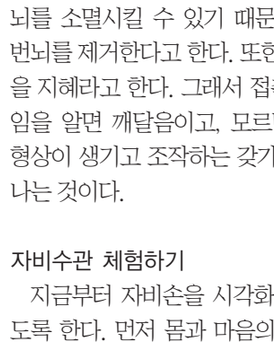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된다면 몸에 대해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비수관 수행법을 애초부터 불신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그럴 경우 자비수관 수행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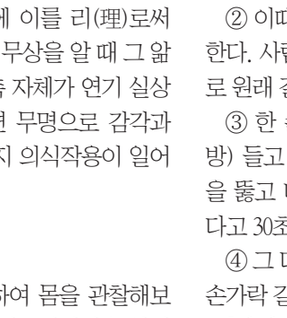
자비손이 생겨도 관찰 중에 자비손이 가짜니까 일어나는 현상도 가짜가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 수도 있다. 형상화한 손은 가짜이지만 그 손은 의식의 형상화이고 의식은 가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의식이 만든 자비손에 의하여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 현상도 가짜가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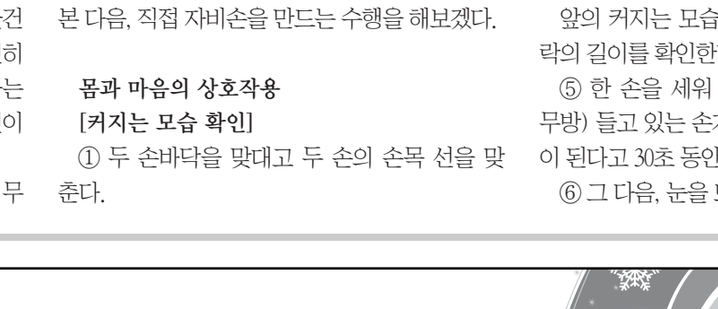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51)405-9402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마음의 보시란 세세생생을 건지고 무명을 벗겨 준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볼 때 학식도 많고 직책도 높고 돈도 많은 사람이 남한테 선을 베풀고 살다가 죽는 경우하고요, 또 비록 배움도 없고 부귀영화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 한마음 공부를 하다가 가는 경우하고 그 차이는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스님 예. 많은 재산이 있어서 물질로써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이 50%의 복덕을 받는다 한다면,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마음으로 공덕을 베풀었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1(남) 한마음 공부 하는 사람이 말입니까?

큰스님 예, 그렇습니다. 없고 있고 이걸 떠나서 마음의 보시란 세세생생을 건지는 거고 무명을 벗겨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보시를 아무리 했어도 공덕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공덕은 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1(남) 물질로 준 사람이 말입니까?

큰스님 예.

질문자1(남) 예.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요즘 국제 사회의 이목이 북한 핵에 집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혹시나 전쟁이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요즘 시중에서는 상당히 사재기도 하고 라면을 싹쓸이해서 다 사고 그러는 모양인데, 현재 북한 핵과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큰스님 아, 저기서도 그러더니 여기서도 또 그러네요. 허허허….

질문자1(남) 어디서 말씀입니까?

큰스님 이북과 이남 말입니다. 하여튼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질문자1(남)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집에 가도 라면도 하나 안 사 놨고요, 부탄가스 하나도 안 사 놨습니다. 그건 뭐, 스님께서 저희 집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희들 집 앞에 슈퍼가 있는데요, 슈퍼에 라면이고 뭐고 싹쓸이를 다 해 버렸어요.

큰스님 그래도 쌀은 사다 놓으셨는데요?

질문자1(남) 저희 집에요? 제가 일하러 다닌다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집사람이 사 놨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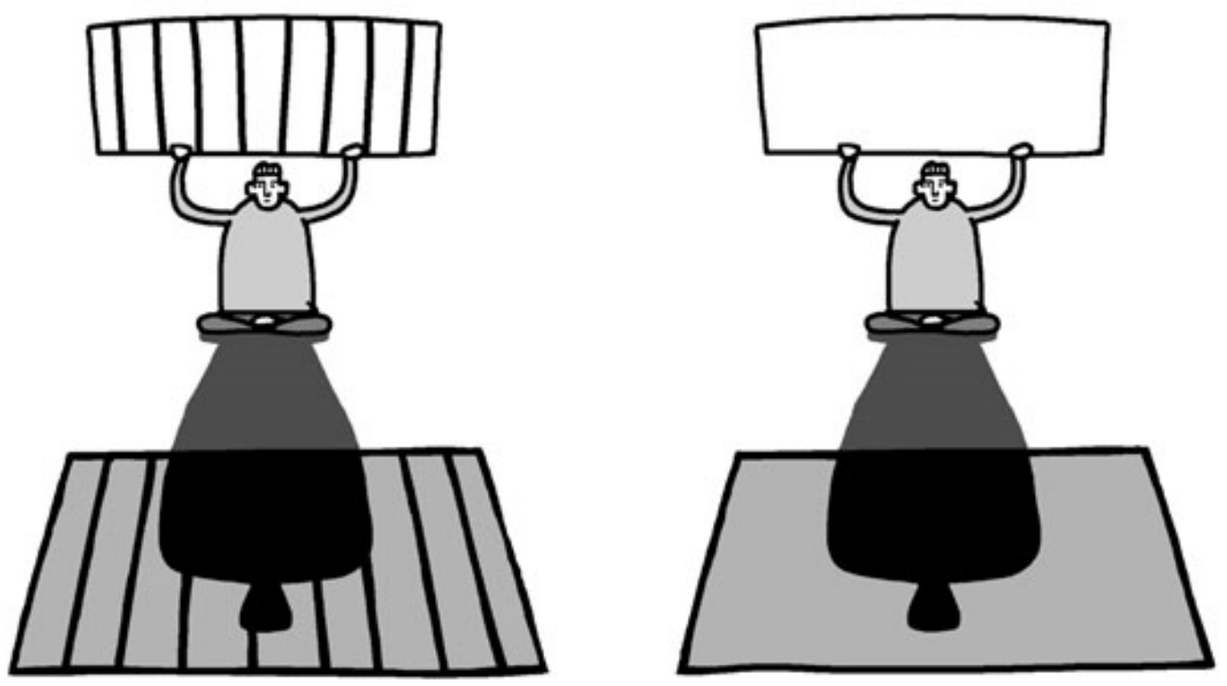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큰스님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죽는다 산다 이런 생각도 나는 나질 않고, 너무 바보가 돼서 그런지 그런 것도 생각 안 날 뿐만 아니라 생각을 했다면 콧방귀가 풍 나와요. 하하하….

질문자1(남) 저도 그런 생각인데 통일 문제에 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큰스님 통일 문제가 뭐 따로 있소? 콧방귀가 나온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죽는다 산다 이런 게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이거예요. 그게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면 전쟁은 나지 않아요. 한 번이나 속았지 두 번은 속을 수가 없잖아요!

질문자1(남) 그럼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좋겠습니까?

큰스님 허이고, 참!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해요.

질문자1(남) 저는 괜찮은데 라면 많이 사 놓은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큰스님 하하하! 나는 전쟁이 안 난다고 하지도 않았고 난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이 콧방귀 탕 뀌면 탕 뀌는 대로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따지고 본다면, 아니, 사람의 마음 밖에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부처님의 마음과 더불어 둘이 아니요, 우주하고도 둘이 아니요, 세상하고도 둘이 아닌데 그 핵을 만약에 그렇게 해 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이 주물러서 만든 거지 그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소 폭탄이나 무슨 어떠한 폭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폭탄이 있기 이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아요.

질문자1(남)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나는 될 수 있으면 세계가 좀 의합해서 지내게 하기 위해서 수년 전서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중 박수)

질문자2(여) 제 몸이 한 5년 동안이나 만날 이렇게 괴로워요. 알레르기성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불안하고요, 병원을 매일 다녀도 뭐, 다니나마나예요.

큰스님 어디서 사십니까?

질문자2(여) 저 음성 소이면이요.

큰스님 그러면 이 절이 제일 가깝겠군요.

질문자2(여) 예.

큰스님 그러면 여기 스님더러 관하는 거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내 이렇게 아픈 것, 주인공 네놈이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거니까 네 몸뚱이 네가 건강하게 해서 끌고 다녀라.' 하고 그렇게 꼭 관하세요. '너만이, 너만이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하고 관하세요. 그리고 정성을 지극하게 들이세요. 빚쟁이가 몸 안에서 지금 잔뜩 빚을 받으려고 온통 틀고 앉아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뿌려 놓은 거 자기가 속에서 지금 틀고 있으니까 그것을 면하시려면 빚을 좀 갚으셔야 될 겁니다.

질문자2(여) 그런데 책을 봐도, 내가 성심껏 좀 배우려고 했는데도 발심하는 마음이 조금밖에 안 생겨요. 내가 성심으로 해 보려고 하긴 했는데….

큰스님 아뇨, 남의 외상값을 지고 있으면 외상값 달라고 그러듯이 자꾸 속에서 지금 그러는 거니까요, 외상값을 갚아 가면서 관하세요.

질문자2(여) 감사합니다.

질문자3(남)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일체 만물을 스승으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부산 신도입니다. 제가 더욱더 오래 참구를 했어야 되는데 성질이 좀 급해서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큰스님 아뇨, 상관이 없어요.

질문자3(남)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중에 답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도 집에 갔다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내가 가 보지 않은 집에는 못 가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심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노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하는 중에 유마힐 거사 같은 분에게 인연이 된 고기 한 점은 즉시로 천도가 된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 그 말을 가지고 혼자 참구를 좀 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유마힐 거사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질문자3(남) 고기 한 점이 인연이 되어도 그 고기는 즉시로 천도가 된다고 『한마음요전』에….

큰스님 허허허…. 여러분이 고기를 잡술 때에 내 살이 되지요?

질문자3(남) 예.

큰스님 내 살이 되니까 벌써 사람으로 인도환생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간편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고기 한 점이 소 한 마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을 줄 아는 사람한테는 소가 무명을 벗고 먹을 줄 모르는 사람 앞에는 살생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한테는 그 살은 내 살이 되고 그 마음은 내 마음이 되고 그 생명도 내 생명이 되니 살생

☞ A18면으로 계속

종교인 과세 신고대행 안내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매월 받는 월급(보시금)에서 일정부분 세금 납부하고 (원천징수)
1년 동안 세금 납부 한게 많은지 적은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1년동안 개인별로 무슨 월급을 받았는지, 연말정산 어떻게 했고,
세금 신고 한 거랑 연말정산 한 거 맞는지 확인 (지급명세서) 하는 절차입니다.

저희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에서는
종교인과세관련 신고대행 업무를 실시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하며,
6월 20일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대행시 필요서류

1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사본(국세청 세무대리 수임 동의에 필요합니다)
3 급여내역 : 월 기본급 및 종교활동비
※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 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을 의미함. (예) 종무회의에서 의결승인된 종교활동비.
■ 연락처 : 전 화 / 팩 스 / 핸드폰 / 이메일

서류 제출 방법

1 우편 접수 : (우)47715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2 팩스 접수 : 051-955-2129
3 이메일접수 : parkwooky@naver.com
※ 전화상담 : **051-996-0308** 박성욱 세무사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우주 생명 光(빛)의 기둥을 가슴에 세워드립니다!

자신이 직접 수행이나 기도, 명상, 참선중에 눈 앞에서
다양한 영적인 빛 기둥의 가피를 보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기도문과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한 자신만의 빛의 체험)

1 업장소멸, 한과 집착, 끝없는 고통의 소멸을 몸으로 체험(몸의 환골탈퇴) 눈물, 기침, 트림, 하품, 진동, 전율, 코물, 구역질, 담음, 빛의 변화, 몸, 마음, 영혼의 진동 주파수의 변화를 통한 삶의 대전환
2 인간의 3가지 고통 (1) 인간관계 (2) 금전의고통 (3) 몸의 질병의 고통 해결 기도문과 기도법제시
3 영적인 질환, 빙의, 영가장애, 무속병 원인없는 질병, 그 자리에서 확인
4 돈, 사업, 이혼, 사별, 별거, 자식, 취업 등의 마음상처치유 기도문
5 내몸에 잠자는 영혼을 깨워 마음, 몸을 쓰는 원리수행
6 가슴이 열리지 않아 수행에 진전이 없는 모든분(수십년기도하신분)
7 **의통(심의과정)업장소멸후 의로움으로 재산환원 하실분** (심의대학 설립에 필요한 기금조성, 몸, 마음, 영혼을치유하는 의사 양성)
8 **상단전(지성) + 중단전(감성) + 영성(단전) = 깨달음의 경지 수행**

매월 3주, 4주 토요일 2시에
공개유료강연회 (10명에 한함 2만)
업장소멸, 고통소멸 원리, 가슴이 변해야
고통에서 행복으로 나아간다.
(강연후 체험 빛의 기둥)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266-8
043-296-5258 010-9242-5259
자각선원 (부설 뇌파 마음수련원) **자각선원장 자각 합장**

힐링 에너지가 아주 좋은 명당터 인도합니다

산 수 배산임수(背山臨水), 전저후고(前低後高) 장풍득수(藏風得水), 남 동 향(南 東 向)

입 지 양지 바르고 아늑하며 앞이 탁 터져 있고 일조량이 적당하며 통풍이 잘 되고 주위 사방에 호위하는 산들로 싸여 있으며 산맥이 평지 쪽으로 유유히 뻗어 내려 있다. 500여평씩 4~5m의 단차를 두고 둘로 나뉘어 있으며 심한 가문에도 마르지 않는 지하수가 항상 나옴

접근성 서울 요금소에서 1시간 20분 (평일 기준) : 고속도로 104km, 자동차전용도로 7.5km, 마을길 2.5km로 최고의 접근성. 휴일에도 보통 1시간반 ~ 2시간 소요

용 도 힐링센터, 기도도량, 기도원, 암자, 요양원 등으로 최상의 요지

양도조건 980여평, 1필지, 관리지역, 건물 없음. 4억원

연락처 **010-2723-3278**

터 중심에서 아주 강한 치유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코드를 스캔하면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 아는 분만 연락하세요.

믿는다 하는 거는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진짜로 믿어야!

☞ A17면에서 계속

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게 바로 한 찰나에, 입에다 넣고 씹어서 넘기는 찰나에 벌써 그 무명은 벗겨지죠. 사람으로 화하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한 찰나에 바로 무명을 벗고 화현을 하니까요.

질문자3(남) 저는 좁은 소견에, 의식이 딴 데로 떠났는데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고기 한 점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도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주관에 대해서 큰스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으며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과학적인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마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르침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그거는 마음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마음에 따라서 작을 수도 있고, 우리 이 몸뚱이 하나가 우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몸뚱이 안 오장육부 속에 요만한 벼룩 한 마리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벼룩에게는 얼마나 그 덩어리가 크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지금 벼룩과 같다면 그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물질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우주의 마음이나 우주 속에 들어 있는 별성들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모두가 마음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거를 생산해 내고 또 들이고 또 생산해 내고 또 들이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생산을 할 때 셋 넷을 생산하고, 거두어들일 때 또 싹 거두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우주가 모두 생산이 되고 작용을 하고 살죠. 한 치도 빈틈없이 한 치도 쉬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쉬지 않고 숨을 쉬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을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음이 크고 작다 이러는 것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전부 마음이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고 옹졸한 분도 있고 여러 분이 많죠. 그거를 보신다면 우주의 그 생산처도 모두가 컸다가 줄었다가, 줄었다가 생산해 내고 또 커지고 또 끌어들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그 작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주가 이만하다고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이게 한 순간에 또 작아지고 또 여러 개가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걸 말로 크다 작다 하겠습니까? 우주도 한두 개가 아닌데. 허허허….

질문자3(남)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스님 예.

질문자4(남) 우선 큰스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가르침을 제 생애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기쁨과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스님의 말씀 끝까지 잘 실행에 옮겨서 저 또한 스님처럼 수많은 대중들에게 진정으로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큰스님 그렇게 행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자4(남) 예.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원에 처음 인연이 닿게 됐을 당시에는, 솔직히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큰스님의 덕을 입어 보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 자신의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 자신의 주변에 국한된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진정으로 불법을 배워서 성불을 해서 대자유인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잘 써서 대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입은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스님 알았어요.

질문자4(남) 그리고 제가 공식 석상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기를 상당히 꺼려하는데 오늘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이 신경적인 문제 때문에 한 문턱을 못 넘어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뭐냐 하면 주인공에 관하려고만 하면 제 팔 속에 있는 신경이 막 떨리고 굉장히 불안해져서 주인공에 관할 수가 없습니다.

큰스님 어디서 살아요?

질문자4(남) 저는 지금 현재 서울 봉천동에서 신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큰스님 자꾸 사찰에 나와서 책도 보시고, 또 청년들 틈에서 공부도 하세요. 그 떨리는 마음도 거기서 나오는 거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죠?

질문자4(남) 근데 제가 선원을 알게 된 지가 4년이 됐지만 그동안 시간적인 강박 관념 때문에 뜸하게 나왔는데 팔 속에 있는 신경이 관하려고만 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불안해져서….

큰스님 예민해지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고 예민하지 않게 나오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것 거기다 맡길 줄 알아야 해요.

질문자4(남) 그런데 맡기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큰스님 그런 거는 거기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할 때 스님네들한테 물으세요.

질문자5(여)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들을 과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딪치는 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마음으로 잘 타일러 주고 싶어도 제가 너무 부족해서 한 번도 아이들한테 제대로 그렇게 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혼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몰라서 스님께 여쭙니다. 제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들과 지내는 것이 좀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큰스님 강단에 설 때는 반드시 '주인공! 네가 저 아이들을 잘 이끌어 줘야 하잖아!' 하고서 모든 것을 거기다 맡기고 움죽거려요. 그렇게 믿어야 해요. 당신 껍데기가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질문자5(여)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때문에 집에 오면서 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맡기는데도 행동을 바로 해야 될 때는 마음이 많이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큰스님 지금 어디서 살아요?

질문자5(여) 서울 독산동에서 삽니다.

큰스님 그럼 안양에 와서 스님네들한테 물어서 잘 배우도록 해요.

질문자6(여) 큰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먼저 큰아들 혼사 때에도 스님께 여쭤 보고 주인공한테 맡겨서 자부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 있거든요. 근데 4, 5년씩 사귀다가 우연히 요새 두 남매가 다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게 됐어요. 항상 저는 '이렇게 오래 끄는 것도 주인공, 되는 것도 주인공, 안 되는 것도 주인공이지.' 했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큰스님 '되게 이끌어 주는 것은 너밖에 없잖아!' 하고 하는 것이지요. 허허! 그것은 사람의 차원에 따라서 스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고, 또 스님들 아니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지만, 그거는 댁에서 이렇게도 아니고 저렇게도 아니고, 그럼 그 가운데 누가 그럭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되게 하는 건 주인공밖에 없잖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질문자6(여) 그거는 그렇게 하는 중인데, 요새 우리 바깥양반이 무릎 안 힘줄이 땅겨서 다리를 못 씁니다.

큰스님 그것도 그러시고요.

질문자6(여) 이래저래 해서 큰스님께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큰스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본인한테 관하는 걸 일러 주세요.

질문자6(여) 감사합니다.

질문자7(남) 작년부터 여기 와서 스님 설법 들으면서 마음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님 때문에 여러 번 친견도 하고 그랬는데 차도도 없고, 그냥 '네가 진짜로 있다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식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도 주인공한테 '아침에 식사 몇 숟갈 드신 것 제발 토하지 않고 그냥 그거라도 소화가 되게끔 해 달라.' 하고 '네가 진짜로 있다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큰스님 그런데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생각을 해 봐도 더 잘 알 거야.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믿지들을 않아. 진짜로! 믿는다는 사람들을 모두 가만히 보면 가짜야. 가짜가 많아.

질문자7(남)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큰스님 나한테 왔다 가서도…, 한번 생각해 봐. 아들이 돼 가지고도 아마 한 반도 잘 모를 거야. 하지만 그 마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 그런데 닿지 않아. 진짜로 믿는다 하는 거는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진짜로 믿어야 그 가운데 해결을 보는 거야. 내가 꼭 살아야겠으니까 이름으로 부르는 거, 그것이 아니야. 그리고 또 이름이나 진짜로 믿고 그렇게 100% 하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었어. 나는 이렇게 진짜로 하라고 이를 뿐이지 죽고 사는 거를 내가 대신 해 줄 순 없잖아. 아버지가 그렇다면 아들이 그걸 재료로 삼고 열심히 하되, 돌아가시든 안 돌아가시든 그걸 떠나야 돼. 그런데 앞서에도…, 이거는 내가 말할 게 아니지. 하여튼 자신들이 모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믿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알 거야, 엄마나 아버지가 말이야. 좀 뭐라도 뜨뜻하게 입고 오지 그랬어, 추운데….

질문자8(여)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둘째 자식이 콩팥이 둘 다 없어서 병원에서 피를 거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큰스님 콩팥이 없어요?

질문자8(여) 예. 둘 다 없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피를 거르거든요.

큰스님 콩팥을 두 개 얻다 떼어 버렸어요?

질문자8(여) 혈압 이상이 오래 돼서 녹았답니다.

큰스님 하여튼 열심히 관해 주세요. 본인한테도 관하게 해야만 되겠지만 엄마가 열심히 관해 주세요. 저런 나무뿌리가, 엄마의 뿌리나 자식의 뿌리나 똑같듯이 주인공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아들이 편안하게 지내게끔 할 수 있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관해 주세요.

다 됐습니까? 그런데 진짜 공부에 대해 질문할 분들은 평상시 이렇게 모일 때 하지 이런 때는 안 하는군요. 허허허…. 하여튼, 여러분!

대중 예!

큰스님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을 잘 인도를 해 주십시오. 관하는 법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병고가 닥쳤을 때 관해야 할 일이 있고 애고가 닥쳤을 때 관해야 할 일이 있고, 관해야 할 일이 닥치는 대로 너무 다르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똑바로 좀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이러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번연히 '이렇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내 마음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 믿고 그렇게 하라' 하면요, 꼭 가만히 보면 딴 짓 하고 있거든요. 허허허…. 뭐, 야릇하게 딴 짓을 해요. 나중에 그게 나왔다가도 좀 저거 하면 딴 짓을 해 가지고선 더 죽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관하는데도 안 낫는다' 그러는 겁니다.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그러니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관하는 거를 똑바로 좀 일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콧방귀 탕 뀌면 탕 뀌는 대로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수소 폭탄이나 무슨 어떠한 폭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폭탄이 있기 이전이 있어요.

※위 법문은 1994년 6월 19일 광명선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불교 언론 '통일 보도' 준비해야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4.27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통일 · 평화 갈구 뉴스 소비 많아
현안 파악보다 담론 확대 '집착'

진정한 통일, 내 · 외적 통일로 완성
정권따라 달라지는 보도 지양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위한 뉴스 있어야

佛法 바탕 '통일 언론' 불교 의무
'내적 통일'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 방울의 물방울들이 모여 강의 물줄기를 이루고 결국에는 바다에 이르러 하나가 되듯이 통일의 과정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을까. 통일은 △통일 준비기 △통일 국면 △통일 이후시기로 구분되는 장기적 프로세스다. 진정한 통일은 외적 통일과 내적 통일로 완성되는데, 체제적 통일이 외적 통일이라면, 내적 통일은 의식의 통일이다. 즉 마음의 통일이다.

4 · 27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통일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통일 관련 보도가 언론을 통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위협에서 촉발되어 극단으로 치닫는가 싶던 북미간 갈등국면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면서 북핵문제가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주요 이슈로 다시 부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정치 · 외교적 조치와 결정들의 드라마틱한 면모는 민족통일과 평화를 갈구하는 뉴스소비자들의 주목도를 담보하기에 충분한 뉴스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에게 통일은 민족의 소명으로서, 주어진 시대적 기회를 잡아내는 지혜 또한 우리 민족의 몫임에 틀림없다. 통일이 남북한 정상 간의 합의나 우리 민족의 의지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조와 합의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은 굳이 독일통일의 경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론의 보도양태를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이 될 듯 비쳐진다. 언론이 북핵 현안의 본질보다는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면서, 통일 과정에서 언론이 지향해야할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언론은 통일 과정에서 사회통합에 기여하여야 한다. 특정 성향만을 대변하는 정파적 태도를 버림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장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언론의 통일 보도에 대한 한 연구결과를 보면 언론의 보도태도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은 정부 통일 정책에 대한 객관적 비판을 통하여 권력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통일의 전제조건인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견인하여야 한다.

둘째, 언론은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여야 한다. 남북 분단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남북주민 간의 이념적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서와 심리적 요인에서 오는 각종 차이를 극복하는 일은 통일 이후 우리에게 닥칠 문제이다. 언론은 체제 및 수뇌부 보도 일변도 경향을 탈피하여 북한 주민의 생활상, 인권문제 등 보도 분야를 경제 · 문화 · 사회 · 예술 · 종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고,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질성 회복을 위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 정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이슈화하여 통일 이후 겪게 될 각종 이질감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통일 보도는 낱낱의 물방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강줄기를 따라 도는 거대한 물결의 흐름에 주목하는 장기적인 안목과 관점으로 다뤄져야 한다.

불교 언론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평화적 여론을 형성하고, 남북 신뢰를 구축하며, 국민통합 및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불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외적 통일뿐만 아니라 진정한 내적 통일, 즉 남북 주민의 마음의 통일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통일언론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여야 한다. 부처님께서 최고의 덕목으로 설하신 화합이야 말로 통일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社說

군불교 진흥, 불교 미래 초석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승 파송 50주년을 맞아 미래불교 비전을 새롭게 밝혔다. 젊은 세대에 맞는 포교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각종 의식과 제도를 가다듬는 것이다.

군승들의 위상 강화와 전법사로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설법대회 등 다양한 기회도 제공된다. 또 불자 장병들이 전역 후 신행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군종병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수행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야전에서의 의식 집행을 위한 복제 또한 새롭게 제작하기로 했다.

한국불교는 위기에 빠져 있다. 불자 인구 300만 명 감소는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불자수 감소 국면 속에 희망을 주는 곳이 있다. 바로 군포교 현장이다. 130여 군승들은 10만 군불자들을 위해 오늘도 앞장서고 있다. 전국 수계장병 불자는 매년 10만 명 이상을 상회하는 등 군불교 미래는 밝다.

군내 종교인구 감소 국면 속에서 군불자는 소폭이나마 늘고 있다. 교세 회복의 희망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위기 속에 군불교 활성화에 불교 미래까지 달려 있는 것이다.

군승 파송이 이뤄진 1968년에는 베트남 전쟁의 포화 속에 굶주리고 가난했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있었다. 이들은 국위선양과 함께 전쟁에 내던져진 군장병들을 진영에서 위로하고 또 함께 싸웠다.

군승 파송 5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불교는 달라져야 한다. 군종특별교구가 제시했듯, 젊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전법을 위한 시스템을 가다듬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서 함께 이뤄질 때 불교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여론 절실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노력이 최근 들어 동력을 잃었다. 중앙종회 관련 특위가 4월에 열기로 뜻을 모았던 공청회는 차치하고, 공식회의마저 3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오는 10월 열릴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얼마 못가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대중의 예견이 맞아떨어진 모양새다.

총무원장 선거를 비롯해 교구본사주지 선거, 중앙종회의원 선거 등 조계종 선거법에 대한 대중의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십수 년 전부터 금권선거 · 야합정치라는 오명이 꼬리표처럼 따라왔으며, 이로 인한 징계사례 또한 줄을 이었다. 선거 때마다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도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비쳤다.

이 같은 문제는 조계종 현행 선거형태인 간선제로 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 선거의 경우 321명이라는 소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대중공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았다. 이 때문에 직선제나 확대간선제 등의 다른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선거제를 악용하는 개개인의 문제라는 주장 등이 오랫동안 대립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종단차원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실상 이제 공은 제17대 중앙종회로 넘어갔다. 16대 중앙종회가 논의한 내용을 차기 중앙종회가 다시 다룰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의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선 대중의 여론이 필요하다. 종도의 목소리가 모여 종단을 경책하는 준엄한 죽비로 표현되길 고대한다.



기자칼럼
박진형 취재부 기자

종교시설 투표소, 과연 필요한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종교시설 내 투표소가 부활했다. 이번 지방선거 종교시설 투표소는 총 5곳으로 △전남 보성군 M교회 △서울 동작구 D교회 △경기 안양시 Y교회 △충북 청주시 C교회와 S교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또다시 선거일에 선교활동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종교시설 투표소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꾸준히 설치되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과거 종교시설 투표소는 2007년 대선에 1194곳, 2008년 총선에 849곳,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399곳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게다가 종교시설 투표소 90% 이상이 교회에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2008년에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던 지관스님이 교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를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문제는 단순히 투표소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되는 것을 넘어 선교활동이 잇달아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점이다. 2008년 서울시 투표소 중 한 곳이었던 S교회는 투표하러 온 유권자들에게 커피와 차를 제공하면서 교회 홍보물을 탁자에 올려둬 빈축을 샀다. 2012년 서울시 강동구 C교회는 종교 상징물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등의 문구를 방치했고, 관악구 C성당 역시 다목적실에서 십자가를 가리지 않고 투표소를 운영하다 시민 제보로 뒤늦게 가렸다. 이렇듯 무분별한 선교행위 때문에 종교시설 투표소는 늘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논란은 2010년 1월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사그라지는 듯했지만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아쉬움을 남겼다.

물론 투표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들의 입장도 일견 납득은 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관계자는 이번 종교시설 투표소와 관련해 "지방선거는 투표소가 많아야 하고, 큰 공간도 있어야 한다. 주민 접근성이나 거리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각 종교시설 투표소들이 지하주차장을 갖추거나 공공기관서 협조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애당초 법 조항에서 단서조항을 달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 일이다. 결국 '부득이한 경우'라는 모호한 표현이 공직자들의 종교중립 의무를 해치는 결과를 낳은 셈이기도 하다. 단서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종교중립을 지키지 않은 투표소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뒤따라야 대중으로부터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종교시설 투표소 '0'이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노력으로 일궈낸 이 기록은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2017년 대선에서 무너져버렸다.

자자(自恣)와 포살(布薩)은 승가의 대표적인 미덕이다. 계율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반성하고 죄를 지었으면 참회하는 자자와 이를 정기적으로 모여 하도록 의례화한 포살이 과연 불교계에만 필요한 것인지 모두가 고민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황금룡을 집안으로

황룡나한과 복호나한

황룡나한은 용위에 큰복을 실어다 줄 것이며
복호나한은 악귀를 물러치고 삼재를 소멸하여 들어온 복을 지켜 줄 것입니다.

나한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리며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황룡나한은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하며, 황금룡을 타고 다니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해 주신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치며 삼재을 소멸하여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어 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8명의 나한들에게 부탁 하시기를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줄것을 당부 하였으니 16명의 나한들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설파하고 황룡나한과 복호나한은 거처를 정하지 않고 세상을 두루 돌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하고 악을 몰아내며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고 있다.





- 족자 크기 : 세로 120cm × 가로 54 cm
  족자 1개 금액 : 10만원
  족자 2벌 구입시 19만원에 드립니다.
- 그림 크기 : 세로 67cm × 가로 44 cm
  금액 : 그림당 7만원
- 구 입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18나한 설명서 를 보내드립니다.

홈페이지 www.maumtour.com 문의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조계종 승려연수교육과정 인증프로그램
인증번호 : 대불교연인 2018-030호

2018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특별법문

접수마감 ※ 선착순 모집
6월 30일 까지

법회일정 2018년 9월 4일 ~ 9월 7일(4일간)
법회장소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주 관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 역경원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8월 28일(화) ~ 9월 9일(일)
A팀 달라이라마 법문 & 스리랑카 순례 13일
35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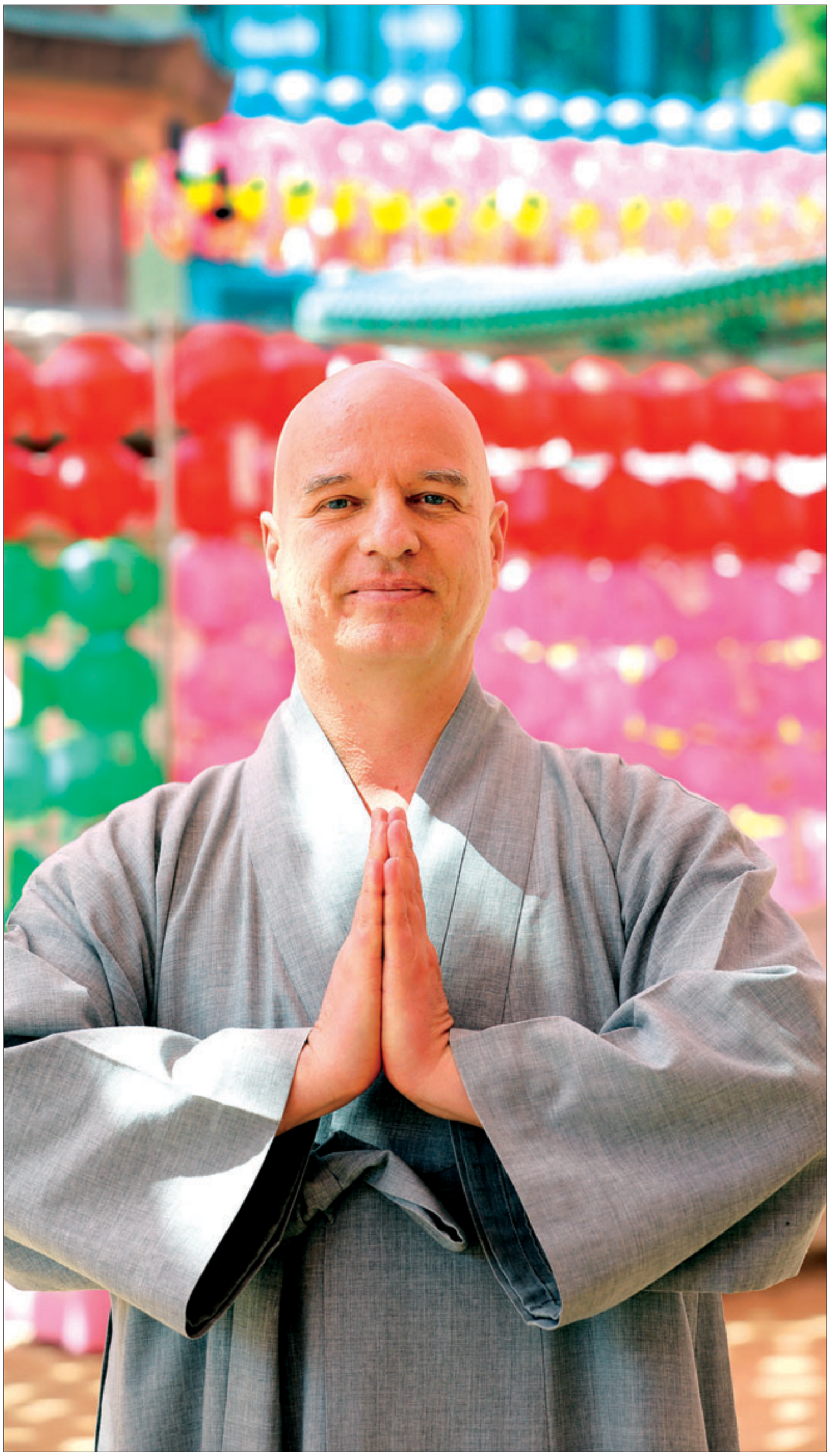
8월 28일(화) ~ 9월 9일(일)
B팀 달라이라마 법문 & 부탄 성지순례 13일
41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9월 02일(일) ~ 9월 9일(일)
C팀 불교란 무엇인가? 달라이라마 법문 8일
19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8월 27일(월) ~ 9월 9일(일)
D팀 달라이라마 법문 & 인도 성지순례 14일
29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禪에서 '답' 찾은 헝가리 선재



청안 스님은… 헝가리에서 태어났다. 1990년 헝가리에서 숭산 스님의 참선법회에 참가한 후 선수행을 시작했으며, 1994년 한국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2000년까지 한국 화계사에서 수행했으며, 1999년 숭산 스님으로부터 지도법사 인가를 받았다. 2000년 헝가리로 돌아가 2010년 한국식 전통사찰 원광사를 열고 선수행과 지도, 전법의 길을 열고 있다. 저서로는 법문집 〈꽃과 벌(The flowers and the Bee 2007)〉 〈마음 거울(Mind Mirror 2009)〉 〈청안 스님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How may I help you 2011)〉가 있다. 2009년 제7회 대원상 승가 부문 대상을 혜총 스님과 함께 공동수상했다.

INSIDE

B4 책세상 〈탄허대선사 시봉이야기〉

B5 문화 '금융 일섭–근대 부처를 만들다'

B6 학술 · 문화재 〈열반경 연구〉 한국어판 출간 '눈길'

산문 밖의 禪

청안 스님

(52 · 헝가리 원광사 주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법 찾아 헝가리서 한국으로

헝가리서 숭산 스님 첫 친견

한국선불교 알게 되고 禪 입문

〈예불문〉〈반야심경〉듣고 감명

숭산 스님의 '십문관' 에 매료

세 번 발심 후 한국서 출가

1995년~2000년 화계사서 수행

1999년 숭산스님 지도법사 인가

부처님이 법을 남긴 후, 법은 시 · 공간적으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광범위한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불법(佛法)에 다가가기 위한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모색이 전개됐다. 법은 하나였지만 길은 수없이 많았다. 그것은 사자상승의 쉼 없는 구법과 전법이 거듭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에 있어서도 쉼 없는 구법과 전법의 사자상승이 이어져왔다. 그 사자상승 중에는 멀리 헝가리에서 온 푸른 눈의 청년도 있었다. 한국 간화선의 세계화에 앞장섰던 숭산 스님을 통해 불법(佛法)을 만나고, 헝가리에 한국의 선불교를 심고 있는 헝가리 스님, 청안 스님이다.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 옛날, 달마가 동쪽으로 갔던 것처럼 한국선불교를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먼 길을 오가며 한국의 간화선 알리기에 애를 쓰신 스님이 있다. 2004년 입적하신 화계사 前 조실 숭산 스님이다. 세계 4대 생불로 불렸던 숭산 스님은 1966년 일본 홍법원 개원을 시작으로 2004년 원적에 들 때까지 세계 30여 개국에 120여 곳의 홍법원을 개설하고 5만여 명의 눈 푸른 제자들에게 법을 전했다. 청안 스님은 그 5만여 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안 스님은 청년기 시절부터 세상과 인간의 삶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다. 세상은 무엇이며 인간은 또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왜 왔으며 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등 푸른 눈의 청년은 세상과 인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었다. 하지만 답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세상과 인간을 정리하고 정의한 사상과 철학은 넘치고 넘쳤지만 파도처럼 일렁이기 시작한 청년의 가슴은 고요해지지 않았다. 청안 스님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의문들을 나누며 쉼 없이 답을 찾고 있었다. 청안 스님과 그들은 유럽의 사상과 철학을 넘어 동양의 사상과 철학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20대 초반 청안 스님은 친구들과 함께 요가와 티베트불교에도 문을 두드렸다.

"티베트불교에서 부처님의 법을 보았고, 처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물론 티베트불교에도 길은 있었지만 제가 찾고 있는 길을 열어주지는 못했어요. 티베트불교에는 공안과 선문답이 없었어요."

청안 스님이 스물네 살 때였던 1990년, 청안 스님은 먼 나라 한국에서 온 숭산 스님을 보게 된다. 숭산 스님의 두 번째 헝가리 참선법회였다. 청안 스님의 귀의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길을 찾다 '숭산'

1990년 9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일화' 를 서원하며 한국불교의 간화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었던 숭산 스님의 두 번째 헝가리 참선법회가 열렸다. 친구들로부터 숭산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청안 스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법회에 참석했다. 한국불교의 선(善)과 숭산 스님의 수행가풍을 알게 된 청안 스님은 무릎을 쳤다. 마침내 길을 찾은 것이다.

"〈예불문〉과 〈반야심경〉 그리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처음 듣는데,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 해 12월 초 헝가리에서 다시 숭산 스님의 참선법회가 열렸고, 청안 스님은 주말 수행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참여한다.

"처음이었어요. 그런 경험은. 망상을 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품었던 의문들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청안 스님은 '숭산' 이라는 이름과 한국불교의 간화선을 만나면서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1991년 4월, 또 한 번 숭산 스님의 참선법회에 참석한 청안 스님은 숭산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숭산 스님을 정확히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다.

"나도 선(禪)을 통해 공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숭산' 이라는 이름을 태양으로 선택하면, 숭산의 위성으로서 나의 궤도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안 스님은 그것을 '직관의 의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때, 스님은 '직관' 에 의한 소통을 경험했다고 했다. 그 '직관' 은 의문들로 가득했던 청안 스님을 다른 세계와 언어로 확장시켰다. 품었던 의문들을 풀기 위해 그 동안 언어와 논리에만 기대왔던 청안 스님이었다. 언어와 논리 너머에도 소통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처음 알게 된 '숭산' 이라는 이름과 내가 하나의 길에 묶여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오래 전부터 시작된 인연이라는 생각을 일으켰고요. 그냥 설명 없이 일어난 생각이고, 찰나에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느낌이었어요."

청안 스님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 지나간 생에서 숭산 스님과의 인연이 있었을 것이다"면서 지금의 인연은 다하지 못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찰나에 납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그는 스승을 만나고 길을 찾았다.

출가

청안 스님은 1995년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가한다. 청안 스님은 숭산 스님을 만나고 난 후 세 번의 출가발심이 있었다.

처음은 스님이 대학을 졸업하던 1992년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중고등학교에서 실습 과정을 하고 있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숭산 스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생각이 더 많고 깊어진 청안 스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법의를 입고 법석에 앉은 숭산 스님의 모습이 자주 떠올랐다. 그리고 숭산 스님처럼 머리를 깎고 법의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B2면에 계속

“헝가리에 한국 禪 전하고 있어요”



청안 스님은 1999년 숭산 스님으로부터 지도법사 인가를 받았다.





헝가리 원광사 선방내부(위), 헝가리 신도들과 함께(아래).



2010년 문을 연 헝가리 원광사 전경.

‘청안 스님’

B1면에서 계속

두 번째는 1993년 숭산 스님을 따라 미국 프로비던스 선센터에서 동안거를 나던 중이었다. 법회 때였다. 법의를 입은 스님들과 재가 수행불자들이 줄을 맞춰 서있었다. 청안 스님의 눈에는 스님들의 모습만이 눈에 들어왔다.

“나도 저 스님들 속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었어요. 아! 나도 스님 되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해인 1994년이었다. 두 번째 발심이 있었던 미국에서의 법회 모습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스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거야.”

청안 스님은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그리고 스님은 1995년 해인사에서 출가한다. 사미계를 받고 난 후 청안 스님은 2000년까지 숭산 스님이 계신 서울 화계사에서 수행한다. 1996년에는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받았고, 1999년에는 숭산 스님으로부터 지도법사 인가를 받는다. 헝가리인으로서는 처음이었다.

수행… ‘숭산’에서 시작되다

“한국불교와 한국간화선을 공부하기 위해선 비구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숭산 스님의 공부법이 좋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출가했고 숭산 스님 밑에서 공부했어요.”

청안 스님은 처음부터 ‘숭산’이었다. 숭산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 아기가 처음 보고 처음 듣는 엄마의 모습과 말(言)에서부터 삶을 시작하듯 청안 스님은 삶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삶, 즉 삶에 대한 근본적 물음들을 품고 시작한 또 다른 삶을 ‘숭산’으로부터 시작한다. ‘숭산’은 ‘청안’의 ‘첫’ 언어였다.

“숭산 스님의 공부법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마음에 분명하게 와 닿았어요. 숭산 스님의 공부법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앞서 말했듯이 숭산 스님은 당시 세계 각국에 한국의 간화선을 널리 알리고 있었다. 숭산 스님의 수행법에 대한 성과는 앞서 말한 산술적인 수치만으로도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숭산 스님의 간화선 수행체계인 일명 ‘십문관’은 전에 없던 공부법으로, 산술적 수치로 따져 물을 수 없는 ‘성과’이면서 한국불교의 커다란 불사로 평가된 업적이다.

쉬운 공안(1단계)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공안의 근기를 높여 최종 단계(10단계)에 이르는 수행법인 ‘십문관’은 출가자는 물론 재가불자들에게도 적합한 수행법으로 회자되며 한국간화선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이끌었다.

“공안엔 역설이 많아요. 일반적인 생각과 언어로는 이해할 수도 넘어설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숭산 스님의 공부는 그 역설과 소통할 수 있는 직관의 근기를 단계적으로 높여준다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공안타파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죠. 그래서 ‘공부’이고요. 그 공부는 문자나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자나 말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지요. 숭산 스님의 공부법에 그 답이 있어요.”

청안 스님은 2000년까지, 6년 동안 화계사에서 수행했다.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다. 출가란 삶을 바꾸는 일이다. 그 삶은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숭산 스님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쉬울 수만은 없었다. 더구나 언어로 해결할 수 없는 간화선을 두 번 세 번 번역된 언어(영어)로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무릎을 꺾고 앉아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생각’들을 부수는 일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단한 일이었다.

“물론 공부란 쉽지 않죠. 이 세상의 모든 공부가 쉽지 않죠. 더구나 생각을 부수고 언어를 넘어서는 공부가 쉬울 수 없죠.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이 했어요. 언어와 문자는 여러 가지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에요. 가는 길이 여러 가지일 뿐이죠. 가다보면 결국 하나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공부에 장애란 없었어요. 무릎을 꺾고 앉는 일도 그랬어요. 고단한 마음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확신이 힘든 육체를 잊게 했죠.”

그렇게 헝가리 청년은 먼 나라를 찾아와 힘든 길을 시작했다. 아니 찾아낸 길을 묵묵히 걸었다.

본래 자리 헝가리서 전법

2000년 고향 헝가리 행

헝가리 최초의 한국사찰 불사

2010년 원광사 열고 수행지도

“수행엔 ‘끝’ 없어요. 계속해야”

숭산스님 수행체계 그대로 따라

헝가리에 한국 간화선 심어

등록된 회원(신도) 1200여 명

2020년 예정, 제2의 불사 시작

헝가리에 심는 한국불교

청안 스님은 2000년 헝가리로 돌아간다. 1999년 8월, 청안 스님은 숭산 스님으로부터 지도법사 인가를 받았다. 그 때 청안 스님은 숭산 스님으로부터 숙제를 받는다.

“한 자리에 3년은 있어야 한다. 꽃처럼 자기가 살아야 할 땅을 찾아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제는 너만의 공부가 아닌 중생과 함께 하는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그 자리를 찾아가거라.”

청안 스님은 고민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은 ‘헝가리’였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내가 나고 자란 곳이고, 떠나온 곳이기도 하죠.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뿌리 내릴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숭산 스님이 헝가리에서 법회를 열지 못하셨어요. 헝가리 사람들은 숭산 스님의 육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죠. 그래서 헝가리에 한국불교, 한국선, 숭산 스님의 가르침 전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죠.”

헝가리로 돌아간 청안 스님은 헝가리를 비롯해 미국 등을 돌며 선(禪)을 알리고 지도했다. 하지만 스님은 늘 아쉬웠다. 자연 속에 있는 한국의 도량과 선방이 늘 그리웠다. 청안 스님은 한국에서 보았던, 한국에서 자신이 살았던 한국식 사찰을 짓기로 발원한다. 2004년 9월 부다페스트에 60km 떨어진 필리스산에 터를 정하고, 2005년부터 불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4월 문을 연다. 헝가리 원광사다. 헝가리 최초의 한국식 전통사찰이다.

불사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다. 더구나 한국식 사찰을 짓는 것이었다. 청안 스님은 한국에서 배운 부처님법대로 했다. 기도하고 수행했다. 인연은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올바른 마음을 품고 한 가지 생각으로 발원한다면 언젠가 인연은 만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헝가리 원광사는 그렇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청안 스님은 헝가리에 한국의 선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유럽 사람들의 생각은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죠. 처음부터 숭산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숭산 스님이 있기까지를 이야기해야 숭산 스님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부처님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용수보살, 달마대사, 육조, 경허, 만공까지 이야기를 해야 했죠. 한국불교와 한국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선 전법의 대상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의 정서와 문화에 맞는 전법 시스템을 개발해야 효과적인 전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헝가리 원광사는 유럽 최초의 한국식 사찰로서 숭산 스님의 본찰인 덕숭총림 수덕사의 말사이다. 다양한 종교와 연령의 참가자들이 한국 전통의 선(禪)과 서양의 수행방식을 접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수행공간이다. 원광사는 동안거와 하안거 등 사찰에 거주하는 스님과 재가자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장·단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원광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에서 사찰의 일정과 법문, 활동사진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헝가리 원광사에 등록된 회원(신도)은 1200여 명에 이른다. 그렇게 ‘청안’이라는 꽃은 헝가리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있다. 이제 원광사의 선방은 좁아졌다. 청안 스님은 내년 봄부터 다시 불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0년 점안식을 예정으로 또 하나의 불사를 시작한다.

“수행은 계속해야 해요. 휴대폰을 충전해야하는 것처럼 수행도 계속해야 해요. ‘끝’ 없어요.”

헝가리에서 전법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청안 스님은 “전법은 자신의 쉼 없는 수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법을 찾아 한국을 찾아왔던 맑고 푸른 눈의 헝가리 청년, 그는 헝가리로 돌아갔다. 언젠가 헝가리에서 ‘청안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수행과 전법이 하나라고 이야기 하는 청안 스님의 ‘상구보리 하화중생’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 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❶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❷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❸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❹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 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연꽃 풍경

1) 황금컬러
2) 무늬
3) 민무늬 3종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

‘동산법문’은 도신과 홍인의 역사적 장면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⑩ 도신의 선법과 일행삼매



그림 · 강병호

도신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보이는 곳은 〈송고승전(續高僧傳)〉이고, 그 외도 〈정법보기(傳法寶記)〉, 〈역대법보기(曆代法寶記)〉, 〈전등록(傳燈錄)〉 등에서 그에 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4조 도신은 중국 선종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로서, 중국선종의 진정한 창시자라고 하기도 한다. 농선병중(農禪竝重)을 주장했고 두타행을 이어오던 초기 승단을 안정된 주거로 전향하는 체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동시에 5조 홍인과 함께 ‘동산법문(東山法門)’을 창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도신에 대한 고사도 많이 전해지고 있다. 사미인 도신이 승찬 대사를 처음 참알하고 말하기를 “화상께서는 자비로서, 해탈법문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고 하자, 승찬 대사가 “누가 너를 속박하느냐?”고 하자, 도신이 대답하기를 “아무도 속박하지 않습니다”고 했다, 승찬 대사가 “(그렇다면)어찌 다시 해탈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자, 도신이 대오를 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이 대화는 〈불설전여신경(佛說轉女身經)〉에도 비슷한 고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리불과 한 여인의 대화에 나오는 이야기와 매우 닮아 있다. 여인이 사리불에게 “존자는 해탈을 얻었는가?”라고 물었고 사리불이 말하기를 “나는 해탈을 얻었다”고 하자, 여인이 말하기를 “누가 존자를 속박했다고, 해탈을 얻었다고 하는가?” 사리불이 말하기를 “속박한 자가 없기에 해탈을 얻었다고 하며, 그리고 그 본성이 해탈상이다. 이런 연고로 나는 해탈을 얻었다고 말 할뿐이다”고 하고 있다.

도신은 승찬으로부터 10여 년 동안 선법을 수행했다고 전해진다. 그 후 그는 남방을 20여 년 동안 유역했는데, 그 시절을 전후로 ‘반야사상’과 ‘천태선관’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점은 ‘동산법문’을 완성하는 데 관건이 되었을 것이다. 반야사상은 양진(兩晉 · 동진과 서진)이래로 남방의 현학과 서로 보안을 이루면서 발전해 오고 있었다. 도신과 반야사상에 대한 한가지의 고사가 전해져 온다. 그가 당시 길주(吉州 · 현재의 강서성 길안)에 있을 때 도적들이 성을 에워싸고 물러가지 않자 도신은 군중들에게 ‘마하반야(摩訶般若)’를 염하기를 권했다. 군중들이 ‘마하반야’를 모두 다 같이 염하자, 도적 무리들이 물러갔다고 한다. 이 고사는 남방에 〈반야경〉이 유행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신은 많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또 40세 때에 점주황매(蘄州黃梅)의 쌍봉산에 돌아왔다. 이때에 그는 달마 이래로 선종 선사들의 두타행 및 무거주의 형태를 탈피하는 안정적인 주거에서 수행하는 체제를 확립했다고 한다. 그가 쌍봉산에 돌아온 후에 크게 법석을 열었는데, 그의 명성을 전해 듣고 많은 학자들이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몰려들었다고 하며, 함께 참학을 하는 자가 5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선종사에서는 이때부터 달마선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한다.

단체생활 등 수행풍토 수정
〈능가경〉 위주 탈피 대승경전 수용
선종의 사상적 체계와 틀 넓혀
〈능가경〉 〈반야경〉의 합일
염불과 성불 · 禪과 戒 합일
5조 홍인과 ‘동산법문’ 완성 창시

또 그는 일찍 제방을 참방하면서 선종의 실태를 파악했다. 그리고 크게 초기 선종의 형태 중에서 세 가지를 고쳤다.

첫 번째는 달마 때부터 이어온 두타행과 무거주의 형태의 수행풍토를 바꾸었다. 고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고 집단적인 단체생활의 체제로 돌입하게 했다. 두 번째는 유일하게 〈능가경〉 위주의 수행지침서를 신봉하던 것을 기타 대승경전을 겸하게 함으로서 선종의 사상적 체계를 풍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상적인 틀을 넓혔다. 세 번째는 오로지 불립문자(不立文字)만을 주장하지 않았다. 즉 도신은 먼저 외부적으로 선종의 주거를 확립해서 집단생활을 통한 승가의 외형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면, 내부적으로는 초기 선종의 사상적 확장 및 체계를 수립했으며, 동시에 문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선종의 지평을 열었다고 하겠다. 이 점은 그가 선종사에 남긴 하나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의 선법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능가경〉과 〈반야경〉의 합일이다. 두 번째는 염불과 성불의 합일이고, 세 번째는 선(禪)과 계(戒)의 합일이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능가경〉과 〈반야경〉의 융합은 ‘동산법문’의 초석을 다지는 〈입도안심요방편(入道安心要方便)〉을 탄생을 시켰으며, 그 후 〈입도안심요방편〉은 ‘동산법문’을 조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또 위의 세 가지의 특징은 도신과 홍인의 ‘동산법문’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했으며, 특히 동산법문은 선종 형성에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楞伽’와 ‘般若’를 결합한 것은 능가사(楞伽師) 계통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게 했으며, 선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도신 이전의 북방에서 달마선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무제(周武帝)의 훼불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대부분 선종의 승려들도 남하를 하게 된다. 도신이 장기적으로 은거하면서 활동했던 지역은 장강 유역의 안휘성 호북성 일대로서, 이 지역은 남북조 시기에 삼론종이 유행을 했던 지역이고, 아울러 천태종 전교의 중심지였다. 때문에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도신은 천태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그가 말하는 ‘일행삼매(一行三昧)’는 입도(入道)의 방편법문으로 천태종이 온힘으로 제창한 것이기도 하다. 또 일행삼매는 〈천태지관〉의 4종삼매 가운데 상주삼매(常坐三昧)라고 하기도 하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일행삼매’와는 연관성이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도신의 ‘일행삼매’의 근본적인 사상적 뿌리는 〈능가경(楞伽經)〉과 〈문수설반야경(文殊說般若經)〉 등이다. 〈역대법보기〉에서 도신의 ‘일행삼매(一行三昧)’에 관해서 말하기를 ‘유심염불(唯心念佛)과 실상염불(實相念佛)을 결합했으며, 〈능가경〉의 여래장불성사상과 〈반야경〉의 반야학설을 융합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혹자는 ‘일행삼매’는 정토사상을 융합한 것으로 선정합류(禪淨合流)사상의 체현이라고 하기도 한다. 사실 선정합류(禪淨合流)의 시조는 동진혜원 스님이라고 할 수 있다. 위진 시대에 반야학설이 유행을 했다면, 남북조시기에 여래장불성사상이 중국 불학에 중요한 지위를 점유하면서 중국불교의 실천수행으로 반본정심(返本淨心)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선종에서 주장하는 ‘명심견성(明心見性)’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듯 일행삼매에 대한 많은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또 도신은 능가사(楞伽師 · 달마계통 선법)의 전통인 안심(安心)법문을 계승하고, 새롭게 안심법문을 개조해서 말하기를 “또한 염불도 아니며, 마음을 잡는 것도 아니며, 마음을 보는 것도 아니며, 마음을 분별하는 것도 아니며, 마음을 사유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관을 행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산란한 것도 아니며, 직관으로(바로) 임운하는 것이다.(亦不念佛, 亦不捉心, 亦不看心, 亦不計心, 亦不思惟, 亦不觀行, 亦不散亂, 直任運.)”고 하였고, 또 “염불하는 마음이 부처이며, 망념은 범부이다.(念佛心是佛, 妄念是凡夫)”고 하였는데, 즉 도신은 염불을 통해서 안심에 도달할 수 있으며, 입도(入道)는 최종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염불은 단지 방편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선종의 청규하면 백장청규와 백장선사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청규의 모태는 4조 도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선종은 당나라 초에 이르러서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작과좌(作與坐)’를 병행하는 것이었다. 〈전법보기(傳法寶紀)〉의 도신조에 의하면, “도신의 구호는 작무에 종사해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고 하고 있다. 즉 ‘능작삼십오년(能作三十五年)’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작(作)’은 ‘작무(作務)’. 혹은 ‘작몰(作沒)’이라고 하며, 일체의 생산노동을 가리킨다. 그의 문하에 집결한 500인들로 하여금 신도의 시주에 의존하지 않고 산야를 개간해서 ‘득일구요기창(得一口療飢瘡)’, 즉 스스로 각자의 의식주를 책임지게 하였다.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이것은 전체 불교사에서 매우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선종은 물론이거니와 불교역사에서 혁명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종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단체가 모여서 노동을 의지해서 생활을 영위했던 것은 맞지만, 사실은 당시 이미 불교에서는 산간을 개간하고 상업 및 무역업에 종사했던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당시에 비교적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것 같다. 동진도안 스님은 12세에 출가를 하였는데 “농가에서 부역한지, 삼년에 이르렀고, 부지런히 노동을 하였다.(驅役田舍, 至於三年, 執勤就勞)”고 하였고, 법현(法顯)은 사미니 때 “항상 동학 수십인과 더불어 농가에서 벼를 베었다.(嘗與同學數十人於田中刈稻)”고 하고 있으며, 요진(姚秦)때 도항(道恒)이 지은 〈석교론 · 釋教論〉의 기록에도 “사미 중에는 혹은 황무지를 개간해서 채소를 심고, 농부와 함께 교류하고, 혹은 장사와 무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었다.(或墾殖田圃, 與農夫齊流, 或商旅博易, 與衆人競利)”고 하였고, “혹은 가축을 기르고 재물을 모으고, 보양해서 나머지가 있다(축적하였다). (或聚畜委積, 養有餘)”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전통 불교와는 상충되는 것이지만, 위의 내용을 축약해 보면 당시의 일부 승려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수행을 병행한 것 같다. 다만 “진실로 마땅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誠非所宜, 事不得)”고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에 종사했던 승려들은 사미니와 하층 승려들의 몫이었다.

그리고 도신에 대한 약간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수나라 개황15년(595)에 황제의 모친이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백약이 무효하였다. 황제는 모친의 병을 낳게 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명령을 내려서 방을 붙이게 했다. “만약에 황제 모친의 병을 고쳐준다면 삼급(三級)에 해당하는 관직을 줄 것이며 상금도 은 만냥(萬兩)을 주겠다”고 했다. 당시 도신은 황제가 내린 방을 보게 되었다. 도신은 곧 본인이 살고 있는 근처의 산에서 오가피, 전삼칠(田三七) 등의 약재를 구해서, 인편으로 성에 보내서 황태후의 병을 낳게 해 주었다. 그 후 황제는 도신을 국사에 봉하려 하자 도신은 모두 거절하였다. 그는 원래대로 수행을 하였고 황궁에도 가지 않고, 큰 상금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황제는 친히 도신에게 대의조사(大醫祖師)라고 봉했다고 한다. 그래서 도신의 별칭을 대의조사라고 하기도 한다.

〈동국대 강사〉



"남북이 대선사 뜻 새겨 화엄세상 열어야"



탄허대선사 시봉이야기

원행 지음/에세이스트 펴냄/2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배고프면 쌀없는 밥을 먹고 목마르면 젖지 않는 물을 마시고 허공 꽃 불사를 짓는다"(탄허 대선사 게송)

저자 원행 스님(월정사 부주지)은 탄허 대선사(사진 위)를 오랜 세월 가장 지근거리에서 시봉했다. 이 책은 대선사의 일상적 수행의 모습을 가감 없이 소박하게 진술함으로써 신도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친근감을 더해 주면서 수행승 이전에 학자이며 선각자로서의 탄허 대선사를 집중 조명한다. 탄허 스님은 44년 전에 이미 예언한 바 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적 국위를 선양할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문화는 다른 모든 국가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라고.

2018년 평창올림픽이 개최된 뒤 놀랍게도 세계인들의 시선은 지금 우리에게 집중돼 있다. 이 평화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은 탄허 대선사가 주석하며 〈화엄경〉 역경 사업에 온 생애를 바친 신령한 땅, 강원도 평창이라는 점도 매우 놀랍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정신적 중심국이 될 것이며,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해 세계의 윤리적 모범이 되리라는 탄허 대선사의 예언은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이미 코앞에 당도해 있다.

4월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에서 악수를 나눈 뒤 나란히 남한 땅을 밟고 또 손잡고 북한 땅으로 한걸음을 내디뎠다. 실시간 방송되는 그 순간을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이 모두 지켜봤다.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그 순간, 이미 통일은 마음속에서 이뤄졌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 원행 스님은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를 우리는 어떻게 선도해갈 것인가에 대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탄허 스님 일생과 사상 등 조명
소박한 수행모습 가감없이 담아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는 이제 탄허 대선사가 일찍이 설하신 통일을 공부할 때라고 말한다. "통일이란 분할되어 있던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 또는 체제나 체계 아래로 결집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얘기지요. 그러나 가만히 세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통일은 거의가 무력에 의한 약육강식의 형태를 띱니다. 화엄의 세계에선 그런 통일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물사물이 중중무진 연기되어 상즉상입하며 원융무애하기에 서로 개체성을 가지면서도 전체로서 조화로운 세계가 화엄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선 모든 존재를 선악, 우열, 미추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세계와 우주는 한덩어리 생명체입니다. 미워서 윽박지르고 나쁘다고 잘라버리고 못났다고 죽여버리는 것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 내 모든 존재를 자기의 확장으로 보는 것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책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제 1장에서 6장까지는 탄허대선사의 예언 및 일화, 인연담 등이 소개된다. 이어 7장은 저자 원행 스님이 2016년부터 강원일보와 도민신문에 게재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 되게 하자는 취지의 국민과 위정자에게 올린 간곡한 청원의 글들이 수록돼 있다. 마지막 8장은 탄허 스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엮어진 대담을 실어 놓았다.

특히 본지 발행인인 대행 선사와의 각별한 인연을 묘사한 제 4장 '한마음 선원 대행 스님과의 인연' 편은 주목을 끈다. 저자 원행 스님은 "탄허대선사와 대행 스님의 인연이 얼마나 각별했냐 하면 큰 스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그 분을 존경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분을 비구니로 보아서는 안되고 사숙으로 불러야 한다고 이르실 정도였다"고 회고한다. 이어 저자 원행 스님은 "탄허 대선사께서는 유무(有無)를 종횡무진 넘나드는 대행 스님의 수행 세계에 탄복하며 사형사제의 지극한 예로서 대했다"고 덧붙였다.

저자 원행 스님은 마지막으로 "역사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씨줄과 날줄로 촘촘히 엮어서 역사를 이룹니다. 과거 없는 현재나 현재 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보는 것이 바로 역사의 인연법입니다. 탄허 대선사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들을 현재와 미래의 큰 경책으로 삼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며, 더불어 이 책은 내 자신에게 던지는 자경입니다"라고 책을 쓴 취지를 밝힌다.

▲저자 **원행 스님**은?

불교 경전과 염불 소리에 이끌려 약관의 나이에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해 한암 스님, 탄허 스님, 만화 스님의 법통을 이어받아 수행 정진했다.

불교종단 분규와 비구 · 대처 불교 분규와 10 · 27 불교법난, 월정사 분규 사태 등으로 몸과 마음을 크게 다쳤다. 오대산의 큰 별, 탄허 스님과 은사 만화 스님이 열반하시자 49재를 모신 다음, 제 2의 출가로 가야산 해인사로 가서 성철 스님 문하에서 팔만대장경 장주 소임을 맡고 있던 어느 날, 꿈에 탄허 스님의 벼락같은 현몽이 있고 그것을 받들어 대전 자광사로 가서 중창불사하고, 다시 월정사로 돌아와 부주지 소임을 겸하며 동해시 삼화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을 때 운명적으로 삼화사 노사나철불을 친견했다. 이후 원주 치악산 구룡사 주지로 부임해 원주불교대학을 개설하고, 경찰불자들을 위하여 원주경찰서 경승실을 새롭게 장엄하는 등 대중 포교에 힘썼다.

10. 27불교법난 피해자 대표이며, 박근혜 정부의 출범 1년 뒤 조계종 1012인을 대표해 시국선언문을 낭독한 바 있다.

저서로는 〈월정사 멍청이〉 〈월정사 탑돌이〉 〈10.27불교법난〉 〈눈썹돌리는 소리〉 〈만화희찬스님 시봉이야기〉 등이 있다.

머물고 싶은 황금의 나라 미얀마



뜻밖의 미얀마

글 사진 조용경/메디치 펴냄/1만 6천원

전 포스코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조용경의 미얀마 여행기다. 저자는 뜻밖에 '미얀마의 매력'에 반한다. 마치 우연히 사랑에 빠지듯. 처음에 미얀마에 간 이유는 일 때문이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또 가고 싶어졌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빠뜨리지 않고 알고 싶듯, 미얀마의 모든 것이 궁금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미얀마로 떠났고, 짬을 내어 공부했다. 이 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4년간 16차례 미얀마 구석구석을 누비며 기록한 결과물이자 짝사랑 일지다.

신간 〈뜻밖에 미얀마〉는 저자가 열정을 다한 여행과 공부의 결과이다. 국내외를 망라해 자료를 섭렵했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연을 맺은 미얀마인 가이드에게 수십 차례 이메일을 보내 물어보았다. 또한 농업관개부 장관을 만나 미얀마 농민 실상을 직접 듣기도 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 사진을 본 후 그곳이 외국인 출입이 금지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준비해서 오지 여행을 떠났으며, 카메라를 들고 미얀마인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렇게 찍은 사진이 3000장이 넘었다. 이 책에는 작가가 발견한 흥미로운 미얀마 역사에서부터, 문화, 정치에 이르기까지 '미얀마의 거의 모든 것'을 담았다. 또한, 미얀마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수천 장의 사진 중에 137장의 사진을 엄선했다.

이 책은 미얀마 여행을 준비 중이거나 새로운 여행지를 탐색 중인 여행자에게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 미얀마는 스스로를 '황금의 나라, 미얀마'라 일컫는다. 처음 미얀마를 찾았을 당시 저자는 그 말을 비웃었다고 한다. "쥐뿔도 없는 나라가…" 하며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미얀마를 무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무엇이 저자를 사로잡았을까?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분쟁이 있어 이 지역 여행이 쉽지 않았을뿐더러, 일인당 국민소득 1200달러 정도의 가난한 나라지만 미얀마인들의 때묻지 않는 순수한 미소와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만나면 만날수록 저자의 닫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40개국 이상의 나라를 여행해본 저자이지만, 이처럼 따뜻한 경험을 한 나라는 처음이라고 고백한다.

마음을 열고 미얀마를 바라보니 그 문화 수준이 높을뿐더러 이타심이 강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로 미얀마는 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부 인구 1위를 차지한다. 또한 미얀마는 매번 다른 풍경을 선물했다. 계절마다 다른 하늘색, 알록달록한 의상들, 황금빛으로 빛나는 파고다, 일출과 일몰 때 지상의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여 놓는 태양,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신비로운 고대의 유물과 유적들…. 미얀마 여행을 하면 할수록 사고방식이 자유로워졌고, 삶의 희열을 느끼는 농도가 진해졌다.

이제는 미얀마 여행의 불편함마저 여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여유도 생겼다. 미얀마에 도착한 첫날이면 미얀마의 전통 국수, 모힝가를 한 그릇 뚝딱 해치우며 여행을 시작한다. 미얀마에서 모든 시간은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밥보다 여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작가는, 더 이상 다음 여행을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 않는다. 아직도 더 알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미얀마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일년에 절반쯤 살고 싶을' 정도로 미얀마가 좋다.

4년간 16번 여행, 3000장 사진
미얀마에서 깨달은 행복의 의미
균형된 시각으로 본 미얀마 민낯

가난하지만 서로 상부상조하고,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 알며, 낯선 외국인에게 순박한 미소로 반갑게 인사하는 미얀마 사람들. 그들에게서 마음의 풍요란 무엇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배웠다.

이 책에는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미얀마의 거의 모든 곳이 소개돼 있다. 미얀마 문화와 역사에 깃든 불교와 미얀마 여행의 에티켓서 시작해서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양곤과 네피도, 미얀마의 오랜 문화가 깃든 만달레이와 불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바간은 빛나는 미얀마를 소개한다. 이어 소박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낭만을 선사하는 인레호수, 라카인 주를 중심으로 한 미얀마의 고대 도시들과 신실한 신앙으로 가득한 몬주와 카인주의 주요 포인트까지 펼쳐 보이며, 미얀마의 성속을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곳곳을 다니며 찍은 3천여 장 사진 속에서 골라낸 137장의 사진은 마치 직접 미얀마 현지를 경험한 듯한 느낌을 줄 만큼 상세하다.

이 책은 다른 여행서와 달리 해당 여행지의 아름다운 모습만 말하지 않는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미얀마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미얀마는 1960년대 아시아서 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잘 살던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은 최빈국이 되었다. 또한 시간이 멈춘 나라에서 아시아의 떠오르는 별이라는 새로운 별칭을 얻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960년대 미얀마는 아시아권에서 일본, 필리핀 다음으로 잘사는 나라였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 쌀을 원조해 주었다. 60대 이후 사람들이 기억하는 '안남미'가 바로 미얀마의 쌀이다. 하지만 미얀마는 여전히 1960년대의 모습을 유지한다. 지난 50여 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미얀마의 근현대사를 알아야 한다. 작가는 이 책의 〈닫는 글〉에서 '아웅 산, 네 윈, 아웅 산 수지', 이 세 인물을 통해 독자들이 미얀마의 사회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한편 2012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얀마가 강력한 개혁에 성공한다면 아시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아시아의 떠오르는 별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50여 년간의 군사독재와 고립적 사회주의의 고리를 끊고 개방화의 길로 들어섰기에 '떠오르는 아시아의 별'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별은 미얀마의 풍부한 자원을 의미 한다. 미얀마에는 금, 옥 등 각종 보석이 풍부하며,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콩, 티크 목재 수출국이다. 20세기 초, 왜 영국과 일본이 미얀마를 차지하기 위해 국운을 건 전쟁을 벌였는지, 자주독립을 위해 미얀마는 어떤 운동을 벌였는지, 이 책을 통해 미얀마의 뜻깊은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에는 이뿐만 아니라 미얀마인들의 전통 옷, 전통 화장품, 국민 음식, 각양각색 파고다의 유래와 설명까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뻔한 동남아 여행에 지루함을 느꼈다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새로운 시장을 알아내고 싶다면, 다시 떠오르는 미얀마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뜻밖에 미얀마'에 반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미얀마 여행을 통해 새롭게 보고 느낀 점을 4년간 꾸준히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했다. 연재를 이어가자 블로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 단체의 요청으로 '미얀마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기회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었다.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수차례 미얀마 여행을 했다. 은퇴 후 잠시 주춤했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찾은 것이다.

김주일 기자

www.shcandle.com



자연과 건강을 생각하는 삼환양초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식물성양초 : 팜유 원료의 자연주의 캔들, 그을음이 적고 연소시간이 파라핀 양초보다 깁니다.



■ 밀납양초



: 토종 한봉 밀납만 사용한 자연 그대로의 색과 향

■ 약쑥양초



: 특유의 향과 탈취 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연꽃소이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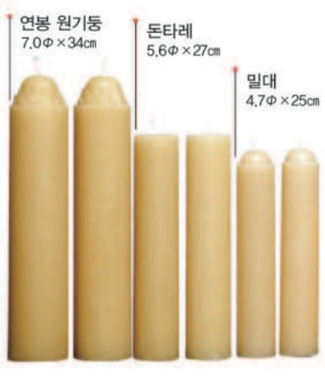
: 자연친화적이며 은은한 연꽃향이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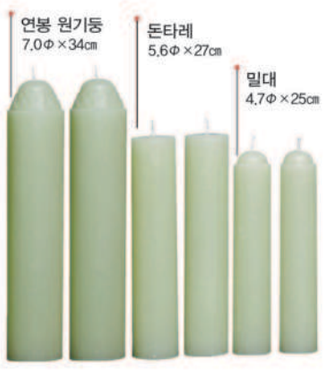
연꽃향



장·단 / 대바라









강화(사자발) 약쑥향



장·단 / 대바라

향나무향



장·단 / 대바라

우창산업 삼환양초는 1993년부터 양초를 생산해왔고 2대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믿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환양초 (우창산업) 농협 221133-51-020122 (예금주 : 장경분) 소비자무료전화 : 080-0766-8888 상담문의 031)766-0242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근대 불교미술 이끈 일섭 스님의 예술과 삶

'금용 일섭–근대 부처를 만들다'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7월 1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상, 불화, 단청 등 한국 근대 불교미술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5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특별전 '금용 일섭 - 근대 부처를 만들다'를 개최한다.

금용(金蓉) 일섭(日燮) 스님은 호남 출신의 금어(金魚)로,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활동하며 전국의 사찰에 수많은 불상, 불화, 단청을 남긴 근대 불교미술의 선구자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섭의 대표작인 불상, 불화와 함께 작업에 사용한 밑그림과 불상 틀 등을 소개함으로서, 일섭 스님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한다.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했다. 1부 '전통에서 배우다'에서는 조선 말기에 활약했던 스승들과 함께 만든 일섭 스님의 초기 작품을 소개한다. 일섭 스님은 1918년 처음 불화를 그리기 시작한 후, 그림을 배우기 위해 전국을 돌며 스승을 찾아 나섰다. 평생의 스승이 된 보응 문성 스님(1867-1954)을 만나 제자가 된 후에도 여러 선배 화원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불상, 불화, 단청 등 불교미술의 모든 분야를 전수받았다.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불.

2부 '근대 불교미술계를 이끌다'에서는 스승에게서 독립하여 불교미술품을 조성하기 시작한 일섭 스님이 근대 불교미술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의 중요한 사건들을 조명하고 있다. 일섭 스님은 1935년 김제 금산사 미륵불 조성 입찰에 참여하고 1938년 조선불교 총본산 태고사 대웅전(현 서울 조계사 대웅전) 불화를 조성하는 등 30대 중반에 많은 대규모 불사를 주도했다.

3부 '대금어의 길'에서는 일섭 스님이 40~50대에 조성한 대작들을 소개한다. 이 시기 일섭 스님은 많은 후배와 제자들을 이끌고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 높이 4m 이상의 대형 후불도를 조성하거나, 한 사찰의 불상 · 불화 · 단청을 모두 조성하는 등, 대규모 불사를 행하는 종합 예술가의 면모를 보였다.

4부 '장인에서 예술가로'에서는 근대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제자 양성에 힘쓴 일섭 스님의 면면을 살펴본다. 만년의 일섭 스님은 불교미술단체 설립과 공모전 출품, 저서 출간 등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1971년에는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에 지정되기도 했다.

그는 제자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는데, 제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일섭문도회'라는 이름으로 불교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 불교미술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몇몇 작품도 함께 소개한다. 불교적 도상에 충실하면서도 재료와 기법을 달리한 웹툰 작가의 팔상도, 대리석 조각가의 불상, 철 조각가의 사천왕상 등 현대 작가들의 기발한 불교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를 기획한 박물관 연구사는 "일섭 스님이 추구했던 불교미술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종교를 떠나 전통 시대와 현대 사이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근대인의 예술작품에서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시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사)동악미술사학회(이사장 정우택)와 공동으로 5월 18일 오후 3시부터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송광사성보박물관 신은영의 "금용 일섭의 〈연보〉와 불교예술운동"이라는 주제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근대 불화 · 불상과 일섭 스님의 예술활동을 조망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백제의 추억, 무량사로…

'천년고찰 무량사 부여나들이' 특별전
정림사지박물관 7월 15일(일)까지


무량사 5층석탑 1층 탑신 안에 봉안되었던 아미타 삼존불.

마당의 석탑은 백제를 추억하게 하고 극락전은 그 모습이 너그러워 나그네의 마음을 달래준다. 부여 만수산 기슭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무량사.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

정림사지박물관은 5월 15일(화) 부터 7월 15일(일)까지 '천년고찰 무량사 부여나들이' 특별전을 개최한다.

무량사(주지 정덕)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로 보물 제356호 극락전을 비롯한 7점의 보물과 10점의 충청남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천년고찰이자 부여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무량사의 소장 유물과 무량사구지의 출토유물을 소개한다. 무량사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명문기와와 무량사 5층석탑 안에서 극락왕생을 염원하던 4구의 불상을 선보인다. 불상은 그간 도난 되었다가 되찾은 귀중한 성보문화재이기에 더욱 가치 있는 문화재라 할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무량사의 재건 과정으로 탄생한 귀중한 불교 문화재가 전시된다. 더불어 세조의 왕위 찬탈을 지켜보며 방랑길에 올라 무량사에서 입적한 시인이자 사상가이며 백세의 스승인 설잠 스님(매월당 김시습)의 초상화도 전시된다. 이와 더불어 보물 제1860호인 '삼전패' 3점 중 '나무아미타불패'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 삼전패는 조각기법과 채색이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된다.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대표되는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는 선사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유적이 산재해 있는 야외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무량사에는 한국석탑의 원형인 정림사지 5층석탑을 꼭 닮은 백제계 석탑 무량사 5층석탑이 있어 유구한 백제 불교문화의 가치를 새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무량사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지켜보며 방랑길에 올라 무량사에서 입적한 시인이자 사상가이며 백세의 스승인 매월당 김시습의 이야기로도 널리 알려진 사찰이다.

이번 전시가 열리는 정림사지박물관은 2006년 9월 백제 사비시기의 불교와 그 중심에 있었던 정림사를 주제로 백제 불교문화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시키고자 개관하였으며 2013년 8월부터 부여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백제 불교문화의 가치를 재창출함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사비지역의 역사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탑골미술관 故 최낙경 화백 회고전

'화백, 종로를 걷다 그리다'
탑골미술관 6월 15일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은 6월 15일까지 탑골미술관 제7회 기획초대전으로 故 최낙경 화백의 회고전 '화백, 종로를 걷다 그리다'를 개최한다.

최낙경 작가는 1943년생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과 동시대를 살면서 주변과 자연의 풍경을 화폭에 담은 서양화가이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전라남도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작고하기 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했다. 풍경화 외에도 목판화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개인전 '소월시집 목판화전'을 열기도 했으며, 매일경제신문, 스포츠서울, 한국일보 등 1980년대 주요 일간지 연재소설의 삽화를 그렸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기획전에 故 최낙경 화백이 함께 한 이유는 그가 바로 종로에서 살고, 교류하며, 고민하고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사동 일대 화백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 개인으로서의 최낙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시는 단순히 화가 한 사람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작품과 더불어 살아생전 화백으로서 가지고 있던 고민과 복잡한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품과 미술도구 등을 함께 전시한다. 화가 최낙경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더 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다.


사생, 캔버스 유채. 49×36.5㎝

전시에는 '인왕산 수성동 잔설' '제주 비양도' 등 약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문의 (02)6220-8506. 박재완 기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대승경전 연구 새 방법론을 제시하다

주목! 학술서 | 시모다 마사히로의 〈열반경 연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열반경〉의 핵(核)이 되는 경전은 〈원시열반경〉입니다. 이것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대승의 〈열반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열반경〉이 존재합니다. 동질성과 이질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열반경〉에서는 사상적 운동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승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 서울 충무로 동국대 불교학술원 강의실에서 열린 해외 석학 초청 강연회에서 강사로 나선 시모다 마사히로(下田正弘) 도쿄대 교수의 강의 중 일부다.

〈열반경 연구- 대승경전의 연구방법시론〉 한국어판(이자랑 譯, 씨아이알)의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강연회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렸다. 그만큼 〈열반경 연구〉에 대한 시모다 교수의 강연에 사부대중의 관심이 높았다는 것이다.

시모다 교수의 〈열반경 연구〉는 자신의 도쿄대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해 1997년 처음 발간됐다. 출간 직후 〈열반경 연구〉는 일본 불교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일본종교학회로부터 일본종교학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시모다 교수의 〈열반경 연구〉는 대승경전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연 고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승경전의 연구방법시론' 이라는 부제에서 나타나듯 시모다 교수의 경전 연구는 텍스트를 해석하고 경전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지 않다. 그는 〈열반경〉의 형성 과정 분석을 통해 대승경전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를 짚어낸다.

시모다 교수의 〈열반경 연구〉는 서장부터 결론까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6월 1일 동국대 불교학술원 초청 강연을 하고 있는 시모다 마사히로 도쿄대 교수〈사진 왼쪽〉와 사진 오른쪽은 그의 저서인 〈열반경 연구〉 한국어 판 표지.

문헌 읽으며 내재적인 의미 파악

〈열반경〉 형성 총체적 분석 통해

새로운 대승경전 연구 방법 주장

"경전연구, 텍스트 해석이 아닌 분명한 모습에 다가가려는 시도"

서장은 〈열반경〉 형성과 관련된 전제 요소와 대승불교 교단의 기원 · 경전 형성사 등을 살피며, 1장 '대승 〈열반경〉 이전의 역사' 는 〈열반경〉이 형성되기 전에 불탑 · 사리 숭배 등 열반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고찰한다. 2~4장은 〈열반경〉의 형성과 사상 · 사회적 배경의 변천을 방대하면서도 새로운 독법(讀法)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저자는 〈열반경〉이라는 하나의 텍스트 안에 다양한 동질성과 이질성이 존재하며, 이를 밝힘으로써 〈열반경〉에 내재한 '운동' 이 무엇인지를 짚어낸다.

〈열반경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대승경전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시선이다.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가 역자 후기서 설명했듯이 시모다 교수가 말하는 '대승경전의 연구방법시론' 은 '방법론에 자각적인 연구의 구체적인 예' 로 읽힌다. 거칠게 말하면 '경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의미를 물으며 문헌 내재적으로 읽는 단순한 태도를 철저히 유지하는 것' 이다.

이런 연구론은 시모다 교수 자신이 경험으로 체득한 것이다. 그는 일찌감치 석사 논문 주제로 〈열반경〉을 선정했고, 일반적 독해로 사상 체계와 내용을 연구하면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는 오판이었고, 결국 경전에 담긴 말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를 음미하며 길을 더듬어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무모하다면 무모할 수 있는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완성한 것이 지금의 〈열반경 연구〉다.

시모다 교수는 경전연구에 대해 "역사도 풍토도 문화도 동떨어진 텍스트를 상대로 가능한 한 분명한 모습에 다가가려는 시도"이자 "경전의 운동을 운동 그대로 더듬어보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경전에 나타난 '운동을 모방하고 모방하는 것' 이 연구자의 덕목임을 강조한다.

책의 말미, "연구자는 현대에 서 있고, 경전은 역사와 풍토를 사이에 둔 저편에 존재한다. 연구자와 경전과의 접점의 위치는 시대와 함께 반드시 움직여가야 한다"는 시모다 교수의 주장은 동시대 학자들에게 던지는 고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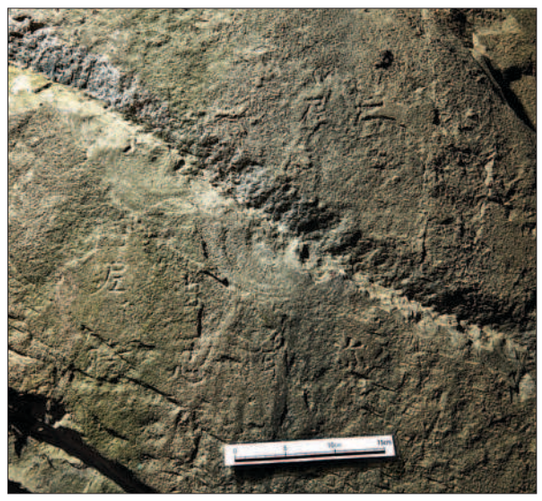
경주 선도산 마애불서 삼국시대 명문 발견

박홍국 교수 답사 중 확인

8자 판독… 비구니 호칭도

석불 명문 중 最古 추정돼





보물 제62호 선도산 마애불〈사진 왼쪽〉과 박홍국 위덕대 박물관장이 발견한 명문〈사진 오른쪽〉.

경주시 서악동에 위치한 보물 제62호 선도산 마애불에서 삼국시대에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 명문이 발견됐다.

불교고고학 전문가인 박홍국 위덕대 박물관장은 "유적 답사 중 선도산 마애불의 오른쪽 암벽에서 약 1.3m 떨어져 나와 성모사 뒷편 처마 아래까지 밀려온 바위면에서 삼국시대에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 명문 8자를 판독했다"고 6월 4일 밝혔다.

당시 박 관장은 동행한 전공 학자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했고 가로 5행, 세로 5열 중 8자를 판독했다.

2열 1행은 거(居), 5행은 미('ㅁ'를 새겼고, 3열과 4열 5행에 각각 문(聞)과 사(思)가 있다. 가장 글자가 많이 남은 열은 5열으로, 5열 3~5행에는 차례로 아(阿), 니(尼에서 匕 대신 工), 신(信)이 보인다.

글자의 크기는 세로 3.5~4.5㎝이고, 글자 사이의 간격은 2~3㎝, 옆 글자와의 간격은 약 4㎝이다.

명문은 능숙한 솜씨로 새긴 해서체로 가로 3m, 세로 2.8m, 높이 2.5m의 바위 동쪽면에 남아있지만 표면 박락과 파손이 심한 상태이다.

판독된 명문 중에서 '미('ㅁ')는 선도산마애불의 본존이 아미타여래상인 것과 관련있어 보인다. '아니(阿)' 는 '아니(阿尼)' 의 이체자(異體字)로 대구 무술오작비(578년, 신라 진지왕 3년)에도 있는데, 비구니를 뜻하는 호칭으로 〈삼국사기〉에도 2곳서 확인된다.

명문을 찾은 박 관장은 "명문의 위치로 보아 마애불의 조상기 명문일 것"이라며 "단석산 신선사 조상명문과 더불어 우리나라 석불 명문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새겨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이 같이 잘 새겨진 명문이 있는 것은 당시 선도산 마애불 조성에 많은 공력이 투입됐음이 증명된다"고 밝혔다.

이 명문에 대해 함께 조사한 신라사 전문가 이영호 경북대 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명문은 비록 일부 글자만 판독된 상태지만,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라 진평왕대(597~632년) 선도성모 불사 관련한 역사적 사실일 수 있다"며 "700년 전후에 조성된 마애삼존불의 조상명문(造像銘文)일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금석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 선도산 정상(해발 390m) 가까운 안산암 절벽에 높이 6.85m의 본존불과 화강암으로 따로 조성된 협시보살(4.62m · 4.55m)이 있는 이 마애불은 경주 시내를 내려 보는 곳에 자리한 기념비적인 삼국시대 거대 석불이다.

신성민 기자

토론으로 어떻게 전법할 것인가

불광연구원, 1일 토론 주제 봉축 학술연찬회

토론을 통한 전법 방법론을 논하는 학술연찬회가 열렸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6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마음을 여는 문답 지혜를 나누는 토론' 을 주제로 봉축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처님의 문답과 전법을 살펴보고, 현대의 전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됐다.

특히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전법을 위한 문답과 토론기법' 을 통해 구체적인 전법 토론 기법과 교육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백 교수는 "전법을 위해서는 불교의 내용과 문답, 토론기술을 수지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교토론 지도자 양성과 불교토론의 자료화, 체계적 불교문답과 불교토론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의 문답과 초기불전에 나타난 토론' 을 발표한 신희정 창원중앙고 교사는 붓다의 대화 방법과 초기불전 속의 토론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는 "불교를 붓다의 가르침의 내용과 방법, 붓다의 교육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초기불전에서 보이는 붓다의 대화 방법을 현대 전법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연찬회에서는 유동걸 영동일고 교사의 '문답과 토론의 이론적 원리와 자세' 와 차상엽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의 '대승경전과 논사들의 문답과 토론'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도서관 주최 '길 위의 인문학' 모집

27일까지… 가족 선착순 접수

동국대 중앙도서관(관장 임중연)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호모 엑스 마키나(Homo Ex Machina) 인간을 꿈꾸다' 에 참여할 가족을 모집한다"고 6월 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학부모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총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1차 '알파고 인간과 겨루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2차 '로봇세상으로의 나들이' △3차 '드론, 하늘에 꿈을 날리다' 및 '백투더 퓨처에서 아이언맨까지' 등으로 이어진다.

다문화 및 소외계층 가정 학부모와 초등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 등을 탐방하게 된다.

또한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가족구성원간 유대를 다지기 위한 가족독후감 공모전도 함께 진행한다. 주제도서로 선정된 '어린이를 위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를 가족구성원이 함께 읽고 독후감을 6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포함 가족이면 누구나 선착순 접수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1차 신청기간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문의(02)2260-3457

신성민 기자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 40,800원
(무료배송)



희담석 稀潭石
(Batu Hitam) 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2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하고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⑪ 사형수 권갑석

"저는 죽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형수처럼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지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형수 권갑석이다.

하루는 부산변호사회 총무인 박준석 변호사가 "대구교도소에 가시는 길이 있으면 한 사형수를 만나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권갑석이었다. 권 씨는 박 변호사가 무료로 변호를 맡았던 의뢰인이었다. 박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변호를 했으나 결국 권 씨에게는 사형이 선고됐다. 권 씨의 혐의는 살인이었다. 자신의 아내와 한 남자를 살해했다는 혐의였다. 사형이 확정되자 권 씨는 박 변호사에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며 깍듯이 인사를 했다고 한다.

권 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과실로 인한 사고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와 증거가 부족했다. 그런 권 씨에게 사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변호를 맡았던 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미안했다. 그런 박 변호사에게 권 씨는 오히려 고맙다고 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그런 권 씨의 모습이 한 동안 마음속에 진하게 남아있었다. 그러던 차에 권 씨로부터 박 변호사에게 편지가 오기 시작했다. 이유가 어찌됐든 자신으로 인해 두 사람이 죽었으니 자신의 사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박 변호사는 형이 확정된 뒤 7년 동안 꼬박꼬박 보내오는 권 씨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박 변호사는 나에게 부탁을 해 온 것이다. 나보고 권 씨의 이야기를 들어봐 달라는 것이었다. 속이라도 풀리게 그의 이야기를, 진실이 무엇인지를 들어봐 달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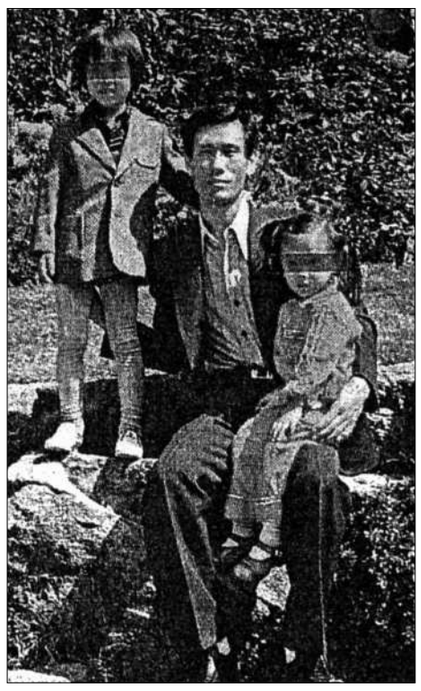
나는 신의가 있는 박 변호사의 인간성에 반해 사형수 권 씨를 만나보기로 했다. 면회실에 들어서는 권 씨는 키가 컸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나 같이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애쓰시는 스님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인사를 했다. 나는 박 변호사의 애틋한 마음을 전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저는 죽음을 맞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저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 제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변호사님께 마음은 고마우나 더 이상 마음에 두시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형수처럼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지난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평온했다. 그리고 그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애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며 먼저 일어섰다.

권 씨는 85년 6월 24일 부산에서 구속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인의 남편을 살해하고, 이를 눈치 챈 자신의 아내까지 살해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권 씨는 처음부터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아 끝내 사형수가 되고 말았다.

권 씨는 자신을 종교에 귀의시킨 수녀를 만나서도 아내의 죽음은 말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였으며, 알고 지내던 여인의 남편 역시 살해가 아닌 교통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정황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 판결이었다고 아직도 말하고 있다.

아내와 지인 남편 살해 혐의
사고사 주장과 증거 불충분에도
정황만으로 사형 확정 받아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 판결 수용

1심 판결 후인 86년 세모 때, 담당판사였던 김 모 씨는 권 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김 판사는 편지에서 "귀하의 행위에 대해 국법에 따라 형을 선고했으나 인격을 정죄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면서 신앙을 가질 것을 권했다. 그리고 권 씨도 이에 편지를 보냈다. 가혹한 형벌로 자신을 단죄한 판사에게도 권 씨는 "고맙다. 김 판사의 따뜻한 정과 인품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두 아이의 아빠였던 권갑석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끝내 사형수가 되어 세상을 달리했다.

권 씨는 김 판사와 7년 편지를 주고받았다. 기독교신자인 김 판사가 보낸 성서(聖書) 한 권이 계기가 되어 권 씨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권 씨에게는 대학생인 맏아들과 두 딸이 있었다. 또 병환 중인 노부모도 있었다. 교사였던 여동생은 결혼도 미룬 채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다. 당시 대구에는 권 씨의 구명운동을 펼치는 '새생명회'가 있었다. 권 씨와 함께 잠시 미결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권 씨에게서 받은 감동 때문에 권 씨를 위해 탄원서를 준비했었다. 그래서 나도 그 때 판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었던 기억이 있다. 살려야 할 가치가 있는 생명이라면 어떻게든 살릴 수 있도록 힘쓰고 싶었다. 매일 죽음 한가운데에 서있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빛 한 줄기가 되어 주고 싶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따뜻한 빛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권 씨는 1992년 형이 집행되어 세상을 달리했다. 중생에게 '죄'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 것 같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중생 아닌가 싶다. 누구나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산다. 누구처럼 사형으로 죗값을 치러야 하는 죄도 있고, 마음으로 치러야 하는 죄도 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가려내 낼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억울한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 가려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모든 안타까움과 슬픔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정리=박재완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⑩ 봉철스님 · 성정주 보살

무척 궁금했다. 일명 욕쟁이 스님이시고 언제 어디에 어떻게 나툴지 모른다는 스님이….

어느 절에 잠깐 들르신다는 정보(?)로 28년 전 어느 날 지체 없이 비행기를 타고가 남도 어느 절에서 처음 뵈었다. 앉아야 할지, 서야 할지 둥둥 떠있는데 저○은 왜 서 있냐고 일갈하셨다.

내가 "스님이 욕을 하신다면서요?" 하니 "야, 이○아, 아무나 보고 욕을 하냐!" 하시면서 "너는 내생기도나 해라."하고 말씀하셨다.

인연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 가끔 양백정사로 가서 스님을 찾아뵙고 지도를 받았다.

당신과 나는 지금 40세 된 아들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닌 어린이 불교학교에서 인연이 되었지요. 부처님 법을 만난 걸 최고의 복으로 알고 신행생활을 체계 있게 했으며, 뒤지지 않는 신심이 당신을 법사로 만들었지요.

그동안 우리는 '성지순례', '기도성취' 한다고 '아내 부재중', '엄마 외출중' 팻말을 많이도 갈아 달았지요. 그랬던 당신이 '단기 출가'라는 팻말로 바꿔 달아본다지요. 계속되는 꽃샘추위에 출가라는 시간을 보내는 당신이 '오들오들 선녀'가 되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도 앞섭니다. 세속에서의 출가(出家)에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놓아 버리고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축제라는 이름으로 산중 출가(出家)로 향한 당신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5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